

다니엘 · 요한 계시록

핵심 예언연구

재림성도의
영적 성장
과정

· 1단계 ·
신자되기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재림성도의 영적 성장 과정

Making Adventist Continuum



재림성도의 영적 성장 과정

Spiritual Growing In Christ As The Adventist

핵심예언연구 교재



다니엘 · 요한계시록

핵심예언연구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오늘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기능과 사명은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교회가 세상을 교화시키는 사업을 위해서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적절하게 하기를 원하신다”(6T, 431).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는 학교가 되어야 한다”(MH, 135).

이 말씀과 같이, 교인들을 실제적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이 각 교회마다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한 교회의 부흥과 사명의 성취는 요원(遙遠)한 일입니다. 그동안 재림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을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강조는 많이 하였지만 지역 교회 차원에서 실천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교회 성장의 가장 기본 요소인 평신도 훈련을 이제라도 새롭게 시작해야 교회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교회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새 힘 2015’ 사업의 일환으로, 체계적인 재림성도 양육과정 시스템과 교재들이 제작되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이 방대한 작업을 완성시킨 선교전략연구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단계의 과정을 13권의 교재로 공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양육 교재가 각 교회에서 적절하게 사용되어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역사가 한국의 모든 재림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5년 9월
한국연합회장 / 목회부장 김대성

세계의 미래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윤리 등 모든 분야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혼돈하고 어둡고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도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필요하고 어두움을 비춰주는 등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빛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샨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벧후 1:19).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두움을 비춰주는 등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다니엘, 요한계시록)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며 인간을 구원하시는 모든 역사가 예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모두 상세하게 공부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예언들을 몇 가지 선별하여 개인적으로나 소그룹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이 교재를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요한계시록에 약속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3)

* 본 교재는 <다니엘·요한계시록 핵심예언연구> (김대성 저)를 기초로 하여 개발되었습니다.

본 교재를 연구하기 위한 기본 구성과 사용법

생각 모아보기

각 과의 주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예화가 수록되어 있다.

마음 준비하기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집중하도록 돕는 준비 질문들이다.

배경 이해하기

본문의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하도록 돕는 배경에 대한 자료이다.

본문 연구하기

성경 본문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귀납적 방식의 문답식 성경공부를 따른다.

삶에 적용하기

배운 것을 삶에 실천하도록 돕는 다양한 제안들을 소개한다.

- 표현하기 / 개인의 성장과 사역을 실천하도록 돕는 다양한 활동 소개
- 묵상하기 / 특정 구절이나 단락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
- 도전하기 / 개인의 차원을 넘어 가족과 이웃 공동체에 기별을 전하는 격려의 내용

Part
01

다니엘서 연구

- Lesson 01 예언과 이스라엘 역사...7
- Lesson 02 신상에 나타난 세계 역사...20
- Lesson 03 작은 뿔의 정체...41
- Lesson 04 안식일과 주일의 역사...74
- Lesson 05 2300주야에 대한 예언...100

Part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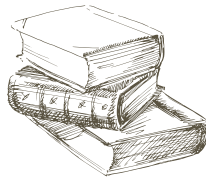
요한계시록 연구

- Lesson 06 선악의 싸움 4단계...130
- Lesson 07 교황권의 부활과 미국 ...160
- Lesson 08 영혼불멸설과 강신술...201
- Lesson 09 144,000인과 하나님의 인...231
- Lesson 10 천년기와 지구 회복...259

Part 1 다니엘서 연구

Lesson 01

예언과 이스라엘 역사



예언이란 무엇인가? /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포로생활이 예언된 것은 언제인가?

그것이 언제 성취되었는가?

예언과 이스라엘 역사

생각 모아보기

2001년 9월 11일 아침 8시45분 테러리스트들은 납치한 비행기 두 대를 미국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충돌시켰다. 5,000명 이상의 사람이 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2004년 12월에는 지진으로 생겨난 엄청난 해일이 순식간에 동남아 해안을 강타하여 2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다.

문제는 그렇게 무서운 비극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그 수많은 점쟁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세상의 운명을 미리 알고 있다고 호언 장담하던 수십만 명의 예언자들과 점성술사들은 그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 무엇을 했는가? 그 사건들을 예언했다면 세계적 영웅이 되고 돈과 명예가 한꺼번에 굴러왔을 텐데 왜 그 사건을 예언하지 못했는가? 진상은 명확하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은 결단코 미래를 예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가? 세상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구라는 별은 도대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그 마지막은 어디인지, 내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것인가? 내 운명이나 이 세상의 미래가 뉴욕의 쌍둥이 건물처럼 어느 날 어이없이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

인가?

희망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약 1,000번의 예언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예언들이 이미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나머지 종말에 관한 예언들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된다.

성경에 의하면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성경의 예언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 보이셨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두 권의 예언서가 있는데 구약에서는 '다니엘'이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다. 우리가 지금부터 연구하려는 책이 다니엘서인데 바벨론으로 부터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제국을 거쳐 현재의 세계 질서가 이루어지고 마침내는 지구의 종말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세계 역사의 대 파노라마를 예언하였다.

마음 준비하기

- ① 앞으로 5년 동안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리라고 예상하는가?
- ② 앞으로 5년 동안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가?
- ③ 당신의 미래를 생각할 때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배경 이해하기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세상의 미래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설교인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다. 「감람산 설교」로 알려진 이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3~8, 14).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사람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 하는 세상의 “마지막” 곧 “끝”에 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세상의 끝을 알 수 있으며 어떤 단서를 주셨는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마 24:15).

누구든지 세상의 마지막에 관하여 알기를 원한다면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 쓴 다니엘서를 읽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당신의 마지막 설교에서 연구하도록 친히 요구하신 유일한 책이 다니엘서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

으로도 다니엘서 연구의 중요성은 확실해진다.

다니엘서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관한 책이다. “마지막 때”(the time of the end)라는 말이 성경 전체에서 5번 나오는데 모두 다니엘서에만 기록되어 있다(단 8:17, 11:35, 40, 12:4, 9). 다니엘서와 마지막 때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브리엘 천사가 말하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往來)하며 지식이 더하리라”(단 12:4)고 하였다. 이것은 2300주야에 관한 예언(단 8:14~19)이 “마지막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예 봉하여 두었다가 갑자기 사람의 지식(知識)이 증가되고 교통(交通)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마지막 때”가 되면 개봉되어 깨닫게 될 것이라는 단서가 붙은 것이다. 이러한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본문 연구하기

1. 예언이란 무엇인가?

1) 예언은 하나님의 통치방법 이다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를 다스리실 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이 예언을 잘 듣고 살피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도록 하신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



2) 구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예언하였다

구약성경은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이다.

3)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하였다

신약성경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러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다.

4)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미리 알려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미리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 예언 전달 매체 – 선지자 나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 예언 전달 방법 – 꿈, 계시, 이상, 말씀 등



[민 12:6]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5) 예언을 주신 목적

[사 42:9]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 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하도록 하기 위하여
- ②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아 **대처하도록** 하기 위하여

2.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1) 예언서는 어두운 **미래의 등불** 이다

[벧후 1:19]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취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벽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2) 마지막 때가 되었다

[단 12:9, 10]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같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3) 예언서가 펼쳐져야 한다

[계 22:10]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4) 예언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계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 성경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모르면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구약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경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언을 공부하려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간략한 공부가 필요하다.



2)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심으로 시작되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창세기 12:1, 2).

3) 아브라함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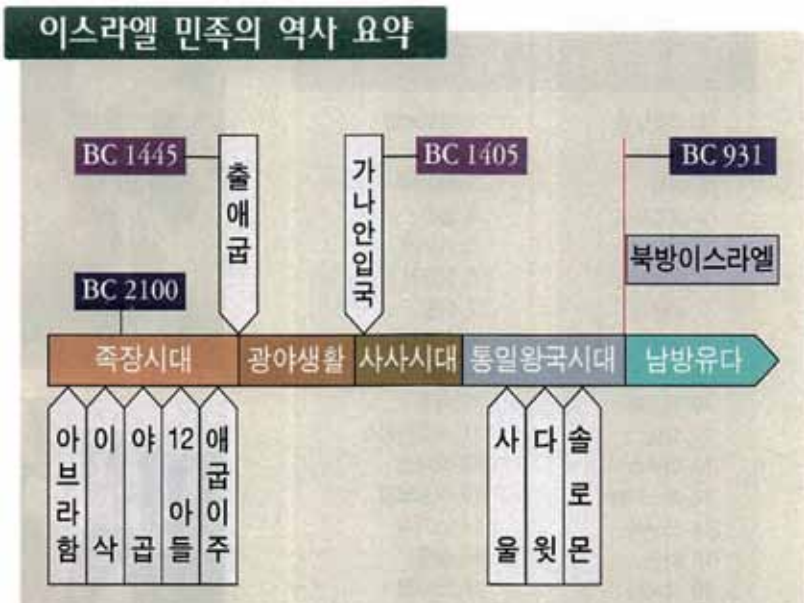
그 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점점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이 계기가 되어 야곱의 모든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창 46:27).

4)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한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약 430년간 살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나 저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5) 가나안 입국 이후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거쳐 두 나라로 분열되었다
 사사(士師) -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점령에서부터 왕국 설립 때까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시행하고
 재판을 베풀며 그들을 보호하되 이방 군대의 침입에서도 보호했던 종교
 적,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



이스라엘 분열 당시 첫 왕과 수도

분열 국가명	첫 왕	수도
북방 이스라엘	여로보암	사마리아
남방 유다	르호보암	예루살렘

남북왕조의 역대 왕들

남방 유다 왕조	북방 이스라엘 왕조
1. 르호보암	1. 여로보암
2. 아비아	2. 나답
3. 아사	3. 바아사
4. 여호사밧	4. 엘라
5. 요람	5. 시므리
6. 아하시야	6. 오므리
7. 아달랴	7. 아합
8. 요하스	8. 아하시야
9. 아마스	9. 요담
10. 웃시아	10. 예후
11. 요담	11. 여호아하스
12. 아하스	12. 요아스
13. 히스기야	13. 여로보암
14. 므낫세	14. 스가랴
15. 아몬	15. 살룸
16. 요시아	16. 므나헴
17. 여호아하스	17. 브가히야
18. 여호아김	18. 베가
19. 여호아긴	19. 호세아
20. 시드기야	



4. 이스라엘의 포로생활이 예언된 것은 언제인가?

1) 히스기야 왕이 남방 유다의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실수를 하다

남방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생명이 15년 연장되었다. 이 소문을 들은 이웃나라 바벨론 왕은 축하 사절단을 히스기야 왕에게 파송하였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각종 보물과 무기고를 보여주며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

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열왕기하 20장, 이사야 38장, 39장) 이에 하나님께서는 당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실수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셨다.

2) 남방 유다의 포로생활을 이사야가 예언하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 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 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사 39:5~7).

5. 그것이 언제 성취되었는가?

1) 주전 605년에 유대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다

히스기야(13대왕)에게 경고를 발한 지 약 95년 후인 여호야김 왕(18대왕) 3년에, 이미 예언되었던 대로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와 유대 민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주전 605년경의 일이다. 계속 2차(주전 597년), 3차(주전 586) 침공으로 거의 모든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다. [단 1:1, 2]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지 삼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2)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다

아마도 다니엘은 1차 포로시(주전 605)에 잡혀갔을 것이며, 학자들은, 이 다니엘서가 포로로 잡혀간 지 약 70년 후인 고레스 왕 원년에 기록되었다고 본다.

삶에 적용하기

성경을 공부한 후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세요.

표현하기

☞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이 있는가? 그 시련의 기간을 거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도우셨는가?

묵상하기

☞ 다니엘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당신의 현재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문이나 시를 써보라.

도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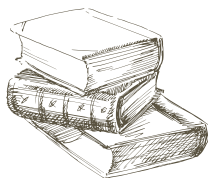
☞ 하나님은 바벨론 국가의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기에 다니엘을 막강한 국가의 고관으로 일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한 국가를 선택하고 그 나라를 위하 기도하라.

Part 1 다니엘서 연구

Lesson 02

신상에 나타난 세계 역사

단 2장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꿈을 알아내지 못하는 신하들에게 왕은 어떤 명령을 내는가?

누가 왕의 꿈을 알아내어 해석하겠다고 했는가?

왕은 무슨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가? /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꿈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었나? / 두 번째 꿈에서 들은 무엇인가?

돌이 선상의 발을 내리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돌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신상에 나타난 세계 역사

생각 모아보기

말씀의 맛을 보라

어떤 총각이 여자 친구와 결혼할 것을 결심하였지만 그 총각은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자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매일 연애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그런 일이 3주 계속된 다음, 그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한 사람은 연애편지를 보낸 총각이 아니라, 매일 편지를 배달한 우체부였다.

계속적인 접촉이 사랑에 이르렀고 결국 결혼으로 끝인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접촉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어떠한지, 그 맛을 보게 되면 더욱 말씀을 갈구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맛을 말씀으로 보고 말씀을 더욱 갈구하면 그 결과 더욱 성장하게 된다. 이것이 성장의 순환이다.

죄악을 통한 세상의 맛이 쓰다는 것을 느껴야 말씀을 통한 주님의 맛을 갈구하게 된다. 말씀을 통한 주님의 맛을 보고 나면 죄악을 통한 세상의 맛이 시들해진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기, 위선, 시기, 비방 등 모든 악독을 버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갈구해야 한다. 부모가 어린 자식이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에 무조건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서 그것을 버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한 인자하신 주님의 맛을

대안으로 내어놓으면서 옛 사람의 달콤한 죄악들을 버리게 하신 것이다. 죄를 버리고 말씀을 갈구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수 1:8)

마음 준비하기

- ① 인상적인 꿈을 꾸었으나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할 때, 기분이 어떠합니까?
- ② 당신이 받은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③ 만일 당신이 대통령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할 기회를 얻었다면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배경 이해하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로잡혀 온 유다의 제1차 포로가 있었던 기원전 605년 이후 3년째 되는 기원전 603년은 그들의 바빌로니아 교육 과정이 마쳐지는 해였다.

바빌로니아(신 바빌로니아)는 종주국(宗主國)이었던 앗시리아(성경의 앗수르)

를 기원전 612년 멸망시켰고, 주변의 강대국들인 이집트와 메디아, 리디아를 제패(制覇)했으며, 페니키아와 유다도 차례로 복종시켰다.

이리하여 기원전 6세기 근동 세계의 최강국이 된 바빌로니아의 젊은 대왕 느부갓네살은 아버지 나보포랏살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후 이전처럼 다시는 망하지 않을 만세(萬世) 왕국을 꿈꾸고 있었으며 그의 이러한 황금 꿈은 착실히 성취되어 가고 있었다.

본문 연구하기

1.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다**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는 지 이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단 2:1).



2) 꿈을 모두 **잊어버렸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난 어느날 대단히 심각한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꿈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중요한 꿈을 꾸었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

3) 박수와 점쟁이들에게 꿈을 알아내라고 하였다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단 2:2, 3). 그러나 박수와 점쟁이들이 왕의 꿈을 알아내지 못했다.

2. 꿈을 알아내지 못하는 신하들에게 왕은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1) 꿈 내용과 그 해석을 알아내라고 하였다

[다니엘 2:5, 6]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찌갈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거름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2) 박사들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찾았다

[다니엘 2:13] “왕의 명령이 내리매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3. 누가 왕의 꿈을 알아내어 해석하겠다고 했는가?

1)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왕의 시위대 장관 아리옥이 박사들을 죽이러 나갔을 때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물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의 대략적인 설명을 들은 다니엘은 왕에게로 들어가 며칠만 기한을 늦추시면 꿈과 해석을 보여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2)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약속한 것은 위대한 믿음 때문 이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서 그렇게도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꿈과 해석을 보여 주겠다고 한 것을 보면 그는 대단히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 다니엘은 또한, 동료들의 모함에 걸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 6:10).

3) 다니엘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단 2:18~20).



4. 왕은 무슨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가?

1)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가지고 왕 앞에 선다

[다니엘 2:27, 28] “다니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 왕이 장래 일을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다

다니엘은 꿈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 왕이 침상에서 꿈을 꾸기 전에 장래 일(미래의 역사)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고 말하였다. 아마도 왕은 잠자기 전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까지 알아맞히는 다니엘과 그 하나님에 대하여 큰 신뢰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5. 꿈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 꿈의 내용 (단 2:31~35)

[제 1 막]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였나이다.”



[제 2 막]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으나이다.”

왕은 꿈속에서 위의 그림과 같은 큰 동상을 보았으며, 그 후에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공중에서 날아와 신상의 발을 내려쳤을 때 신상이 산산조각이 되어 흩어져 버리고 그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한 모습을 본 것이었다.

6. 첫 번째 장면의 꿈에 대한 해석은 무엇이었나?



● **첫 번째 장면의 꿈 해석** -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숴뜨리고 뿔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다니엘 2:36~43).

● **바벨론에서 시작되는 예언** - 그 꿈의 해석을 보면,

신상의 각 부분[머리, 가슴과 팔들,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가락]은 각각 어떤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금으로 된 머리는 당시의 가장 부강하고 번영했던 바벨론(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벨론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은 나라에 의해서 패망하게 될 것이었다. 바벨론 이후에 이어지는 유럽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신상의 모습과 너무나 분명하게 일치함을 알 수 있다.

1) 금 머리는 **바벨론** (기원전 605~539)이다

[단 2:38] “왕은 곧 그 금 머리니이다”

● **금이 많은 나라: 바벨론** – “고대 역사가 헤루도투스가 느부갓네살이 죽은지 1세기 후에 바벨론을 방문하였



는데, 그 때까지 많은 금이 남아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전, 제단, 사당 등 모든 것이 귀중한 금으로 입혀져 있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여호와와의 수종의 금잔이라(렘 51:7)고 말하고, 이사야는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사 13:19)이라고 했다”(Unfolding Daniel’s Prophecies by R. A. ANDERSON, p. 47).

2) 은 가슴은 **메데 페르샤** (기원전 539~331)이다

[단 2:39]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함** – 바벨론



은 메대와 페르샤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였다. 바벨론을 결정적으로 정복하고 바벨론 성에 입성한 왕은 페르샤의 고레스 왕이다.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남겼다. “나는 고레스, 세상의 왕,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정복한 왕이다. …내가 바벨론에 개신 입성했을 때 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의 당당한 거처를 왕국으로 잡았다”(기원전 539년 10월 13일) (R.W. Rogers, Cuneiform Parallels to the Old Testament, p. 381).



● **메대 페르샤는 은으로 세금을 거둔 나라** – “마치 은이 가치에 있어서 금보다 못한 것처럼 그 다음 번에 세계적인 왕국이 되었던 메대 바사는 부와 영화에 있어

어서 바벨론보다 못하였다. 그러나 바사는 은이 많기로 유명했다.…메대 바사 제국에서는 최초로 각종 세금을 은으로 지불했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제국의 왕은 은으로 심히 부요해졌다. 그 제국은 주전 539년부터 332년까지 약 200년간 계속되었다”(Unfolding Daniel’s Prophecies by R. A. Anderson, p. 48).

3) **놏 배는 그리스** (기원전 331~168)이다
[단 2:39] “셋째로 또 놏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 **그리스[헬라제국]가 등장함** - 페르샤 제국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제국에게 패배하였다. “그리스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은 … 당시 오리엔트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군과의 전투에서 연전 연승을 거두고 … 알베라에서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여 페르시아를 멸망하였다”(신채식, 양병우 저, 세계사, 서울:보진재, 1988, p. 81, 82).

- **알렉산더 대왕** - “아버지 필립 대왕의 선견지명에 의해, 학문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384~322 BC)를 개인 교사로 두고 교육받은 알렉산더는 헬라문명으로 세계를 구리처럼 용해시켰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구리 제련에 매우 탁월했기 때문에, 고대의 역사가들에 의해,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로 불리울 정도였다”(Expository Sermons on the Book of Daniel Vol.2, p. 64 by Criswell, W. A.).

4) 철 다리는 **로마** (기원전 168~서기 476)이다
 [단 2:40] “넛짜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숩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같이 그 나라가 못
 나라를 부숩뜨리고 뺨을 것이며”



- **알렉산더 제국의 멸망** - 주전 168년 6월 22일, 알렉산더 사후 144년이 되던 때, 드디어 알렉산더의 제국은 로마에 의하여 피드나 전투에서

멸망하였다(데오도르 마운센의 로마의 역사, 제3권, 제10장).

● **철의 제국 로마** – 공화국의 군대는 전투에서는 종종 진 적이 있었지만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하면서 유프라테스 강과 다뉴브 강, 라인 강과 대양을 향하여 빠르게 진군하여, 그 나라들과 왕들을 나타내는 금과 은과 놋의 우상들은 철의 제국 로마에 의하여 연속적으로 깨어졌다(에드워드 기본스의 로마제국의 쇠망사, 제3권, 634쪽).

5) 철과 진흙 발가락은 **분열된 나라시대** (주후 476~재림)이다

[단 2:43]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 **로마의 멸망과 분열** – 도무지 망할 것 같지 않던 거대한 로마제국도 서기 375년을 전후로 시작된 게르만 민족의 이동으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다.

● **“나누일 것이며”(단 2:41)** – 게르만 민족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약 1세기 동안에 반달족, 부르군드족, 프랑크족, 앵글로색슨족 등은 로마 영토 각처에 왕국을 세웠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서로마 제국은 서기 476

년 게르만의 용병대장인 오도아케르(433~493)에게 멸망하였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 가운데 본 신상의 발가락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그 나누어진 열국의 지도는 다음과 같다.

- **당시에 분열된 나라들** - 앵글로색슨[영국], 프랑크[프랑스], 알레마니[독일], 수에비[포르투갈], 서고트[스페인], 부르군디[스위스], 동고트·롬바르드·헤루라이[이태리], 반달[아프리카 북부]



- **세계는 합하지 못할 것임** - 이 예언이 성취되어 온 역사적 과정은 유럽에 국한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 예언은 세계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발가락 시대에 놓여 있다.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들이 섞여 있지만, 어느 한 강국이 세계를 통일시켜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다니엘서의 이 예언은, 이 세계가 어느 한 지상의 국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로 그 역사의 종말이 올 것을 가르치고 있다.

▶ 신상 해석 요약

재료	부분	나라	존속 기간	비고
금	머리	바벨론	주전 605-539	바벨론 신전에는 순금으로 된 제우스 신의 좌상이 있음
은	가슴 팔	메대 페르샤	주전 539-331	최초로 은을 화폐 단위로 사용함
놋	배 넓적다리	그리스	주전 331-168	구리 제련에 탁월, “놋으로 뒤집어 쓴 그리스인들”이라는 별명 있음
철	종아리	로마	주전 168-주후 476	철갑으로 무장하고 전투에 나섬
철과 진흙	발	열국	주후 476 이후	발가락이 나뉘어진 것처럼 제국이 분열될 것이나 철과 진흙이 합하지 못함같이 한 나라로 통일되지 않을 것임(분열된 제국의 모습은 지도를 참조할 것)

7. 두 번째 장면의 꿈에서 들은 무엇인가?

1) 인간 역사의 마지막 나라는 **돌 나라** 이다



[단 2:34, 35]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숴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갈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으나이다.”

2) ‘돌’은 산 돌이신 그리스도 이시다

꿈의 마지막 장면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한 돌이 신상의 발을 쳐서 부숴뜨리고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 해답을 이렇게 제시한다.

- [고린도전서 10:4]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 [베드로전서 2: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산 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8. 돌이 신상의 발을 내리친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다니엘 2:44]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 이라.”

1) 성경에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성경에서 ‘돌’은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돌나라’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



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예수께서 다시 오겠다는 재림을 약속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며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을 떠나시며 마지막 작별인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날 약속을 하신 것이다.



● [요한복음 14:1~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 [요한계시록 22:20]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예수)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니엘 2장 해석 요약

머리	가슴, 팔	배	종아리	발가락	돌
바벨론	페르샤	그리스	로마	열국	천국
주전 605	주전 539	주전 331	주전 168	주전 476	?



9. 돌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1:44]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흙으리라 하시니

1) 인간 나라는 언젠가 **끝이 난다**

인간들이 세우는 나라들의 흥망성쇠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결국 지구와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멸하시고 새로운 세상으로 재창조하



실 것이다. 베드로는 이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 [베드로후서 3:10~13]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2)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 것이다. 그 분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분

명히 오실 것이다. 이 엄청난 사건은 조만간 모든 인류에게 임할 것이다. 여름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여름이 오고 겨울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겨울은 오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던 자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반석되신 그리스도 위에 떨어져 깨어지는 경험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구원얻기를 바라시며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죄인의 멸망은 하나님의 의지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이다. 누구든지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에스겔 33:11).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와 실상

2600여년 전 다니엘에 의하여 예고된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간인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느 때 있을 것이며 어떠한 모양으로 오실 것인가?

▶▶ 재림의 때와 징조

개인과 세상의 종말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는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선언되었다(마 24:36; 행 1:7). 그 대신 예언된 여러 징조들을 통해 재림의 임박함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눅 21:29~31). 어떠한 징조들이 예언되어 있는가?

- **천재지변의 증가** : 지진, 해일, 가뭄, 각종 전염병이 증가되고 지구 환경이 급속도로 파괴됨(마 24:7, 8; 눅 21:11; 사 24:3~5).
- **국제 정세의 혼란 증가** : 민족 분규, 전쟁, 군비경쟁이 치열해짐(눅 21:10; 마 24:7, 8; 사 24:3~5).
- **사회와 도덕의 부패** : 부도덕과 범죄가 편안하고 음란과 부절제가 만연함(딤후 3:1~5; 마 24:37~39).
- **경제의 불안정** :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노사관계가 악화되며 경제 통제가 불가능해짐(막 5:4~8; 계 13:16, 17).
- **종교계의 타락** : 신조가 부패되고, 거짓 신앙이 사람들을 현혹하며, 강산술이 성행하고 비성서적인 종교연합이 추진됨(마 24:23~26; 계 15:13, 14).
- **지식의 급증과 교통수단의 급속화** : 인간의 지식이 급증하고 각종 교통수단이 급속화(단 12:4).
- **복음의 세계적 전파** : 세계 정세와 불안한 사회 현상에도 불구하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마 24:14).

▶▶ 재림의 양상

- 승천하실 때처럼 실재로 개체를 가지고 오심(행 1:11).
- 모두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심. 그러므로 비밀 유희는 거짓된 기류침임(마 24:27, 31; 계 1:7; 살전 4:16).
- 하늘과 땅에 임했던 격변을 일으키며 세계적으로 오심(마 24:30; 살전 4:17).
- 천란한 구름을 타고 공중에 임하심(마 24:30; 살전 4:17).
-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오심(살전 5:4~6; 마 24:38, 39, 43, 44).

삶에 적용하기

성경을 공부한 후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세요.

표현하기

- ☞ 만약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알지 못했다라면, 당신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았으리라고 생각하는지 함께 표현해보자.

묵상하기

- ☞ 우리는 비록 죄로 망가진 세상에 살지만 예수님 안에 영생의 소망이 있음을 감사하자.

도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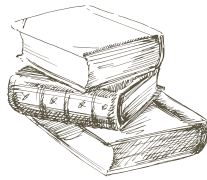
- ☞ 영생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이들에게도 같은 소망을 나누어 주면서 소망 가득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자.

Part 1 다니엘서 연구

Lesson 03

작은 뿔의 정체

단 7장



다니엘 7장에서는 누가 이상[계시]을 보았는가? / 다니엘은 이상 중에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예언이 다양한 상징으로 쓰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예언에 사용된 상징적인 낱말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네 마리 짐승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 네 짐승의 특징들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가?

네 번째 짐승의 모습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 “작은 뿔”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작은 뿔”은 역사적으로 어느 세력에 해당되는가?

그렇다면 교황권이 “작은 뿔”의 모든 특징을 다 성취했는가?

작은 뿔로 나타난 로마 교회는 다시 힘을 얻을 것인가?

작은 뿔의 정체

생각 모아보기

일제 말기 천황숭배를 거부한 김용기 장로의 이야기다. 그는 경기도 양주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평생을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농촌운동에 헌신하였다. 일제 말기에 광적으로 강요하던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묵도, 창씨개명 등에 단 한 번도 응하지 않고 8·15 해방을 맞을 수 있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도 역시 신사참배와 국민의례 거부로 수차 경찰서에 불려가 발길로 채고 얻어맞았다. 다시 양주경찰서 고등계 차석이던 홍OO와 이 문제로 시비하던 끝에, 그는 다시 일본인 고등계 주임 다치에게 끌려갔다. 그 역시 한바탕 고문을 당한 후, 국민의례를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유독 그만 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그는 솔직히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오, 조선 사람이 일본인이 될 수 없는 것은 반대로 일본인이 조선인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니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뿐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것이오. 가령 묵념하면서 속으로 천황폐하를 욕하는지 어찌는지 누가 알겠소? 사람 마음속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다면 모르지만, 그러니 차라리 하지 않으면 천황폐하도 욕을 먹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니 서로 좋을 것 아니요?”

그러자 그 형사도 “네 말이 옳다”고 하면서 그런 따위로 하는 국민의례라면 당연히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형사는 자기 입장이 곤란하게 되니까 다른 교회에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김용기 장로의 교회에서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하였다. 그 후 해방될 때까지 다시는 그 교회에 그런 일을 강요하지 않았다.

“진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 최고의 재산이다.” 거짓과 가짜가 난무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보존하고 그 기별대로 생애하는 원칙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자.

마음 준비하기

- ① 분쟁이 생겼을 때 어느 한편의 얘기만 듣고 선불리 판단함으로 크게 실수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 ② 당신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이며 이유는 무엇인지 나누라.
- ③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이며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 당신에게 영향을 끼쳤는가?

배경 이해하기

역사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는가. 아니면 무의미한 사건들의 연속이요 반복인가. 고대 헬라인들은 대부분의 요즘 사람들처럼 역사를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낱 시간의 반복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역사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확실한 방향으로 진행하여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성취시켜 가고 있는 과정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다. 지금까지 다니엘서 2장은 역사적(歷史的)인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다니엘서의 역사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서 7장에서는 예언적(豫言的)인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참으로 인간의 역사가 지닌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역사에 목적이 있다면 그 역사 속에서 사는 인간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방황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다. 여행의 의미와 가치가 목적지에 따라 결정되듯, 삶의 의미와 목적도 역사의 목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목적을 탐색하는 매우 중요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다니엘 7장을 연구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어야 하고 그 답을 본문에서 찾아보아야 한다.

- 1)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상의 핵심은 무엇인가?
- 2) 넷째 짐승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3) 넷째 짐승의 일부인 작은 뿔의 세력은 무엇인가?
- 4) 중세교회는 이단 박해의 사실을 어떻게 정당화했는가?
- 5) 다니엘서 7:25에 나오는 시간에 관한 예언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 다니엘 7장에서는 누가 이상[계시]을 보았는가?

[단 7:]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 **다니엘이 이상을 봄** – 다니엘 2장의 꿈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나타난 것이고, 다니엘 7장의 이상(異像)은 다니엘이 직접 받은 것으로서, 그 시기는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으로 나타나 있으며 서기전 553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계시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약 14년 전에 받은 것이 된다.

2. 다니엘은 이상 중에 무엇을 보게 되었는가?

[다니엘 7:2, 3]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 계시의 내용 (다니엘 7:1~8)

● 하늘의 네 큰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불면서 네 짐승이 나타났는데 그 이름과 모양은 다음과 같다.

순서	짐승 이름	모습	짐승 그림
첫째	사자	독수리 날개가 달렸음	
둘째	곰	몸 한 편을 들었고, 잇 사이에 세 갈빗대를 물었음	
셋째	표범	새의 날개가 넷이 달리고 머리가 넷임	
넷째	무섭고 놀랍고 강한 짐승	철 이를 가졌고 열 뿔이 달렸음	

3. 예언이 다양한 상징으로 쓰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1) 예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언에는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언급되므로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성경이 존속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2) 예언 속에 나타난 사건들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예언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므로, 그러한 내용들을 직접 들을 때에 받을 수도 있는 충격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3) 깊은 인상을 심어 주고 **보다 깊이 연구하게** 하기 위해

예언은 교회의 역사나 개인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연구하여 좀 더 생생하게 오랫동안 기억 속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시대마다 개인마다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여러 환경과 시대, 그리고 개인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적절히 취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예언에 사용된 상징적인 낱말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 1) 바다는 백성, 무리를 상징한다(계 17:1,5; 사 8:7, 8; 17:12,13)
- 2) 바람은 전쟁, 투쟁,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렘 4:11; 렘 25:31~33; 49:35~37; 30:23)
- 3) 짐승은 나라, 왕을 상징한다(단 7:23, 17; 렘 4:7; 50:17, 43,44)
- 4) 머리는 왕, 왕국의 분열을 상징한다(계 17:9, 10; 계 12:3; 13:1; 17:3)
- 5) 뿔은 왕, 나라를 상징한다(단 7:24; 8:22)
- 6) 날개는 신속함을 상징한다(합 1:6~8)

5. 네 마리 짐승은 각각 무엇을 상징하는가?

1) 다니엘 7장은 2장의 신상과 **같은 역사를** 다루고 있다.

나라	다니엘 2장의 신상	다니엘 7장의 네 짐승
바벨론	금머리	사자
메대 페르샤	은기슴	곰
그리스	놋 배	표범
로마	철 종아리	괴물
열국	철과 진흙의 열 발가락	열뿔

▶ 다니엘 7장과 2장은 같은 역사



▶ 다니엘 7장 네 마리 짐승의 모습



2) 다니엘서의 입체적 세계사를 나타낸다

다니엘서 예언	상징	의미
다니엘서 2장	금속 재료 신상	정치사
다니엘서 7장	네 마리의 짐승	교회사
다니엘서 8장	수양과 수염소	구속사

하나님께서서는 다니엘서에 같은 시대의 역사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각각의 예언은 각기 다른 상징을 통해 그 역사의 다른 면을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역사를 매우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

6. 네 짐승의 특징은 무슨 의미를 내포하는가?

▶ 다니엘 7장의 예언이 다니엘 2장과 같은 시대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만, 7장의 네 짐승에게는 좀 특이한 점들이 있다. 그러한 점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알아 본다.

1) 첫째 짐승(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은 **바벨론을** 상징한다.

[단 7:4]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 이 짐승은 당시 (다니엘이 이상을 보던 때) 가장 강하고 부유했던 바벨론 제국을 가리킨다. 바벨론은 그 당시 실제 사자 나라로 불리웠다는 사실이 고고학에 의하여 밝혀졌다. 그러나 이 공격적이고 사납던 사자 기질의 바벨론이 후에 독수리의 기개를 잃고 사람의 마음을 지닌 채 문약해져서 멸망할 것이 예언되어 있다.

2) 둘째 짐승은 **메데, 페르샤를** 상징한다

[단 7:5]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 **몸 한편을 들었다** – 사자 나라인 바벨론에 이어서 올라온 메데, 페르샤 나라를 상징한다. “몸 한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메데와 페르샤 두 나라가 연합해서 올라올 것이지만 한 나라가 더 강하다(세력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징한다. 실제로 처음에는 메데가 주도권을 행사했으나 후에는(서기전 550년경) 페르샤가 세력을 장악하였다.



● **잇 사이에 세 갈빗대가 물렸다** – 메데, 페르샤에 의해서 정복될 세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데 실제로 정복된 나라들은 바벨론(주전 539년), 리디아(주전 547년), 애굽(주전 525년)이었다.

정복당한 나라	정복한 왕	정복한 해
바 벨 론	고 레 스	주전 539년
리 디 아	고 레 스	주전 547년
애 굽	캄비세스	주전 525년

3) 셋째 짐승(날개 넷, 머리 넷을 가진 표범)은 그리스(헬라)를 상징한다

[단 7: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 **알렉산더의 출현** – 곰과 같이 우직하고 강성했던 페르샤 제국도 마케도냐 지방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일어난 알렉산더에게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다. 페르샤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는 알렉산더의 침공을 대비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육성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전 331년 치열했던 아벨라 전투에서 참패한 뒤 신하에게 살해됨으로써 페르샤 제국의 마지막을 고히게 되었다. 따라서 세 번째 짐승은 표범처럼 신속한 속도로 유럽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다.

● **“새의 날개 넷…머리 넷”**

– 날개나 머리는 세력을 나타내며, 세 번째 나라인 그리스가 네 나라로 분열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 그리스는 알렉산더 이후 부하 장



군들의 세력 다툼으로 네 나라로 나누어졌으며, 그 네 장군의 이름과 차지한 영토는 카산더(마케도니아, 그리스), 리시마쿠스(트라키아, 소아시아 대부분), 셀류쿠스(페르샤 대부분, 소아시아 일부, 시리아 북부, 메소포타미아 동방지역), 프톨레미(애굽, 팔레스틴, 시리아 일부)였다.

4) 넷째 짐승(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한 짐승)은 **로마를** 상징한다

[단 7:7]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 있어서 먹고 부숩뜨리고 그 나머지

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 불패의 제국 로마 – 역사가 기본(Edw

ard Gibbon)은 로마 제국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공화국의 군대는 이따금 전투에서는 지는 때도 있었지만 전쟁에서는 언제나 승리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유프라테스와 다뉴브와 라인강,



그리고 바다를 향해 승승장구하며 나아갔으며 나라들과 왕들을 표상한 금과 은과 놋쇠의 신상들은 이 로마라는 철의 제국에 의해 연속적으로 부숴졌다.”

● 열 뿔 : 로마에서 분열된 열 나라 –

다니엘 2장의 신상에서 로마나라를 상징하던 철로 만들어진 종아리에 열 발가락이 이어졌듯이 네 번째 짐승에게는 열 뿔이 있었다(단 7:23, 24). 이 열 뿔에 대한 설명은 다니엘 2장 신상의 발가락 부분에서 이미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분열된 나라들에 대한



지도만 재확인한다.



7. 네 번째 짐승의 모습에서 특이한 점은 무엇인가?

1)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숴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다니엘 7:7)

2) ‘작은 뿔’ 이 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단 7:8).

3) 다니엘 7장의 핵심은 작은 뿔 이다

다니엘 2장과 7장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이 ‘작은 뿔’이다.

다른 역사는 다니엘 2장 역사와 같은 성격의 것이지만, 작은 뿔은 전혀 다른 국면을 설명하고 있다. 작은 뿔은 다니엘 7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8. “작은 뿔”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 [단 7:7, 8] “...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 [단 7:20, 21]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작은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다. 내가 본즉 이 뿔[작은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 [단 7:24, 25] “그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 작은 별의 특성 8가지

- ① 넷째 짐승 에서 나온다(7, 8절)
- ② 열 뿔로 나누어진 후 열 뿔 사이에서 일어난다(24절)
- ③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24절)
- ④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20절)
- ⑤ 세 뿔을 뿌리채 뽑는다(세 왕을 굴복시킨다. 8, 24절)
- ⑥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25절)
- ⑦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25절)
- ⑧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한다(26절)

9. “작은 별”은 역사적으로 어느 세력에 해당되는가?

1)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다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나라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다. ‘작은 별’도 역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세력이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작은 별’이 어느 세력인지 확인할 수 있다.



2) 작은 뿔이 등장하는 **역사적 배경을 알면** 어느 세력인지 알 수 있다

- 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즉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이 있다.
- ② 사단은 세속의 나라들[바벨론, 페르샤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다.
- ③ 다니엘 7장에 의하면 로마 제국 이후 열국 시대와 연결되어 ‘작은 뿔’이 등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박해한다.
- ④ 그러면 과연 로마를 상징하는 괴물에서 나온 ‘작은 뿔’은 어느 세력에 해당하는가?

3) 로마 제국 이후 세계를 지배한 세력은 **교황권**이다

“서양 중세의 가톨릭 교회는 바로 세계였다. 로마 교황청은 세계 정부였으며 교황은 서유럽 전체 국가들의 원수(元首)였다. …특히 13세기 들어 교회의 권한은 그 절정에 달했다.

교회의 권한은 세속에까지 확대, 교회가 모든 것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중앙일보 1994년 11월 18일자).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로마 제국이 분열되어 망한 후에 유럽에 여러 나라들이 세워졌으나 그 나라들 중에 어느 나라도 유럽 전체를 지배할 만한 힘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후 313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다음 기독교의 세력이 점점 강해졌고 마침내 정치화된 기독교(천주교)가 오랜 세월 동안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데 역사는 그 시대를 종교암흑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4) **교황권이 강화되어 가는 과정**

- “그리고 이 일신교(一神敎)는 로마의 다신교(多神敎)와 충돌하여, 280년간 역대 황제들의 사정없는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도들의 열성과 순교의 붉은 피는 나날이 신도를 늘게 하니, 콘스탄틴 황제는 마침내 그 신앙을 공인하였다(313년)”(이해남, 중등 세계사, p. 43).
- “그[콘스탄틴 황제]는 니케아에 종교회의를 소집하여(335년), 삼위일체(Trinity)의 가톨릭 교리를 확립하니, 그것은 드디어 로마의 국교가 되고(392년) 로마 최고의 종교적 주권자는 교황이 되었다”(상동).

5)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한 배경**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로마의 국교로까지 공표했던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그는 로마제국의 4대 경쟁자 중의 하나였던 멕센 시우스와 전투대치 중 꿈을 꾸게 되었다. 꿈 속

에서 그는 그리스도[Χριστός]의 첫 두 글자 Χ[키] Ρ[로]를 가지고 만든 군호로 정복하리라는 글을 보았다는 것이다. 콘스탄틴은 이것을 신(神)이 내려준 좋은 징조로 알고 자기 철모와 군인들의 방패에 ΧΡ을 겹쳐 그리게 하여 대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서방은 콘스탄틴의 천하가 되었으며 그는 그리스도교의 신(神)이 승리를 주신 줄 확신하고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게 된 것이다(강정훈, 로마에서 시작된 가톨릭교회, p. 22).

6)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연속 이다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로마 교회의 본부가 있는 이탈리아의 바티칸은 옛 로마의 중심지였던 로마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마 교회는 옛 로마 제국의 이교적 사상과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콘스탄틴 황제가 사용했던 군호가 천주교회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옛 로마 제국이 군사적으로 세계를 지배했듯이 로마 교회는 장차 종교적으로 정신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할 것이다.

7) 작은 빨은 로마 교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작은 빨'이 '로마 교회'라면, 로마 교회는 위에 언급된 작은 빨의 8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고 성취시켜야 한다.

10. 그렇다면 교황권이 '작은 뿔'의 모든 특징을 다 성취했는가?

1) 넷째 짐승[로마 제국] 에서 나온다

- **황제와 교황이 연계됨** – “교황은 로마 황제가 가졌던 권력과 명성, 이교의 명칭들을 물려 받음으로써 공석이 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차지 하였다. 콘스탄틴은 로마 주교에게 모든 것을 넘겨 주었다. 그러나 교황 권은 몰락한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 있는 로마의 유령 이다”(스탠리 역사, 40).

-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의 조직은 서로 일치함

로마제국과 로마교회의 행정조직



2) 열 뿔[열 나라] 사이에서 일어난다

- **교황이 국왕의 역할을 함** –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대 교황 레오 1세는 훈족 앳틸라의 로마 침입을 막아내고(452년), 대 교황 그레고리 1세는 롬바르드 족의 침입을 막으면서, 실제로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보게 되었다”(이해남 저, 세계사, 79).

- **교황의 세력이 커짐** – 이 로마교회의 감독(교황)은 로마제국에서 분열된 열 나라 중의 하나인 헤룰리(현재의 이탈리아)에 자리를 두고 있었는데, 476년 서로마 제국이 패망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신장되어 오던 로마교회 감독(교황)의 세력이 급속하게 부상하였다.

3)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다

- **정치적·종교적 군주국가** – “이전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 군주 국가였으나, 교황 로마는 정치적 절대 군주국가이면서도 종교적 군주국가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이전의 왕국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으나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 다스린다.”

- **범세계적 국가** – “다른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백성들만 다스리지만 교황 로마는 영토와 민족에 관계없이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범세계적 국가라는 점에서도 다르다”(Daniel by Desmond Ford, 152면).

4)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다



▶ 이것은 나중에 나온 작은 별의 세력이 먼저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욱 강함을 나타내는 것인데, 역사적인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 **교황 그레고리 1세의 말** -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

- **카노사의 굴욕 사건** - “교황 그레고리 7세의 세력에 반발하던 신성 로마제국 황제 헨리 4세를 교황이 파문시키자 당황한 헨리 4세는 몸소 이탈리아의 카노사에서 교황의 용서를 빌었다(카노사의 굴욕사건)” <조좌호, 세계사, 77>.

5) 세 별을 뿌리채 뽑는다

- **교리 논쟁으로 인한 교회 분열** - 이 당시 교회는 크게 두 파[아다나시우스파와 아리우스]로 나뉘어 있었고, 교황은 아다나시우스파에 속해 있었다.

- **교황의 적대 세력들을 정복함** - 교황을 적

정복당한 나라	해물리	반달	동고트
정복한 해	493년	534년	538년

대하던 아리우스파[헤룰리, 반달, 동고트]는 교황에게 항상 위협적인 존재들이었다. 교황은 동로마의 힘을 빌려 그 적대 세력들을 차례로 정복했다.

● **동고트를 정복한 538년의 의미** – 교황의 마지막 적대 세력인 동고트를 정복한 것은, 교황권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하나의 시발점으로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아리미눔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고트족 군대는 즉시 진영을 두르던 울타리를 불태우고 퇴각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벨리사리우스는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가는 것을 용납치 않았다. 그는 고트족 군대가 밀비아



다리를 절반쯤 건널 때까지 기다리다 군대를 총동원하여 공격을 감행했다. 고트족의 피해는 어마어마했다. 전투 과정에서 사망한 자 외에 티베르 강물에 빠져 죽은 자들도 많았다. 그리하여 1년 9일 동안 계속되었던 고트족의 로마 포위는 기원후 538년 3월 중순경에 끝을 맺었다.” < J.B. 베리, 후기 로마 제국의 역사, 제 18장 §5. 로마의 포위(A.D. 37-38) / J.B.Bury, History of the Later Roman Empire >

6) 눈과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다

-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할 것임** – 작은 뿔은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하나님)를 대적”(단7:25)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성경에서 “큰 말”이나 “참람된 말”은 대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 **하나님의 칭호를 자신에게 적용** – 실제로 로마 교황은 하나님께 돌려지는 칭호를 자신에게 적용시켜 하나님을 훼방하였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
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법왕은 거룩한 군주요, 지존의 제왕이요, 왕
중의 왕이시므로 만일에 천사들이 신앙을 잘못한다면 그들을 심판하
고 파문에 처할 수 있다”(Article on the Pope, Feraria Ecclesiastical
Dictionary).

“법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일 뿐 아니라 육신의 휘장으로 가리워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다”(The Catholic National, July 1895).

7)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

-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기간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극심한 핍박을 당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때”:원어로 “잇단”(해, 년)]

- **3년 반에 대한 성경의 언급들** – ‘한때 두때 반때’(단 12:7; 계 12:14, ‘3
년 반’(42개월, 계 11:2; 13:5), 1260일(42개월, 계 11:3; 12:6)

언급된 기간	한때 두때 반때	3년반=42개월	42개월=1260일
관련 성경절	단 12:7; 계 12:14	계 11:2; 13:5	계 11:3; 12:6

- **성도들이 핍박받는 기간** – 위의 세 가지 기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받는 동일한 기간을 각각 다른 표현으로 묘사하고 있다.

- **1일은 1년임** – 성경에는 역사에 대한 예언을 해석함에 있어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원칙이 있다. [민 14:34]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그 사십 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겔 4:6]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1일이 1년이니라”

- **1260일의 실제적인 기간** – 이에 따라서, 성경 예언에 나타난 역사적 기간은 1일이 1년으로 계산되므로 1260일은 1260년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작은 뿔의 세력에 붙인 바 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기간이 1260년 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그러면 이 기간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마치게 되는 것인가?

- **로마교회의 핍박이 시작되는 연도 설정** – 로마교회 교황의 지상권이 공포된 것은 553년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의해 서였지만 실제로 세력을 장악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기 시작한 해는, 마지막 반로마교회 세력이었던 동고트를 격퇴시킨 538년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으로 타당하다.

● **교황이 교권과 정권을 장악함** – 538년에 시작된 교황의 지상권 시대는 처음에 동로마의 후원을 받아 협력 체제로 이루어져 갔으나 그레고리 7세가 즉위하면서부터 교황이 교권과 정권을 모두 장악하여 교황의 세력은 절정에 이르게 된다.

●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로마 교회의 박해** – 이러한 절대 권력을 가진 교황(작은 뿔)의 치하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성서에 입각해서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반대하는 신앙인들)은 온갖 어려움과 수난을 겪게 되는데 다음 내용은 그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스페인에서만 해도 종교재판에 의해 고난 당한 사람들은, 산 채로 화형 당한 사람이 31,912명으로 헤아려졌고, 소위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회자가 291,450명으로 계산되었다.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제수이트 제도가 확립된 지 30년 동안에 900,000명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하였다.”

“네델란드에서는 알바공의 지시에 따라 36,000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찰스 5세의 치하에서는 50,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또 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살상행위로 꼽히는 1572년 8월 24일의 바돌로매 대학살 사건에서는 약 20,000명을 살해하였다”(W. E. H.

Lecky, History of the Rise and Influence of the Spirit of Rationalism in Europe, Vol.II, pp.35, 37).

● 교황이 신교도 학살 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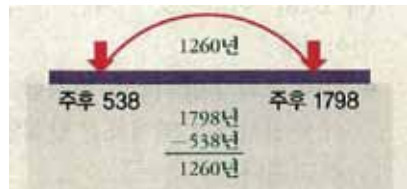
에 가톨릭 개입 인정 - 오랜 세월 동안 로마 교회는 중세기 신교도 학살 사건을 부인했으나 최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 교황권 약화와 몰락 -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던 교황의 세력도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꺾이기 시작하여 프랑스 혁명 발발 9년 후인 1798년 2월 13일, 나폴레옹의 부하 벌티어가 이태리에 쳐들어가 교황 피우스 6세(비오 6세)를 사로잡아 감으로 교황의 세력은 일단락되었다. 피우스 6세는 잡혀간 이듬해 1799년 프랑스의 발랑스에서 옥사하였다.

● 1260년의 핍박 기간 산출 -

538년에 시작된 교황의 지상권 시대가 1798년에 이르러 마치게 되었으니 1798년에서 538년을 감하면 성도들이 작은 뿔에 의해서 수난당한 기간이 산출된다.



8)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한다

● **“때”의 의미** - 여기에서의 “때”는 한때 두때 반대의 “때”와는 다른 뜻을 갖는다. 원어로는 [제만](Zeman)인데 “진술된 시간”,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다.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작은 뿔이 하는 일이므로, 여기에서의 ‘때’와 ‘법’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때와 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된 “때”

는 ‘안식일’임 -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고 있다. 사람이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으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은 안식일을 말살하여 하나님과 사람과의 정당한 관계를 단절하려고 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십계명)에 명시된 때는 언제인가?

1.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2.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탐내지 말라.

[창 2:2, 3]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겔 20:2]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막 2:28]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 로마 교회가 안식일을 변경함 – 로마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명시하신 안식일의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여 일요일로 고쳤다.

“교황은 때를 변경하고 법을 폐기하고 모든 것을,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교훈까지도 삭제할 권세가 있다”

〈Decretal De Translat Episcop. CAP〉.

“성경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하기를, 아니다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교회 전통은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선포하는 바이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를 전통에 기초한 것이다”〈신부서한집, 1893년 6월 1일 발행, 173면〉.

“가톨릭교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유대교를 ‘神意로부터의 일탈’로 규정하고 유대인을 이교도로 낙인찍는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反 유대주의의 문을 열고 안식일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꿨다” 〈조선일보, 1993. 12. 31〉.



● **성경에 근거없는 일요일 예배** – 그러므로, 성경으로 돌아간다고 구교로부터 개혁하여 나온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일요일을 예배일로 준수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천주교회에서 발행한 서적에서 나온 인용문이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 중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은 아니다”(기본스 저, 장민 역. 교부들의 신앙, 108).

● **하나님의 법[십계명]도 변경함** – 안식일을 제칠일 토요일에서 첫째날인 일요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포함되어 있는 십계명도 변경할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십계명(출 20:3~16)	천주교의 십계명(천주교 교리문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네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모시고 2.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명세를 발하지 말고 3. 주일을 지키고 4. 부모를 효도하여 공경하고 5. 사람을 죽이지 말고 6. 사음을 행치 말고 7. 도적질을 말고 8. 망령된 중창을 말고 9.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일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날인 일요일로 변경한 후 십계명의 셋째 계명을 고쳐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하였다” <가톨릭 사전, 4권 153>.

11. 작은 뿔로 나타난 로마 교회는 다시 힘을 얻을 것인가?

▶ 이와 같이 로마 교회의 교황권은 다니엘 7장에 언급된 작은 뿔의 여덟 가지 특성을 모두 정확하게 성취하였다. 그 세력이 1798년에 일단 몰락하기는 하였으나, 세계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다시 등장하여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 예언에 나타난다.

▶ [단 7:11] “그 때에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 [계 13:3]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 되살아난 교황권의 역할과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는 본 교재 제 22과에서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 천주교회 안에도 신실한 교인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교황도 신부도 개인적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천주교회라고 하는 구조 자체와 그 지향하는 전반적인 방향은 성서적이지 아니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출입하고 있다. 참된 신앙을 하려면 언제나 신앙의 기준인 성경을 살펴서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노력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 자신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날마다 들려져야 한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행 17:11, 12)였다. 오늘 우리도 베뢰아 사람들과 같은 진실하고 진지한 영적 노력이 필요하다.

▶ 그러나 불행하게도 성경을 떠난 천주교회의 그릇된 신앙을 벗어나고자 개혁을 통하여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시작된 개신교회가 오늘날 다시 천주교회와 연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천주교회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잠 16:25)므로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면서 발견된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마 15:8)한다고 말씀하셨다.

교회의 전통이나 사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성경의 진리를 찾아서 올바른 신앙을 하기로 결심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삶에 적용하기

성경을 공부한 후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세요.

표현하기

- ☞ 작은 별은 때와 법을 변경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였는데, 특히 안식일을 변경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때에 나는 안식일을 더욱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로 표현해 보자.

묵상하기

- ☞ 중세교회는 종교재판소를 통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잘못된 교리와 신학이 낳은 얼마나 비참한 결과인가? 지금도 오류가 가득한 때에 나를 재림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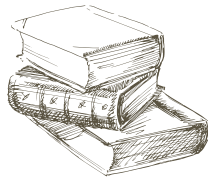
도전하기

-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언을 정확히 읽으므로 아무도 사단에 의해 속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성경과 예언의 신 말씀을 더욱 연구하여 흔들림없는 재림성도가 되기로 결심하자.

Part 1 다니엘서 연구

Lesson 04

안식일과 주일의 역사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신약에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졌는가? / 일요일 예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있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생각 모아보기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나타나는 신기루 현상은 열 또는 찬 기운 때문에 대기 밀도의 급변으로 빛이 이상하게 꺾이어, 공중이나 땅위에 무엇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대기 현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 신기루는 그 형체를 간직하고 있는 사물의 반대편에 나타나기 때문에 신기루를 쫓아 가다가는 점차 그 실체와는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옛날 사막을 여행하던 대상들에게 신기루의 존재는 그리 달갑지 않은 존재였다. 하지만 당장의 필요에 급급한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할 겨를이 없이 단지 눈 앞에 보이는 신기루만을 쫓다가 점차 진짜 오아시스와는 거리가 멀어져 결국 물도 없는 사막에서 말라죽게 되는 것이다.

위장된 진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신기루만을 쫓는 사람들의 결국은 사막의 신기루를 따른 사람과 같이 비참한 최후를 맞는 것이다. 그렇다 세상에 있는 것은 결국 신기루를 쫓는 것이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러한 세상의 허상을 따라 살았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발견한 자들이기에 더 이상 세상의 허상을 따라 살아서 안 되리라고 본다.

참된 진리가 무엇이며 우리가 잘못 따르고 있는 신기루 같은 가짜는 무엇인지 함께 배워 보자.

마음 준비하기

- ① 어떤 문서를 잘못 수정하여 크게 낭패를 당한 적이 있는가?
- ② 당신은 종교재판소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잔학한 고문 방법 중 어떤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마음 준비하기

1.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 인간의 범죄 이전에 두 가지 제도를 두었다

- **결혼 제도** -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 **안식일 제도** -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안식일 제도를 만드셨다. 피조물된 인간이 매 안식일에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분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 2:1~3).

2) 사단은 **가정제도와 안식일 제도를 공격한다**

가정제도와 안식일제도는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 유지를 위하여 제정된 제도이다. 그러므로 사단은 가정을 파괴하여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안식일제도를 폐지시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3) 안식일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결혼제도와 안식일 제도는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제정된 것이다. 성경에서 안식일이 제정된 경위나 시기를 볼 때에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일 준수를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이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 때문이 아니었다.

2. 구약에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1) 창조 때부터 시작되었다

[창 2:1~3]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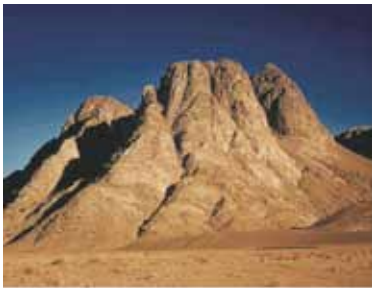
● **노아 시대의 7일 제도** –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지켜져야 할 법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 법도 중에는 인간의 행복과 창조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안식일도 분명히 있었



다. 노아 시대에도 7일 제도가 유지되었던 사실(창 7:4, 10; 8:10, 12)을 보면 안식일 제도가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2) 광야에서 만나를 통하여 가르치셨다

[출 16:4, 5]“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육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 준수 교육을

을 받음 -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광야의 음식, 만나를 먹기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통하여 안식일을 교육하셨다. 애굽에서 종 살이 하는 동안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안식일을 다시 철저히 지키도록 훈련하신 것이다. 만나는 6일 동안 내렸고 일곱째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분까지 두 배를 거두어 들이도록 했다. 평소에는 하루 분 이상을 거두면 그것이 썩었으나, 안식일에 쓸 것은 썩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저들은 안식일을 잊지 않고 지킬 수 있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부터 내려오지 않았다(수 5:12).

3)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하여** 주셨다

[출 20:8~11]“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제칠일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청하고 계신다. 안식일 준수를 요청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옛새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칠일에 쉬었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예배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간은 창조의 기념일로 제정된 제칠일 안식일이다.

4) 바벨론 포로 이후 **이스라엘의 변영의** 상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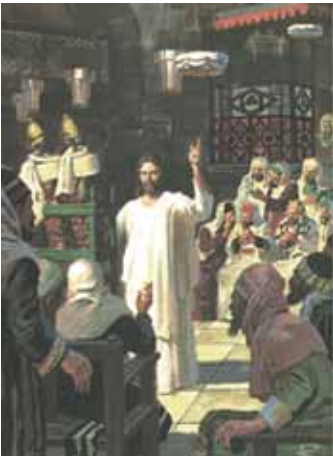
[겔 20:12, 20]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 **안식일 준수와 이스라엘의 번영** – 이스라엘 백성들의 흥망성쇠는 저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때 저들은 번영하였고, 안식일을 무시하며 존귀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삼아 저들을 징계하셨다. 안식일은 구약 시대 전체를 통하여 거룩하고 존귀한 날로 지켜지도록 요구되었다.

3. 신약에서의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졌는가?

1) 예수께서 친히 지키셨다

[눅 4:16]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 **창조주께서 안식일을 지키심** – 지구 창조 시에 안식일을 제정하셨던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시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고 감동적이다. 예수님께서 유대 관원들과 안식일 논쟁을 여러 차례 하셨지만, 그 논쟁의 내용은 ‘안식일을 어느 날 지킬 것이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에 관한 것이었다(마 12장 참조).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2) 예수님 **십자가 직후에도** 안식일을 준수하였다

-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있었다. 금요일 저녁 해가 넘어가기 전에 예수의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넣어졌고, 그 이후의 여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눅 23:54~56] “이 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좇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좇아 안식일에 쉬더라.”

- 십자가 직후에도 계명을 좇아 안식일을 준수한 명백한 기록이다.

3) 예수님 부활 이후 **사도들도** 안식일을 준수하였다

- **사도행전에서 지켜진 안식일** –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 행전에는 안식일을 지킨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나온다.

[행 13:14]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행 13:27]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

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행 13:42, 44]“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행 17:2]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행 18: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안식일을 준수한 사도 바울** –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도 안식일에 예배드릴 곳을 찾았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행 16:13)

4) 예수께서 **예언으로** 안식일을 언급하셨다

[마 24:19, 20]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판단** – 예수께서는 서기 70년경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안식일에 도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십자가 이후에도 안식일 준수를 지극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셨다는 증거이다.

4. 일요일 예배는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 **주일 예배의 근거는 성경에 없음** – 주일 예배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고, 또 몇 성경절들을 주일 예배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모두 성경의 원 뜻을 벗어난 것들이며 사실상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없으므로, 그 기원은 역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1) 일요일 예배를 시작하는 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정책

● **속국들과의 화친 정책** – 2세기 초엽에 로마에는 하드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었다. 유능한 정치가였고 로마의 많은 속국들과 화친 정책을 펴서 매우 안정된 정치를 하였다. 그 당시 반란이 심하던 유대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유대인들의 소원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 허가를 해 주었다(서기 130년경).

● **유대인들의 성전 건축 자금 모금** –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을 거두었다. 얼마 후, 황제는 모든 속국들에게 자신을 신의 아들로 부르도록 하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였고 유대인들은 몹시 반발하였다. 하드리아누스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대인들이 시행하던 할례 의

식을 금지시켰다. 전국 유대 랍비들의 격렬한 항의가 있었고 하드리아누스는 분노하여 예루살렘 성전 재건령을 취소하였다.

2) 로마에 대한 유대반란 [주후 132~135년경]

● **2차 유대 반란의 발단** – 유대인의 할례의식이 금지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령이 취소되자 서기 132년부터 135년 사이 발코체바를 주동으로 하는 유대인들의 대규모 반란이 있었다. 이미 거두어진 성전 건축 자금이 반란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황제는 유대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당시 로마의 명장 세베리우스와 정예부대 22군단을 파견하였다. 전쟁과 반란에 능한 유대인들은 로마의 군대를 ‘앵케리’라고 하는 험한 골짜기로 유인한 후, 미리 매복해 있던 반란군들이 뛰어나와 로마의 정예 부대를 참패시켰다. 세베리우스 장군은 몹시 자존심이 상하여 군대를 재정비한 후, 유대인 마을들을 하나씩 포위하여 초토화시키는 작전으로 유대인의 마을 985개를 전멸시켰으며 약 8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 **유대인에 대한 세 가지 금지령** –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다시 세 가지 금지령을 내렸다.

- 토라(모세오경) 사용 금지
- 할례 금지
- 안식일 예배 금지

그리고 그 세 가지 금지령을 어기면 사형으로 다스렸다. 이 금지령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공존하고 있었고,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 반란으로 인한 금지령 속에 포함된 안식일 준수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까지 해당되는 칙령이었다.

3) 기독교인의 문제

- **기독교인이 유대인 취급을 받았던 이유** –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간주하여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위정자들은 그리스도교를 단순히 유대교의 또 다른 한 분파로만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 유대인들이 신봉하는 같은 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

둘째, 두 부류가 모두 **구약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

셋째,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는 점

- **교부들의 변증서** – 그래서 당시 교부들은 황제에게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다르게 취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황제는 이를 거절하였다.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변증 교부들이 황제에게 보내는 서한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르니 다르게 취급해 달라는 것이었다. 다음은 그러한 변증서의 한 부분이다.

“디오그네투스 폐하께! 폐하께서 그리스도인의 종교에 관하여 알아보시기를 원하시며, 또 이 문제에 관하여 정확하고 주의 깊은 조사를 하여 보기를 원하시는 줄 아나이다. 예컨대…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여…유대인들의 미신을 따르지 않는지에 대하여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이 경배하는 듯한 그 같은 형식으로 섬기지를 않습니다”〈윤대화, 주일론, 84, 85〉.

● **황제가 교부들의 변증을 무시함** – 그러나 황제는 이를 무시하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았다. 박해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결국, 교부들은 유대인들과의 차별화와 로마의 이교도들과의 동질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유대인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구약의 하나님 대신 신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며 이교도와의 동질화를 위해서는 안식일 대신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예배일인 일요일 예배를 교회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 **교회 내부에 분란이 일어남**

- ① 안식일을 계속 지키려는 무리들
- ②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려는 무리들
- ③ 두 날을 모두 지키는 무리들

4) 일요일 예배의 법제화

● **콘스탄틴 황제의 일요일 휴업령** –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 로마

의 콘스탄틴 황제는 마침내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일로 선포하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태양을 존경하는 날 에 모든 관공리들과 각 도시의 주민과 제조 공장의 종업원들은 휴업하라. 그러나 농촌에서 경작에 종사하는 농민은 자유로이 노동할 수 있다. 이는 씨를 뿌리고 포도를 심는 데 불리할까 염려됨이라”

● **일요일 휴업령의 결과** – 이 법령은 그리스도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는 기점이 되었다. 이 법령을 통해서 콘스탄틴 황제는 제국 내의 2대 종파, 즉 태양신 아폴로(Apollo)를 숭배하는 이교도들과 또 다른 태양이신 그리스도(Kristos)를 숭배하는 그리스도교도들을 일요일(dies solis)로 묶어서 단일 종교로 융합해 보려는 야심적인 종교 정책을 시도했던 것이다. 콘스탄틴은 이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을 선포했으나 사실상 이것은 세상을 기만하는 전략상의 개종이었다. 삼성출판사에서 발행한 <대세계의 역사> 3권 211쪽에는 콘스탄틴의 개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신(神)을 버리고 새로운 신에게 귀의했다는 뜻의 개종은 아니다. 그의 신은 그 전과 동일한 신이었다. 다만 그 전과 동일한 그 신이 그리스도교의 교회에서 예배되고 있는 신이라고 교정된 점만이 옛날과 달랐다. 따라서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개

좋은 아니었던 것이다.”

5) 일요일 예배에 대한 **교회의 공식 결의**

● 이와 같이 일요일 예배는 비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매우 인위적이면 서도 이교적인 방법으로 교회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리고 당 시의 가톨릭화되어 가는 종교, 정치, 사회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루면 서 마침내 교회에서도 일요일 예배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몇 차례의 회 의가 있었고, 성경의 권위가 아닌 교회의 총회를 통해서 결의를 하게 되 었다.

●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Nicaea) –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절로 성 수 하도록 결의함.

“금번 소집된 총회에서 지극히 성스러운 부활절 일자에 관한 문제가 토 의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참석자 전원의 연합 일치된 판정으로 잘 해 결되었다. 즉 이 부활절은 각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한 날 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343년 사르디카 회의(Sardika) – 태양의 날 일요일을 ‘부활의 날’이 란 미명 아래 일요일 신성론으로 부각시키면서 “주의 날”(Lord’s Day)로 개칭하고, 교역자가 여행으로 “주의 날”을 세 번 범하면 제명시킬 것을 종규 제11조에 명시하도록 의결했다(Charles Joseph Hefele, A History

of the Christian Councils, Vol.2, Trans, and ed. by H. N. Oxenham. Edinburgh : T. and T. Clark, 1986. pp. 143~145. in Frank H. yost, p. 49).

●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Laodicaea) –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성별하는 법규를 의결하였다.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준수하도록 결의하였다. 총회에 의결된 종규 제2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 날에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 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안식일 준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 **가톨릭 교리서에서 확인됨** – 이상과 같은 사실은 1910년 1월 25일 교황 피우스 10세로부터 “사도적인 축복”(Apostolic Blessing)을 받은 [회심자를 위한 가톨릭 교리 문답서]에서 아래와 같이 확인되고 있다.

문 :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문 :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답 :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6) 주일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회에** 대한 가톨릭의 시각

● **가톨릭의 주장** – 가톨릭교회에서 개신교회를 향하여 직설적으로 증언하는 다음의 내용을 보면, 분명히 주일예배는 비성서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성경만을 따른다면 당신은 토요일[안식일]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 왜냐하면 그날이야말로 하나님께 거룩히 지켜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이다. 비가톨릭 신자들은 1800년간, 일요일을 지킴으로써 성경의 제도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제칠일 안식일예수재림교회 신자들처럼 토요일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점에서 그들의 덜미를 잡고 있는 것이다. 성경만을 신앙의 유일한 지침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신교회는 일요일 준수에 대한 아무 보증이 없다”(F.G. Lentz, The Question Box(NY:Christian Press Assn., 1900, pp.98, 99) : “The Question Box”, The Catholic

Universe Bulletin, 69(Aug. 14, 1942), in the SDA Bible Student Source Book, 994).

● **주일 예배에 대하여 난처할 수밖에 없는 개신교회** – 사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일요일 예배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보편화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정확한 배경을 인식하고 있는 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니라 가톨릭 교회이다.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라는 정신을 가지고 출발하였기 때문에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무리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톨릭은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가 없는 일요일 예배에 대하여 교회의 전통을 근거로 매우 떳떳한 입장을 내세운다. 일요일 예배는 분명히 교회의 권위로 변경된 것이지 성서적인 것이 아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의무의 예를 들어보자. 이는 물론 신자의 가장 중대한 의무의 하나이지만 성서에서는 그에 대한 명백한 구절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성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다”(기본스 저, 장면 역, 교부들의 신앙, 108).

5.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경의 근거가 있는가?

▶ **부활과 일요일 예배의 관계** – 부활절 예배와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 그 예배일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지으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 **부활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 – 예수님께서 부활한 사실, 그것은 물론 매우 귀중한 진리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야 할 신앙의 기둥이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한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서적으로 아무런 명분이 없다. 그러한 일들은 사건 자체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지 그 사건이 일어난 요일을 예배일로 정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시도인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만찬 예식(고전 11:26)을 통해서 기념하도록 되어 있고, 부활의 의미는 침례 예식(벧전 3:21; 롬 6:5)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침례를 받은 뒤로는 세족 예식(요 13: 10)을 통해서 기념하고 있는 것이다.

▶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 제시하는 성경절들**

1) 제자들이 안식 후 첫 날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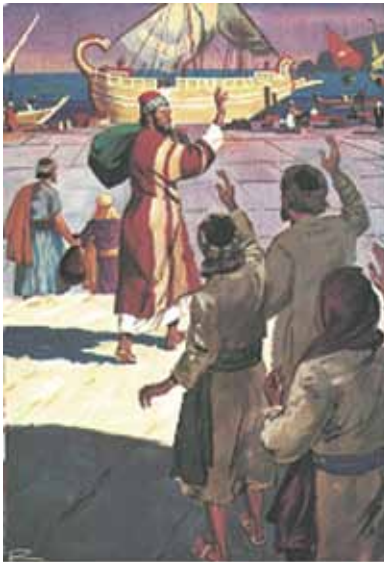
[요 20:19]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 **예배를 위한 모임이 아님** – 이 성경절의 배경을 보면, 모임의 목적이 예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여인들이 전한 부활의 사실도 의심한 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숨어 있는 장면이다.

2) 사도 바울이 안식 후 첫 날에 떡을 떤 기록이 있지 않은가?

[행 30:7]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떤데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 이 성경절도 역시 '안식 후 첫날'이라는 보통의 용어가 사용됐다. 떡을 떤다는 내용도 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유대식 계산법을 사용하였다(레 23:32; 눅 23:54). '안식 후 첫날'은 토요일 해가 지면서 시작되는 것이다.



● 이 성경절의 배경 - 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한 주일을 머물고 이제 다음 날 떠날 예정이었다. 때는 토요일 저녁이었다. 어떤 영어 성경(Today's English Version)에는 이 시간에 대하여 '토요일 저녁'(On Saturday evening)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 날 저녁은 송별회 시간이었고 밤중 집회가 계속되었으며 유두고라는 청년이 즐다가

창에서 떨어져 죽은 것을 바울이 살리는 사건도 있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떡을 떤 일이 흔했다(행 2:46). 그러므로 이것도 일요일 예배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성경절이 아니다.

3) 고린도전서에 보면 첫 날에 연금을 드린 기록이 있지 않은가?

[고전 16:1,2]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교회들에게 명한 것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땅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 '연보'는 **구제금을 말하는 것임** - 이 성경절에서 '연보'라는 말과 '매 주일 첫날'이라는 말을 연결시켜 일요일 예배에 대한 성서적 근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매 주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이(례)를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라는 말이 있고, 이어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고 되어 있다. 우선 여기에서 '연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나 헌금과는 구분되는 '구제금'을 가리키는 것이다. 연보는 '수집', '모금'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로기아(logia)를 해석한 것이다. 헌금은 헬라어로 '도라'(dora, 눅 21:1, 4)이며 연금과는 다른 말이다.

● **구제 연금을 미리 모아두자는 것임** - 이 성경절은, 당시 기근으로 인해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금 모금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안하는 내용이다. 갈라디아 교회에 제안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매 주일 첫날 일을 해서 번 돈은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따로 저축해 두었다가 다 함께 모아서 구제금으로 보내자는 것이다. 오히려 일요일에는 평일처럼 일을 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려 주고 있는 성경절이다.

- “저축하여 두어서”(set aside) –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자기 곁에”(by himself)라는 뜻이다. 그것은 “집에서”와 동일한 표현이다. 바울은 그 일을 집에서 하도록 부탁한 것이며, 주일 예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5) 사도 요한이 주일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지 않은가?

[계 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 성경에는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른 예가 없음 – 우선,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일요일 예배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의 ‘주의 날’을 주일로 적용하려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이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때와 거의 동시대에 같은 저자가 기록한 요한복음 어디에도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른 예가 없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다른 곳에서 사용한 일이 없는 ‘주의 날’이라는 표현을 계시록에서 쓰고 있는가?

- 요한이 ‘주의 날’ 이란 용어를 사용한 이유 – 당시 로마의 황제 도미시안은 자신을 신격화하여 황제 예배를 강요하였으며, 이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 도미시안은 자기를 ‘주와 하나님’(lord and god)으로 칭하도록 했다. 그리고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면 그 날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동시에 황제 예배일(Imperial day – 황제의 날)이 되었다. 요한은 이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서 주님

(Lord)이 주인이 되는 날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친히 주인이라고 선언한 날은 언제인가?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막 2:28).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1장 10절의 ‘주의 날(Lord’s day)’은 오늘날의 주일(일요일)로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안식일을 말하는 것이다.

6.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 [히브리서 4장 9, 10절] “그러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 **안식할 때 가 남아 있다** – 9절에 나오는 ‘안식할 때’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싸바티스모스’인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신약에 한 번 나오는 합성어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에서의 ‘안식’이라는 말은 안식일(사바톤)과는 구별되는 ‘카타파우시스’로서 궁극적인 쉼, 즉 ‘구원’을 뜻하는 것이다. 10절의 의미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쉰다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쉬셨는가? 히브리서 4장 4절에 그 대답이 명백하게 나와 있다. “제칠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

되 하나님은 제칠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 **구원받은 자는 안식일을 지킴** -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칠일(안식일)에 자기 일을 쉬신 것처럼 제칠일을 안식일로 쉬며 그분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당연한 일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삶에 적용하기

성경을 공부한 후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세요.

표현하기

☞ 나는 안식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지, 주님의 놀라운 창조 세계를 묵상함으로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자.

묵상하기

☞ 하나님은 우리 신체가 노동과 휴식의 균형 속에서 잘 기능하도록 설계하셨다. 우리가 건강한 균형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체의 요구에 협조할 필요가 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축복이 되고 있는가?

휴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방식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묵상해보자.

도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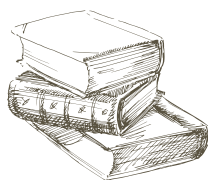
☞ “우리가 특별히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이 없다면, 모든 사람들은 끝없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할 것이다. 매일이 똑같으며 세속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 바쳐질 것이다. 그러나 안식일의 도래는 소망과 기쁨과 의미와 용기를 가져다준다. 그것은 예배와 기도와 찬미와 말씀에 대한 연구와 명상을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다.”(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 한국어판, 2007년 355)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무엇의 노예가 되고 있는가?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전하자.

Part 1 다니엘서 연구

Lesson 05

2300주야에 대한 예언

단 8, 9장



다니엘 8, 9장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것인가? / 다니엘 8장에서는 어떤 짐승이 나타났는가?

두 짐승은 각각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가? / 심히 크게 자란 “작은 뿔”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하나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 / 두 로마의 실제적 역할은 어떤 것이었나?

이러한 “작은 뿔”의 만행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무엇인가? / 성소정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천삼백주야 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은 얼마인가?

일곱 이레와 육십 이이레가 지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지막 한 이레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 이천삼백주야는 언제 마쳤으며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다니엘 2, 7, 8장은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2300주야에 대한 예언

생각 모아보기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 본래 가톨릭 교회의 유능한 사제였으며 교수이기도 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루터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어떻게 해야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책감을 없앨 수 있는지 고심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은 하박국을 인용한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은 순간 눈 녹듯이 사라졌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롬10:17)을 통해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본래 구원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었지만 로마 가톨릭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어느덧 선행과 특별한 기부 행위로 대체되었고, 루터가 그것을 본래대로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만연한 우리 시대에 ‘나의 진리나 너희 진리는 있을 수 있어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고 못박은 외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면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만으로 얻는다는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 없는 공식임을 드높이며 소리칠 수 있어야 한다.

마음 준비하기

- ① 세탁물에 묻은 때 중에서 가장 안 빨아지는 때는 무슨 때입니까?
- ②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었음을 인해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배경 이해하기

다니엘서 8장의 이상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상징적 진술의 절정을 이룬다. 물론 다니엘서 8장에는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와 같은 핵심적인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구절은 또한 이 장의 절정을 이루며, 또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 교회의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장의 역사적인 상황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신(히 8:1~2) 하늘성소에 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드러난 주요 문제는 이교 군대들이 이 땅의 성소를 더럽힌 어떤 군사적인 전쟁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 장은 어떤 지역적, 세속적, 정치적, 군사적인 싸움도 초월하여 그 너머까지 시야가 미친다. 이 장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역과 봉사 및 그분의 백성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서 있는 거대한 종교 조직체와 관련된 대쟁투의 다른 면모를 보여 준다.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주님의 사역과 역할을 빼앗으려고 힘쓰는 작은 뿔의 세력에 대항하는 것이다.

진화론자(進化論者)인 영국의 헉슬리(T. Huxley) 교수가 강연 약속을 위해 더블린에 도착하여 급히 마차를 탔다. 한참을 달렸으나 목적지가 나타나지 않자, 초조해진 헉슬리는 마부에게 다그쳐 물었다. “목적지까지는 얼마나 남았소?” “저는 모릅니다. 선생님께서 시간이 급하니 빨리 달리라고만 하셨지 어디로 가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저 빨리 달리기만 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사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뜻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개인과 세상의 허망한 모습을 말해 주는 이야기이다.

세상의 역사는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저 바쁘고 어수선하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에 나타난 대로 질서가 있고 결론이 있는 시간의 진행(進行)인 것이다. 확실해진 사실은 개인과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는 선과 악을 판별(判別)하는 심판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영원한 보응(報應)이 있는 것이다.

본문 연구하기

1. 다니엘 8, 9장은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것인가?

▶ 동일한 역사에 대한 입체적 조명

구분	상징	결론	참고 성경절
다니엘서 2장	금속재료 신상	재림	2:34, 35, 44
다니엘서 7장	짐승과 작은 뿔	심판	7:26
다니엘서 8장	수양과 수염소	성소 정결	8:14

▶ 인류의 구원과 성소 문제



- 사단이 성소를 공격함 - 사단은 구원의 원리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성소제도를 맹렬하게 공격한다. 적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된 다음의 말씀을 읽어 보자.

[살후 2:3, 4]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 적그리스도의 성전 점령 의미 -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구속의 원리를 감추고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2. 다니엘 8장에서는 어떤 짐승이 나타났는가?

- ▶ 다니엘이 이상을 본 시기 -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본 것은 벨사살 왕 3년인데(단 8:1), 그 연대는 기원전 551년쯤 되는 것이며, 그것은 바벨론이 망하기 12년 전이다. 그리고 다니엘이 계시를 본 장소는 엘람도(道) 수산

성(城) 을내 강변으로 나타나 있는데(단 8:2), 다니엘이 실제로 수산성에 갔었는지, 계시 가운데서만 옮겨졌는지 확실치는 않으나 그가 이상을 말하고 있는 문맥으로 보아 계시 가운데서 겪은 일로 보는 편이 합당하다.

▶ 첫 번째 짐승: 두 뿔 가진 수양 -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 가에 두 뿔을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단 8:3).



▶ 두 번째 짐승: 현저한 뿔 달린 수염소 -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단 8:5).



▶ 제사에 사용되던 두 마리의 짐승 - 다니엘 8장의 두 마리 짐승(수양, 수염소)은 모두 성소제도에서 제사드릴 때에 사용하던 짐승들이다. 다니엘 8장의 예언은 성소에 나타난 구속사와 관련된 예언임을 짐작하게 한다.

▶ 사단이 구속의 역사를 혼란시킴 - 다니엘 8장의 예언은 사단이 지상의 세력들을 이용하여 성소제도의 원리,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

시는 방법에 혼란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구원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3. 두 짐승은 각각 어떤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가?

짐승	두 뿔 달린 수양	현저한 뿔 달린 수염소
나라	메데-페르시아	그리스(헬라)

▶ **다니엘 8장의 역사에 바벨론은 포함되지 않음** – 다니엘 8장의 역사적인 예언 가운데에는 바벨론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니엘이 이 계시를 볼 당시 바벨론은 이미 몰락해 가고 있었으며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1) 두 뿔 달린 수양은 **메데, 페르샤**를 상징한다

●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 메데, 페르샤 두 나라가 연합하여 바벨론을 정복했다. 처음에는 메데가 강했으나, 나중에는 처음에 약했던 페르샤가 더 강성하여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다.



● **“그 수양이 서(西)와 남(南)과 북(北)을 향하여 받으나”(단 8:4)** – 메데, 페르샤가 세 나라를 정복한 것을 말한다. 다니엘 7장의 꿈이 이 사 이에 세 갈빗대를 문 것에 해당된다.

방향	정복한 나라	정복한 왕	정복한 해
서	바벨론	고레스	주전 539년
남	이집트	캄비세스	주전 525년
북	리디아	고레스	주전 547년

2) 현저한 뿔 달린 수염소는 그리스(헬라)를 상징한다

● 알렉산더와 그리스 제국 - 이 수염소는 페르샤를 정복한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을 말한다. 두 눈 사이의 현저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한다.



●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나옴 - 이것은 이미 다니엘 7장에서 네 날개와 네 머리 달린 표범에서 설명되었듯이 알렉산더 사후, 그의 부하 장군들(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류커스, 탈레미)에 의해 네 나라로 분열된 그리스 제국을 가리킨다.



● 다니엘 7장과 8장의 짐승 비교

구분	7장	8장	7장	8장
	곰	수양	표범	수염소
공통 부분	몸 한편을 들었다	한 뿔이 더 길다	네 머리	네 뿔
해석	초기 : 메다가 더 강함 후기 : 페르샤가 더 강함		그리스가 네 나라로 분열됨	

4. 다니엘 8장의 심히 크게 자란 “작은 뿔”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단 8:9]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 이것은 분명히 4분된 그리스 제국 이후에 전개되는 역사이며, 실제 역사의 과정으로 보아 로마 제국의 출현이 예고된 것이다. “그중 한 뿔에서”라는 말을 히브리 문법으로 살펴 보면 ‘먼저 있던 네 나라 중에서 한 나라’가 아니라, ‘네 방향들 가운데 하나인 것이 더 타당함을 알 수 있다. 실제 로마는 알렉산더 제국이 넷으로 쪼개져 나간 네 방향 가운데 하나인 서쪽에서 출현하여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로마제국이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세운 나라들을 차지하기는 했어도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 남편(南便): 주전 168년, 이집트에 있던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로마에 의해 추방 당함
- 동편(東便): 주년 65년, 셀류커스 제국이 로마의 시리아 주(州)로 편입됨

- 영화로운 땅(단 11:16, 41 참조): 주전 63년, 팔레스틴 지방(유대 나라) 이 로마에 편입됨

▶ 그리하여 서쪽에서 출현한 로마는 남쪽(이집트), 동쪽(셀류커스 제국), 영화로운 땅(팔레스틴)을 차례로 정복하여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5. 로마 제국와 로마 교회를 하나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

1)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이다

예언에 나타난 시간적 순서로 보면, '작은 뿔'은 분명히 로마 제국에 해당한다. 그런데 다니엘 8장에서는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를 하나의 연장된 로마로 보고 있다. 이유는, 하나님의 성소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두 로마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구분	두 로마	성소공격
로마	제국	하나님의 성소를 파괴함
	교회	성소에 나타난 구속의 원리를 파괴함

2) 두 로마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다

구분	두 로마	성소공격
로마	제국	초대교회 시기에 하나님 백성을 죽임
	교회	중세교회 시대에 하나님 백성을 죽임

6. 두 로마의 실제적 역할은 어떤 것이었나?

▶ [다니엘 8:10~12]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로마 제국	하나님 대신 황제 숭배를 강요함
로마 교회	교황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로 군림

● “그 군대와 별 중의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로마 제국	기독교 공인(313년)전, 약 200년 간 기독교 박해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 죽임
로마 교회	중세 1260년간 로마 교회에 반대하는 무수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참혹하게 죽임

●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로마 제국	군대의 주재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음
로마 교회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일(심판)을 대신 함

●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로마 제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고 성전을 파괴함
로마 교회	십자가 이후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을 무시하고 '미사'와 '고해성사'를 행함

●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다라”

로마 제국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고 성전을 파괴함
로마 교회	성경과 위배되는 잡다한 거짓 교리를 만들어 백성들을 미혹함 (면죄부판매, 연옥설, 교황무류설, 화체설, 무구희태설, 일요일예배 등)

- ① 면죄부 판매 - 죄를 용서하는 속죄권을 만들어 판매함.
- ② 연옥설 - 작은 죄를 짓고 보상을 치르지 아니한 영혼이 머무는 곳이며, 지상의 성도가 그 보상을 치러 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천주교 교리.
- ③ 교황무류설 -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다고 하는 로마 교회의 주장으로서 1870년 7월 18일에 선포되었음.
- ④ 화체설(化體設) - 1215년 라테란 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된 교리로서 성만찬에 쓰여지는 떡과 포도주는 사제가 성별의 말을 하는 즉시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
- ⑤ 무구희태설(無垢懷胎說) - 마리아는 원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잉태하였다는 설.



7. 이러한 “작은 뿔”의 만행에 대한 질문과 대답은 무엇인가?

▶ 질 문: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

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다니엘 8:13)

대 답: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다니엘 8: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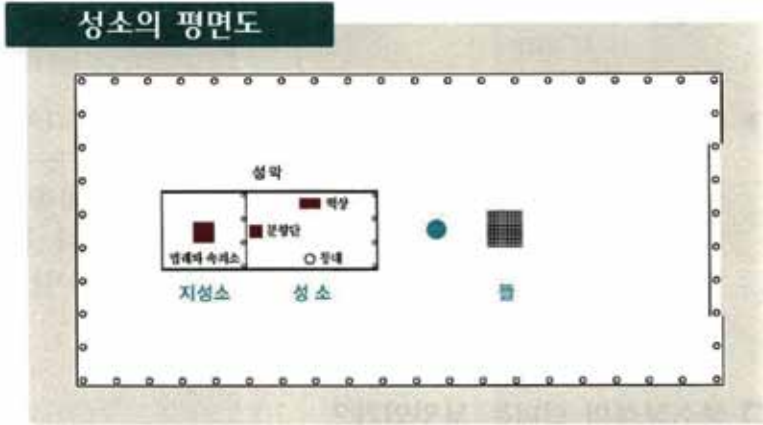
▶ 다니엘이 세상과 이교의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계시를 보고 있을 때 한 음성이 들려 왔다. 어느 때까지 그런 일이 계속 되겠느냐고 하는 질문이었다. 그런데 그 질문과 대답이 다니엘 7장 25, 26절의 내용과 상당히 흡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과 핍박	정복한 해
7장	[25절]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가지 멸할 것이요”
8장	[13절] “성소와 백성이 내어 준 바 되며 짓밟힐 리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14절] “2천3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반드시 망함** -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끝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렇다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말이 심판과 관계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문맥상으로 보아 그 심판은 2300 주야라는 기간이 마치면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8. 성소정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 지상 성소의 모형 및 기능 [출애굽기 25장]



● **하나님의 지시로 제작된 지상 성소** – 지상 성소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지시에 따라 제작되었으며,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 의식을 통해 백성들의 죄를 용서 받도록 하는 일이 성소 안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매년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서 1년간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기능도 담당하였다. 전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뜰에서는 주로 제사를 드렸고, 성소에서는 매일 드려지는 봉사가 이루어졌고, 지성소에서는 해마다 드리는 대속죄 봉사가 이루어졌다. 위의 그림은 성소와 지성소의 내부 그림이고 아래는 평면도이다.

1) 성소의 제사제도에는 **두 가지 제사가** 있었다

지상 성소의 주된 기능은 제사제도였는데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성소 자체 뿐 아니라 제사장들의 봉사도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히 8:5) 역할을 해야 했다. 이와 같이 그 일은 매우 중요했다. 성소의 봉사는 날마다의 봉사, 해마다의 봉사 두 부분으로 되었다. ‘날마다의 봉사’는 성막 뜰에 있는 번제단과 성소에서 수행되었고, ‘해마다의 봉사’는 지성소에서 있었다.

● **매일 드리는 제사** - 매일 드리는 제사는 제사장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와 개인이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었다. 그 제사는



번제단에서 행하여졌으며, 제사장은 그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의 휘장에 뿌림으로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하였다. 이렇게 매일 같이 뿌려지는 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은 언제나 더럽혀져 있었으며, 1년에 1차씩 드리는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 죄를 한꺼번에 속하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므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었다(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는 레위기 1장~7장을 참조할 것).

● **해마다 드리는 제사** - 이 제사는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드리는 것인데, 이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손을 멈추고 자신

을 돌아보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를 찾아 속죄하여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였다(레 16:30). 만일 속죄되지 않은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대속죄일의 속죄와 대제사장의 지성소 봉사가 마친 후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죄는 반드시 드러났음) 그 죄인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는 레위기 16:29~34; 23:23~32; 히브리서 9:7을 참조할 것).

2) 성소의 정결은 **심판의 시작**을 의미한다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은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이며 심판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속죄일은 심판의 날이었다. 그러므로 2300주야의 끝과 동일시된 성소 정결 사건이 의미하는 심판의 시작은 지상 성소에서 있었던 해마다의 심판이 아니라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지상 거민들에 대한 하늘의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2300주야 해석 부분에 추가 언급할 것임).

9. 2300주야 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 **2300주야 예언 성격** –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아왔는데 그 나아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다니엘 8:17). 2300주야에 관한 예언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된 계시이다.

▶ **2300주야의 실제적 기간** – 1주야(晝夜)는 한 번의 낮과 한번의 밤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1주야는 하루를 가리키며, 2300주야는 2300일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적 예언에 나타난 1일을 1년으로 환산하는 성경의 역법(민수기 14:34; 에스겔 4:6)에 따라 2300주야는 2300년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2300주야를 설명하는 다니엘 9:24~27의 내용은 모두 2300년이라는 특정한 기간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 **2300주야의 기산점** – 그러면 2300주야는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다니엘 9장 25절에 그 시작점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שׁוֹפֵר)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 기까지 70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단 9:25). 2300주야는 예루살렘 중건령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 **예루살렘 중건령** –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이어진 페르샤(바사)에서 포로생활을 하고 있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을 복구하여 돌아가라는 명령이 언제 내려졌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은 3차에 걸쳐 내려졌기 때문에 이 예언에 적용시킬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을 찾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중건령이 아니라 **성(城) 전체에 대한 중건령**이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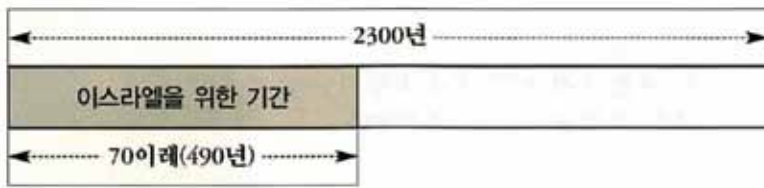
예루살렘 중건령	명령을 내린 왕	연대	성경근거	적용 여부
1차	고레스	주전 537	에스라 1:1~4; 5:13; 6:3 대하 36:22,23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실패함
2차	다리우스1세	주전 520	에스라 6:1, 8~11	성전만 재건됨
3차	아닥사스다	주전 457	에스라 7:7~26	예루살렘 성 전체가 중건됨

▶ 주전 457년이 기산점이 됨 –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내용에는 무너진 성전뿐 아니라 폐허가 된 성읍의 복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자치권의 부여도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조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3차 조서 에 해당된다.

10. 이스라엘을 위하여 정해진 기간은 얼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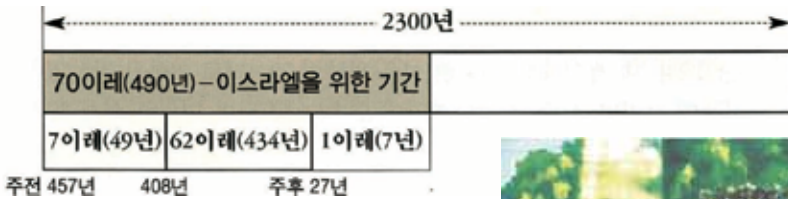
[단 9:24]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永贖)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 “네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 곧 이스라엘 민족 을 가리키고 있으며 “네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킨다.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이레(주일)의 기간이 주어진 것이며 그 실제 기간은 490(70주일×7일=490일)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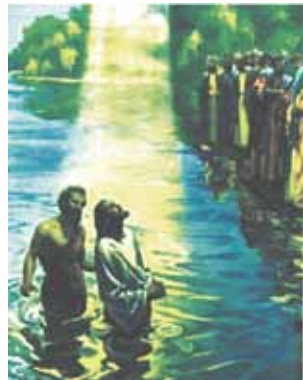


●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의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므로 죄인이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의롭게 되는 일련의 구속사적 사건들이 그 정해진 490년[70이레]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11. 70이레 중 7이레와 62이레가 지난 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단 9:25]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重建)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 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이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



와 해자(垓子)가 이를 것이며”

① ‘70이레’의 의미 –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정해 놓은 70주일을 7주, 62주, 1주로 나누어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구분된 7주일(49년)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기간으로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주전 457년부터 49년이 지난 주전 408년에 중건이 완성되었다.

두 가지 의문과 해답

[의문1] 7주일이 끝난 주전 408년부터 62주, 즉 434년이 지나면 주후 26년(434-408 = 26)이 되는 것이 아닌가?

[답] 주전에서 주후로 넘어갈 때 0(영)년이 없기 때문에 직접 뺄셈을 한 다음 1년을 더해 주어야 정확한 주후 연대가 산출된다.

[의문2] 서력 기원은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침례를 받으신 30세 되는 해는 서기 31년이 아닌가?

[답] 서력 기원은 디오니수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로마 건국 754년을 예수님 탄생한 해로 계산하여 그 해를 AD(Anno Domini ‘주님의 해’의 약칭) 1년으로 한 것인데, 후에 예수 탄생이 로마 건국 750년임이 역사적으로 밝혀짐. 그때까지 이미 사용한 연대를 모두 고칠 수가 없어서 예수 탄생을 주전 4년으로 잡음. 그러므로 서기 27년은 예수님이 만 30세 되던 해임.

② ‘62이레’의 의미 – 7주일(49년)이 지나고 다시 62주일(434년)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무엇인가?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며 선지자나 제사장, 그리고 왕들이 그 지위에 오를 때에는 실제로 기름 붓는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62주일 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예수님은 만 30세가 되던 주후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였다(마 3:16, 17).

▶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됨** – 이렇게 하여 이미 주전 500여년 경에 기록된 다니엘서 예언의 예루살렘의 중건과 메시아 출현에 대한 예언이 그 연대까지도 정확하게 맞추어 성취된 것이다.

▶ [단 9:26]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

▶ **62이레가 지난 이후에 있을 두 가지 사건** – 다니엘 9장 26절에 예언된 두 가지 사건이 모두, 앞서 언급된 70이레 동안의 예루살렘 성 중건, 62이레 후의 메시아 출현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과 예루살렘의 멸망[“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려니와”]을 예언하고 있다. 예언대로 62이레가 지난 서기 27년 이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서기 31년) 예루살렘은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서기 70년). 그러면 70이레 중에서 마지막 남은 한 이레(7년) 동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12. 마지막 한 이레 동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단 9:27]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 ‘그’는 메시아(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그”는 앞절의 메시아(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이 성경절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70주일의 마지막 한 주일을 설명하고 있다. 언약을 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유대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정해진 기간 동안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이다.



▶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 “이레의 절반에” -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신 때가 서기 27년 가을이었으므로 이레의 절반(3일 반:3년 반)은 서기 31년 봄 이 된다.



●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심 - 예수께서는 정확하게 주후 31년 봄 유월절에 돌아가심으로, 그동안 예수의 희생을 예표하던 제사와 예물

이 종식되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제사 제도가 진행되던 성전의 휘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찢어졌다(눅 23:45). 다음은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묘사한 글이다.

“모든 것이 공포와 혼란뿐이었다. 제사장들은 희생제물을 죽이려 했으나 같은 그 무기력한 손에서 떨어지고 양은 도망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모형이 원형과 마주쳤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리었다. 새로운 삶의 길이 만민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죄 많고 슬픔에 찬 인간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시대의 소망 3권, 294).

▶ **한 이레의 나머지 절반** – 아직도 유대인을 위한 70이레(490년)의 기간 중에서 10이레의 절반인 3년 반이 남아 있다. 주후 31년 봄에서 3년 반이 지나면 주후 34년이 되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주후 34년에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 종결되는 것인가?

[행 7:59; 8:1]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 **스테반 순교의 결과** – 스테반은 그리스도 승천 이후 초대 교회의 신실한 집사로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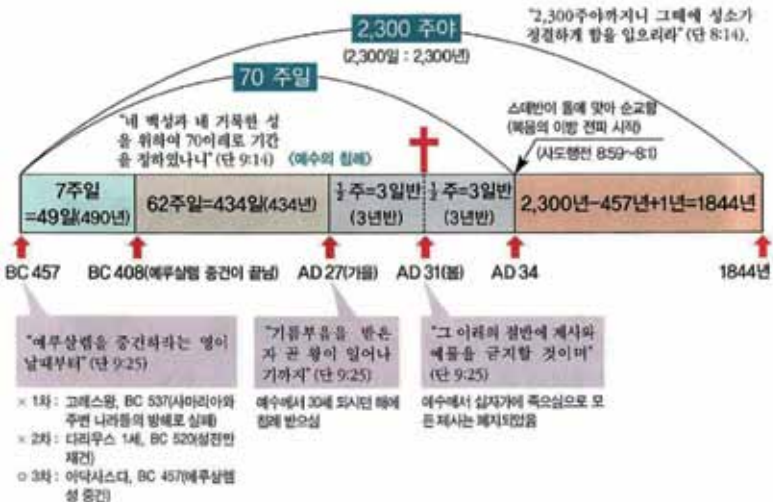
돌에 맞아 죽은 첫 번째 순교자이다. 스테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으로 흩어져 나가게 됨으로 복음이 이방 나라에도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바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해가 주후 34년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해진 70이레(490년)의 기간은 이처럼 놀랍게도 정확하게 성취되고 복음의 이방 전도가 시작되었다.

13. 2300 주야는 언제 마쳐졌으며 그때로부터 무엇이 시작되었는가?

1) 2300주야 예언은 1844년에 종결된다

전체의 기간이 2300년이고, 그 기산점이 주전 457년이므로 2300주야가 마쳐지는 해는 쉽게 산출해 낼 수 있다. 우선 2300년에서 457년을 제하고 주전에서 주후로 넘어갈 때 중복되는 1년을 더해 주면 된다.

$$[2300년 - 457년] + 1년 = 1844년$$



그러므로 2300주야가 끝나는 해는 주후 1844년이 되는 것이다. 유대력의 대속죄일의 일자를 따라 좀 더 정확하게 연대를 산출하면 1844년 10월 22일에 2300주야가 마쳐진다.

2) 2300주야의 끝은 심판의 시작이다

2300주야가 마쳐지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심판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2300주야 해석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된 1844년은 지상 성소가 없어진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른 뒤이므로, 우리는 하늘 성소로 우리의 시야를 돌려 하늘에서 전개되는 심판의 국면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는 것이다.

개인적 회개와 준비가 필요함 -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겸



손한 태도로써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아니한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

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허(浮虛)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져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다.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489, 490).



14. 다니엘 2장, 7장, 8장은 어떤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구분	역사	2장	7장	8장	역사구분
인간들이 세우는 나라	바벨론 주전 605~539	금 머리	날개 넷 달린 사자	—	다니엘이 8장의 계시를 볼 때는 바벨론이 이미 몰락하고 있던 중 8장에서는 바벨론이 생략됨.
	메데, 페르샤 주전 539~331	은 가슴과 팔	몸 한편 들고 갈빗대 세 개 문 곰	두 뿔 가진 수양	바벨론은 메데, 페르샤 연합군에게 망했으며 후에는 페르샤가 더욱 강성해짐.
	헬라 주전 331~168	놋배와 다리	날개와 머리 넷인 표범	한 뿔 달린 수양	페르샤는 알렉산더의 그리이스 제국에서 망했으며 그리이스는 알렉산더 사후 4분됨.
	로마 주전 168 ~ 주후 476	철 종아리	철 아틀 가진 괴물	나중에 심히 커짐	철같이 강한 로마제국이 일어남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면서 로마는 분열되기 시작하여 서기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일국으로 나뉘어짐.
	분열 왕국 주후 476~	홍과 철 발가락	무서운 짐승의 열 뿔	작은 뿔 (8:9-12)	분열된 일국 가운데서 종교적 세력을 가지고 등장한 로마교회가 중세 세계 역사를 장악함. 거짓 교리를 만들어 하나님을 훼방하고 대적한다.
교황 로마 주후 538~	새 뿔을 뽑은 작은 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심판	공중에 뜨인 돌 (2:44)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7:9, 10)	성소가 정결케됨 심판의 시작 (8:14)	인간이 세우는 나라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운명이 결정된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하나님의 성민에게 불인바됨 (7:26, 27)	심판의 종결— 그리스도의 재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됨 (인간회복).

15. 다니엘 2, 7, 8장 예언 비교 도표

구분	단 2장 BC 603-602	단 7장 BC553-552	단 8장 BC 551
바 벨 론 BC605 -539			
페 르 시 아 BC539 -331			
그 리 이 스 BC331 -168			
로 마 BC168 - AD476			
열 국			

16.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1) 자신을 정결케하는 일이 필요하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로부터 제거되고 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하게 하고, 죄를 없이 하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한다”(각 시대의 대쟁투 하권, 192)

2) 심판대 앞에 서도록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마지막 속죄를 드리고 있는 동안 성소 주변에 모여서 엄숙히 자신의



영혼을 살피고 단 한 가지의 죄라도 없이 하기 위해 철저히 회개하는 상태로 있었다.

우리는 매일 매일을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엄숙한 순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타인을 증오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할 수 있겠는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속죄를 치르시며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세속적 쾌락이나 오락에 치우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며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한다. 언제 어느 순간에 심판대 앞에 서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준비돼 있어야 할 것이다.

[히브리서 9:27, 28]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삶에 적용하기

성경을 공부한 후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세요.

표현하기

- ☞ 부끄러운 말과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경험을 함께 나누어 보자.

묵상하기

- ☞ 혹시 우리는 작은 벌과 같이 하나님과 그분의 성소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보자.

도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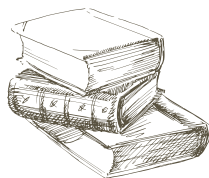
- ☞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높이 받들기 위해 어떻게 하겠는가?

Part 2 요한계시록 연구

Lesson 06

선악의 싸움 4단계

계2장



선악의 싸움은 왜, 어떻게 시작되었나? / 선악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선악의 싸움 1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 선악의 싸움 2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선악의 싸움 3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선악의 싸움 4단계의 주인공 '남은자손'은 누구인가?

재림교회는 과연 여자의 '남은자손' 인가?

선악의 싸움 4단계

생각 모아보기

영국의 코벤트리라는 도시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2차대전 때 교회가 다 타 버리고 교회 한쪽 벽만 을씨년스럽게 남아 있다. 그 벽은 그대로 보존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십시오”라는 큰 팻말이 붙어 있다.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 현장을 그대로 보게 하여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일본의 히로시마에는 원자탄이 떨어졌던 곳에 박물관을 짓고 전쟁의 흔적을 그대로 보관하여 후세인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에도 대단히 큰 카이제르 기념 교회가 있었다. 이 교회 역시 모두 불타서 종탑만 우뚝 서 있다. 후에 교회를 다시 지을 때에도 그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바로 옆에다 교회를 지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가 점점 정점을 향해 내딛고 있는 이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진리를 담는 그릇과도 같은 이 교회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자. 옛부터 전해지는 고대 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다. ‘새로운 진리를 피하려고 하는 비겁함으로부터, 진리를 반쯤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오만함으로부터, 오! 진리의 하나님! 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마음 준비하기

- ① 만약 당신의 인생이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게 된다면 당신의 가족들에게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무엇이라고 소개하겠는가?
- ② 재림교회를 다니면서 달라진 당신의 삶은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 보자.

배경 이해하기

세상에 신비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죄와 악의 문제만큼 어렵고 신비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악은 어디서 유래했을까? 이 세상을 괴롭히는 죄의 근원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존재하며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분이시라면 왜 우주에 악이 존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일까?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악의 기원과 선악 간의 대쟁투의 이유를 설명하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다. 하늘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흑암의 왕 큰 용, 즉 마귀라 불리는 사단과의 일대 투쟁이 있었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죄가 왜 시작되었는지 그 원흉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성경은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선악의 대쟁투에서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해 있으며 최후의 승리를 획득하기 위해서 어느 쪽에 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하여 결단해야 할 것이다. 선과 악의 대쟁투는 먼저 하늘에서 시작된다. 용의 공격은 치열하다. 그는 하늘에서 아들을 공격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후에는 여자를 공격하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죽이려 하다가 실패하자 이번

에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한다. 아들과 용과 여자가 대쟁투의 주인공들이며 마침내 아들의 승리로 끝난다.

본문 연구하기

1. 선악의 싸움은 왜, 어떻게 시작되었나?

▶ **인류의 역사는 선악의 싸움** - 지구의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창조된 사람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지구의 관리 책임자였다. 사단의 미혹에 인간은 실패했고 지구의 임시 소유권은 사단에게 넘어 갔다. 사기를 당한 셈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잃어버린 지구와 인류를 다시 찾으려 하신다. 사단은 놓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거시적으로 보면 지구에 대한 소유권 싸움이고, 축소하여 생각하면, 한 인간에 대한 지배권 다툼이다.

▶ **선악의 싸움 4단계** -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선악간의 전개되고 있는 싸움을 매우 조직적으로 세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특히 계시록 12장에는 이러한 선악의 싸움이 어떻게 발단되었으며,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해 매우 명확한 해답이 그려져 있다. 내용을 면밀히 살펴 보면 선악의 싸움이 4단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보면, 3단계까지의 전쟁은 지나갔

고 이제 마지막 4단계의 싸움을 남겨 두고 있다.

▶ **교회와 세상** -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인간 대리자들을 사용하신다. 사단도 마찬가지로 세상의 세력을 이용한다. 단순한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군대를 **[교회]** 라고 하고 그 상대편을 **[세상]** 이라고 한다. 요한일서 4장 4,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2. 선악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 계시록 12장에는 선악의 싸움을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1단계** - [계 12:7~9]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



라고 하는 온 천하를 피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 **2단계** - [계 12:1~5]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 **3단계** - [계 12:6, 13, 14]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일천이 백육십 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 **4단계** - [계 12:1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 **선악의 싸움 4단계 요약** - 위와 같이 전개되는 선악의 싸움에서 서

로 대립하는 양편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선악의 싸움 1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피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 12:7~9)

▶ **선악의 싸움의 1단계** – 선악의 싸움의 1단계는 하늘에서 있었던 **미가엘과 용의 전쟁** 이다.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마음으로 창조주께 도전을 한 것이다.

▶ 사단의 미혹과 인간의 범죄 – 하늘에서 쫓겨난 사단은 우주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지구에 침입해 들어와 인간을 미혹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사단의 미혹에 빠졌다. 지구는 죄 값에 팔려 임시로 사단의 손에 넘어갔다.

● 사단의 지구 침입 – 사단은 지구로 침입하였고, 사람에게 접근하여 사기를 저질렀고 그 결과 사망이 온 것이다.

▶ 구속의 경륜 발표 –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대처하셨다. 죄의 대가(고통과 죽음)를 선고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의 길을 발표하셨다. 인간의 죄 값,



죽음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것이다. 사단을 향한 선전포고,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구속의 경륜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 창세기 3장 15절 선악의 싸움 예고

악(惡)	관 계	선(善)
"너"-뱀, 마귀	원 수	"여자"-지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는 교회
"너의 후손"-마귀의 뜻을 이행해 가는 지상의 대리자들	원 수	"여자의 후손"-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 그리스도(갈 4: 3-16)
"머리를 상함"-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영원히 멸망할 것임	승 리 패 배	"발꿈치를 상함"-일시적인 상처를 입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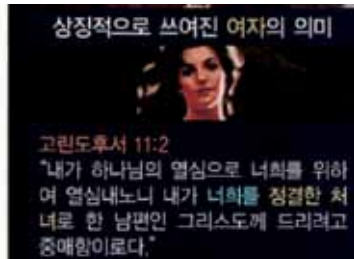
▶ 이것은 사단을 향한 치명적인 선언이었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전을 각오하며 준비를 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설명도 이미 6과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선악의 1단계 싸움을 간단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싸움 후에 지구 창조와 인간의 타락이 있었다.



4. 선악의 싸움 2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 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계 12:1~5)

▶ **흰옷 입은 정결한 여인** - 성경에서 여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교회에 적용된다. 정숙한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정절이 있는 교회요**, 부정한 여인은 세상과 타협하며 진리에 순종치 않는 배도한 교회를 상징한다. (고후 11:2)



▶ **진통(구로)하는 여인** - "이 여자가 아이를 배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2절). 사단의 증오와 핍박 가운데서 고난을 치르며 인류의 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탄생시키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당시, 하나님의 교회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던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 **여자가 낳은 아이** -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5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단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난 것이다.

[갈 4:4; 3:16]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 - 계시록 12장 7~9절에 언급되었듯이 용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자 사단은 즉시 그를 죽이려 하였다. 당시 헤롯 대왕을 통해서 죽이려 하였고,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를 범죄하도록 하여 자기 죄 값에 죽어 인류의 구원자가 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끝내 예수님께서서는 무죄하신 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구속 사업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시키셨던 것이다.

▶ 사단의 활동범위가 지구에 국한됨 -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사단의 정체가 온 우주에 폭로되고 인류에 대한 죄 값이 지불 되었을 때 사단은 더 이상 이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었다. 무죄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아담의 죄로 임시 사단의 손에 넘어간 이 지구의 소유권은 다시 그 원주인에게로 돌려진 것이다. 사단은 더 이상 지구의 대표자가 될 수 없었고 그는 멸망당할 때까지 임시로 지구에 머물게 된 것이다.

▶ **지구에 대한 집중 공격이 시작됨** –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은 즐거워하라”(계 12:12).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므로 사단의 정체가 온 우주에 폭로되어, 사단은 더 이상 다른 우주의 거민들을 미혹할 수 없게 되었다. 위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



황에 적용되는 것이다. 오직 지구만이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이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계 12:12).

▶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단** –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라도 땅 주인이 요청하면 땅을 내 주어야 하는 매우 다급한 입장이 된 것이다. 사단이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몹시 분노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지구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제 3차 싸움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선악의 싸움 4단계 진행 과정



5. 선악의 싸움 3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 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계 12:13~16)

▶ **교회에 대한 사단의 집중 공격이 시작됨** – 예수님 승천 이후,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은 삼시간에 로마를 점령해 나갔다. 아울

러 이 땅 위에서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도 격렬해졌다. 사단은 로마 제국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기독교 핍박을 감행했다. 약 10대에 걸친 로마의 황제들은 기독교회를 사정없이 박해하였다.

네로(54~68)	아우렐리우스(161~180)
베스파시안(69~79)	막시미누스(235~238)
타이투스(~81)	데시우스(249~251)
도미시안(81~96)	발레리안(253~260)
트라얀(98~117)	디오클레시안(284~305)



▶ **사단이 전략을 변경함** - 무력을 통한 박해가 기독교의 복음을 잠잠하게 할 수 없었다.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교인수는 증가하였다. 사단은 전략을 바꾸어, 핍박하던 교회에 자유를 주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는 313년 밀란 칙령을 통해서 교회의 자유를 선포했고 자유를 얻은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어 드디어 배도하고 타락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교회의 분위기 속에서 로마교회[가톨릭]가 시작되었다.

▶ **중세 종교 암흑시대** - 로마 교회의 발전과 그 배도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미 다니엘 7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무수하게 살해함과 동시에 이교의 허다한 교리들을 교회로 유입하여 교회를 암흑 세상으로 만들었다. 천주교회의 뉴만 추기경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성당들, 분향, 등(燈), 봉헌물, 성수(聖水), 성일(聖日)들과 절기들, 행진, 땅을 축복하는 일, 사제의 복장들, 체발(剃髮), 성상(聖像)들, 이 모든 것들은 로마의 이교적인 기원이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식 가운데 75%가 로마의 이교적인 기원에 속한다”(Loraine Boettner, Roman Catholicism, 10).

▶ 여전히 남아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 - 이러한 기나긴 중세기 암흑 기간 동안에도 핍박받는 성도들로 구성된 광야의 쫓기는 교회, 즉 남은 무리의 명맥이 면면히 이어져 나갔



다.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도 알비젠스인들, 왈덴스 교도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진리를 수호해 왔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목숨을 걸고 진리를 수호했던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었다.

▶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심 -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천 2백 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떤 위험과 핍박 속에서도 그분의 교회와 백성들을 보존하신다.

▶ **종교 개혁이 시작됨** - 드디어, 기나긴 중세 종교암흑시대는 1517년 말틴 루터에 의해 시작된 종교개혁과 함께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여기 저기서 성경 말씀에 기초한 개신교회들이 탄생되기 시작했다. 다급해진 사단은 로마 교회와 세상 나라들의 정권을 동원시켜 핍박을 강화하면서 개신교 사상을 말살하려고 했다.



▶ **제수이트의 반격** - 1540년, 로올라에 의해서 발족된 [예수회](제수이트)는 철저한 교육 사업과 함께 세계적인 정치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개신 교회를 매우 잔인하게 조직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려 했던 것이다. 성경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 가게 하려”(15절) 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 **종교개혁이 약화됨** - 종교개혁의 결과 많은 개신 교회가 설립되었

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었다. 성경이라고 하는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발생되고 진행된 것이라면 성경에 기초한 하나의 교회로 발전돼 나가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교황권에 의해서 무너지고 감추어진 성경의 진리들이 새롭게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새로운 교파가 하나씩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고는 서로 이질감을 가지고 반목하게 되어 종교 개혁의 정신은 오히려 퇴색되고 말았다.

▶ **청교도들의 반발** - 이때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등지에서는 국교주의를 강화하여 '모든 국민들은 엘리자베드 여왕을 교회의 수장(首長)으로 인정하라'는 교식통일령(1559년)이 내려졌다.



영국의 이 국교주의에 의한 교식 통일령 중에는 가톨릭의 교리와 의식의 잔재들이 개혁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당시 종교 개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청교도들이 이에 반발하게 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하여 탄압을 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당시 종교 개혁의 물결이 더 이상 발전되지 못하고 정체 내지는 침체에 빠지게 되는 모습을 반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 **청교도들의 미국 이주** - 영국의 이와 같은 분위기에 견디다 못한 일단의 청교도 무리들이 1620년 국교주의를 통한 탄압을 피해 브류스

터(William Brewster, 1567-1644)를 지도자로 삼아 배(메이 플라워 號)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현재의 미국 플리머스에 상륙하게 되었다. 도착하였을 때 남자는 78명, 여자는 24명이었다. 이들은 뉴 잉글랜드를 개척하고 퓨리타니즘의 회중교회를 세워 미국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들이 바로 “왕 없는 나라, 교황없는 교회”를 세우는 미국 건국의 기초를 놓게 되고,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거대한 개신교 국가로 변영하게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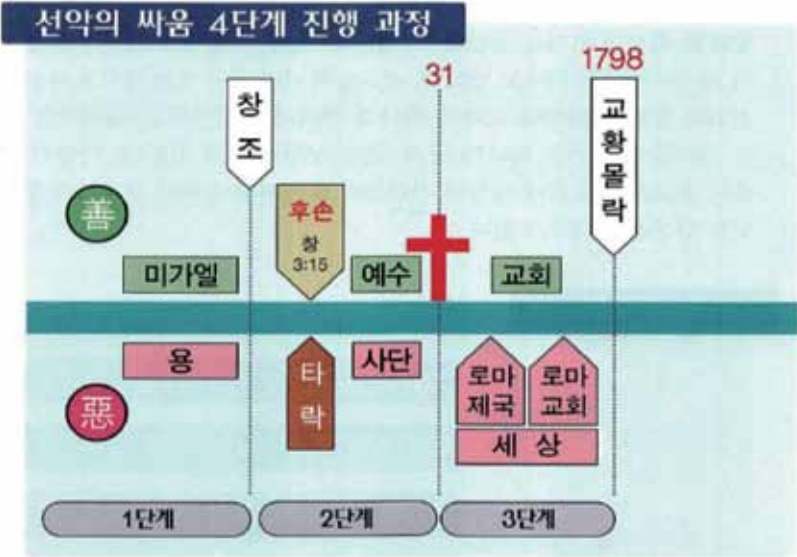
▶ **땅이** **여자를** **도움** - 계
 시록 12장 16절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16절)킨
 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때의



상황을 두고 예언한 것이다. 이미 다니엘 7장에서 공부한 대로 [바다]는 “많은 사람” 혹은 “큰 무리”를 상징하는 것이며,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땅]은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한적한 곳을 기리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시록 12장 16절의 [여자](교회)를 도운 [땅]은 바로 청교도들을 받아들인 미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유럽에서 거의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던 교회가 다시 소생하여 큰 힘을 얻은 후에 세계 선교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 16세기 경에 이르러 종교 개혁자들은 열린 성경을 백성에게 공개하

며 이를 유럽 각국에 보급시키기를 희망하였다. 어떤 나라들은 그것을 하늘에서 온 사자로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였다. 그러나 어떤 나라들에서는 로마교회가 성경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지하였다.



6. 선악의 싸움 4단계의 주인공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 **사탄의 공격 대상** – 선악의 싸움 4단계에서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 대상은 **남은 자손** 이다. 이 [남은 자손]들이 역사적으로 성서 예언상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 **남은 자손의 뿌리** – 성경상의 남은 자손들은 구약과 신약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서는 예언과 연관시켜서 종교개혁 이후로 남은 자손의 형성 과정을 간단히 다룰 것이다.

▶ **종교개혁 진행의 문제점** – 종교개혁을 시작한 정신이나 출발은 대단히 중대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그 진행 과정에서 인간적인 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종교암흑시대 동안에 변질되고 파묻힌 진리를 발견할 때마다 교파가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모든 교파들이 결단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다음의 도표는 종교개혁 초기에 성경의 진리들이 밝혀지면서 여러 교파들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교파 난립의 문제** -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성경이 하나이므로 기독교회는 하나이어야 한다. 각 교파별로 가지고 있는 성서적 교리들이 하나로 모아져야 진정한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미완성된 교리를 가지고 교파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하나로 모으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처럼 보였다.

▶ **1800년대 전반기, 재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그러나, 1798년 교황권이 몰락한 이후, 성서공회들이 발족되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성경을 자유롭게 보게 되면서 성경에 가장 자주 많이 언급되어 나오는 재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 **밀러의 재림운동** - 특히 윌리엄 밀러(침례교회 교인)라는 사람은 성경 예언을 연구하다가 재림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되어 1831년부터 예언과 재림의 기별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 운동의 불길은 점점 번져나갔지만,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서 기성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배척을 받았다. 결국에는 그 재림운동에 가담하는 자들은 소속 교회로부터 출교당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 **초교파적인 재림운동** - 이리하여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은 각 교회로부터 출교되어 나온 무리들을 중심으로 초교파적인 운



동으로 번져나갔다. 약 5만 명 이상이 그 무리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운동은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재림의 날짜를 정해두었던 것이다.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의 2300주야 예언이 마쳐진다고 해석한 1844년 10월 22일이 재림의 날짜였다.

▶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된 재림신자들** – 정해진 날짜에 예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재림 신자들에게 1844년 10월 22일은 문자 그대로 운명의 날이었다. 그 정해진 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수만 명의 재림신자들은 쓰라린 경험과 함께 대실망을 맛본 채 뿔뿔이 흩어졌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과 10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는 쓰게 되더라.”

▶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 그러나 계시록 10장의 예언은 다시 계속된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계 10:11). 실망을 딛고 일어난 신실한 성경학도들이 있었다. 많은 수는 아니었으나 각 교파로부터 재림 신앙을 따라 나온 충성스러운 종들이었다. 그들이 함께 모여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성경연구에 참여했던 주요 인물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이름	교회	직분	기여한 분야
조수아 하임스	감리교회	목사	출판 사업
사무엘 스노우	회중교회	평신도	성소 진리
조셉 베이츠	크리스찬	평신도	안식일
찰스 피치	장로교회	목사	조건적 불멸
하이람 에드슨	감리교회	목사	성소 진리
제임스 화이트	크리스찬	목사	출판선교, 조직
토마스 프레블	침례교회	목사	안식일
엘렌 화이트	감리교회	평신도	계시 받음
레셀 프레스턴	제칠일침례교	평신도	안식일
조시아 릿치	감리교회	목사	조사 심판

이 밖에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등 각 교단의 목사들과 평신도들이 연합하여 범교단적으로 성서적인 교리들을 찾아 연구하였다.

▶ **각 교파의 성서적 교리들이 모이지다** – 재림운동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역사가 이루어졌다. 종교개혁 시대 이후, 각 교파의 난립과 함께 거의 불가능해 보이던 ‘교리연합’이 가능해진 것이다. 재림운동과 함께 각 교파로부터 나온 평신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각각의 성서적 진리들을 모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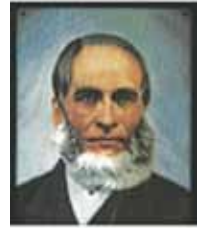
▶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형성** – 바로 이 초교파적인 사람들의 모임이 발전하여 1860년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를 형성 하게 된다. 저들의 교리는 여러 교파의 성서적인 교리를 깊이 연구하여 정리하였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매우 성서적이고, 예언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

였기 때문에 예언 해석에 탁월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안식일교회는 잡채와 같다(?)** – 가톨릭의 저명한 저술가인 기본스 추기경이 저술한 ‘교부들의 신앙’ (장면 역, 458)에서 안식일 교회를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는데, 상당히 타당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의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의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대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십분의 일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뱃티스트파[침례교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 **종교개혁을 더욱 발전시켜 완성한 교회** –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검토 해보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교파를 초월하여 아무런 편견없이 성서의 진리를 한곳으로 모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바탕으로 진정한 종교개혁을 완성시킨 교회가 된 것이다.



7. 재림교회는 과연 여자의 '남은 자손'인가?

▶ 여자의 남은 자손

신원 조회 - 모든 교회가 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성경 예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에 정확히 일치되어야 한다. 이제 제

재침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성립



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과연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여자의 '남은 자손'에 해당하는 교회인지 그 신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 **남은 자손의 특징들** - 이미 언급된 성경절과 설명된 예언들을 종합해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음의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켜야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이다.

① [남은 자손]은 1798년 이후에 출현한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일어나는 시기는 여자[교회]가 광야에서 쫓기는 기간인 한 때 두 때 반 때(1260년)가 지난 후, 즉 1798년 이후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남은 자손은 선악의 세 번째 싸움이 끝난 후,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재림교회는 1860년에 시작되었으므로

여기에 해당된다.

② [남은 자손]은 지리적으로 **미국에서** 나온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광야에서 쫓기는 여자에게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떠내려 가게 할 때에 도와준 땅에서 출생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 땅은 바로 미국이었다. 재림교회는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③ [남은 자손]은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

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하였다. 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확고한 신앙을 고수한다. 재림교회는 믿음의 근원이 되는 성경의 권위와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길 외에 다른 어떠한 구원의 방법도 인정하지 않는다.

④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계시록에 명시된 남은 자손의 가장 뚜렷한 증거의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계 12:17; 14:12). 구원을 받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나라의 법을 준행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을 때

십계명의 내용을 소개하셨다(마 19:16~22). 재림교인들은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십계명 속에 명시된 안식일을 포함한 계명 전체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있다.

⑤ [남은 자손]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Spirit of Prophecy – 예언의 정신, 예언의 능력, 예언의 신)으로 정의하고 있다(계 19:10). [남은 자손]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별을 전해야 한다. 특히 “어두운 데 비취는 등불”이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확실한 예언”(베후 1:19)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하는 것이다. 재림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예언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증거하고 있다. 또한 엘렌 화잇을 통해서 주신 기별로 성경 말씀에 명시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높은 표준과 기준을 제시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⑥ [남은 자손]은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한다.

남은 자손은, 그들이 전파해야 할 기별이 매우 중요하고 급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백성과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한다(계 14:6~12). 그 기별의 독특성과 유일성 때문에 세계적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여야 한다. 재림교회는 현재 전 세계 209개국 이상의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여 기독교 모든 교파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서 선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이다.

▶ **재림교회는 사단의 공격대상이 된다** – 재림 교회는 이렇게 [남은 자손]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 사단은 틀림없이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이다. 재림교회는 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선악의 마지막 싸움의 방법은 계속 공부할 계시록 13장과 14장에 언급되어 있다.

▶ **[남은 자손]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 결국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여자의 [남은 자손]과 계시록 13장에 예언된 용[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짐승과의 싸움으로 번질 것이며, 그 대쟁투의 초점은 하나님의 계명이 될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상대의 전력이 아무리 무섭고 강할지라도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된 늦은 비 성령의 권능을 받아 짐승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이다.



삶에 적용하기

성경을 공부한 후 다음과 같은 주제를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세요.

표현하기

☞ 재림교회가 자랑스럽게 여겨질 때는 언제였는지 표현해 보자.

묵상하기

☞ 재림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묵상해 보자.

도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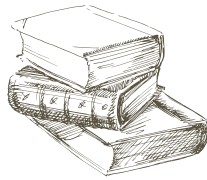
☞ 불신자나 가족들에게 재림교회를 알리기 위하여 무엇을 소개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자.

Part 2 요한계시록 연구

Lesson 07

교황권의 부활과 미국

계 13장



계시록 13장의 두 마리의 짐승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짐승과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 짐승은 어느 세력을 상징하는 것인가?

교황권은 왜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을 합한 것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 짐승의 특징과 역할은 무엇인가?

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인가?

두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가?

미국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황권과 결탁을 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 짐승을 돕는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무엇인가? / 666이란 무엇인가?

교황권의 부활과 미국

생각 모아보기

막강한 군사력과 전략으로 많은 땅을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한 번은 아주 적은 규모의 군대를 이끌고 한 도시로 갔다. 거기서 그는 그곳의 왕을 직접 만나 항복을 종용했다. 그 도시의 왕은 제아무리 알렉산더지만 그 적은 군대로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냐며 항복을 거부했다. 그러자 알렉산더는 자신과 그 군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 주겠노라고 공언했다.

알렉산더는 군대를 일렬로 세워 낭떠러지를 향해 행진할 것을 명령했다. 알렉산더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병사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한 사람씩 낭떠러지로 행군했다. 그 모습을 본 그 도시의 왕은 저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는 군사들에게는 제아무리 강한 요새도, 큰 군대도 견디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항복하고 말았다.

한날 인간을 따르는 군대에게도 목숨을 건 담대한 순종이 있다.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신 우리가 순종의 결단과 의지를 지니지 못해서야 말이 되겠는가? 적극적으로 거역하는 것은 물론, 능력이 모자라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역시 죄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에, 능력이 모자라 순종하지 못했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순종하고자 몸부림치지 않은 것에 지

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청종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아니라 곧 그 죄다.

무너질 전통을 따를 것인가? 영원한 진리에 순종할 것인가?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어떤 고난과 시련의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제자가 되자.

마음 준비하기

- 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나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겠는가? 그리고 그 이유는?
- ② 우리의 군대장관이시며 대군 미가엘이신 예수님 편에 굳게 서기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배경 이해하기

요한계시록 제13장에서는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사단의 지휘를 받아 성도들을 핍박할 두 짐승이 출현한다.

먼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어서 용을 닮았다. 용(사단)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므로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며 성도들과 싸워 이기

게 되고 나라들까지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계 13:5~7). 그러므로 이 짐승은 헬라(표범)의 다신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메테바사(곰)의 잔인성을 소유하며 바벨론(사자)의 우상 숭배를 계승하고 마흔두 달, 즉 1260년의 긴 기간 동안 교회와 나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며 역사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력임에 틀림없다.

두 번째 짐승은(계 13:11~18) 땅에서 올라오는데 이전의 짐승과는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어 양순하게 보이나 본질은 용처럼 말하는 강력한 세력이다. 사단이 다양한 세력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백성과 나라(바다)가 없는 곳에서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단은 두 동맹 세력을 뒤에서 조종하여 그의 뜻을 이루려한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대환난을 피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그 짐승들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13장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문 연구하기

1. 계시록 13장의 두 마리의 짐승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1) 첫 번째 짐승은 **복합짐승** 이다

[계 13:1, 2]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



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람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2) 두 번째 짐승은 새끼양 같은 짐승

이다

[계 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 두 마리 짐승의 공통점

첫 번째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두 번째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한다. 두 짐승이 모두 용과 관련이 있고, 용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므로,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은 사단의 역사를 이루는 세상의 어떤 세력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2. 첫 번째 짐승과 다니엘 7장의 네 짐승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첫 번째 짐승의 모양 - 다니엘 7장 네 짐승을 합한 모습

- 첫 번째 짐승은 이름이 없이 매우 복잡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그 이상스러운 모습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마리의 짐승을 하나로 합쳐 놓은 것이 분명하다.

계시록 13장 짐승의 모습		다니엘 7장
1	뿔이 열	네번째 무서운 짐승에게 뿔이 10개 있음
2	머리가 일곱	사자머리 1, 곰머리 1, 표범머리 4, 무서운 짐승머리 1 < 합 7 >
3	표범과 비슷함	세번째 짐승 - 표범
4	곰의 발	두번째 짐승 - 곰
5	사자의 입	첫번째 짐승 - 사자

▶ 다니엘 7장의 네 짐승과 계시록 13장 첫째 짐승과의 관계 - 이 복잡한 짐승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다니엘 7장에 나타난 네 짐승의 모습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그 네 짐승의 특징들을 한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7장의 핵심인 '작은 뿔'과 계시록의 짐승이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 다니엘 7장의 “작은 뿔”과 계시록 13장 첫 짐승의 공통점

구 분		작은 뿔 [단 7장]	복합 짐승 [계 13장]
모 양			
()인의 숫자는 해당 절수입			
1	화생	(12) 그 생명은 보존되어	(3) 죽게된 상처가 나옴
2	입(말)	(20) 큰 말하는 입	(5) 참람된 말하는 입
3	행(능력)	(20) 모양이 동류보다 강함	(4)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4	공격 대상	(21) 성도들과 싸움	(7) 성도들과 싸워 이김
5	하나님 대적	(25) 지극히 높은 자 대적	(6) 하나님을 훼방
6	핍박 기간	(25) 한때 두때 반때	(5) 마흔 두 달

3. 첫 번째 짐승은 어느 세력을 상징하는 것인가?

1) 다니엘 7장 과 관련이 있는 짐승이다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은 틀림없이 다니엘 7장과 관련이 있다. 다니엘 7장 예언의 핵심은 로마 교회를 상징하는 ‘작은 뿔’이었다. 그러므로, 계시록 13장의 짐승은 로마 교회와 관련을 갖는다.

[단 7:12]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2) 작은 뿔의 부활이 예고 되었다

위의 내용 중에서 “그 생명은 보존되”었다는 말씀은, 나라는 망했지만 그 정신은 남아 있다가 언젠가 출현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

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마리 짐승의 특징을 골고루 갖추고 계시록 13장에 나타난 그 첫 번째 짐승은 '작은 뿔', 즉 교황권의 재등장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3) 첫 번째 짐승은 로마교회를 상징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적, 현실적 증거로 보아 사단은 로마제국에 이어서 로마교회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로마교회가 그리스도



인에게 가한 박해와 온갖 거짓 교리들의 형성 과정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 용(사단)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은 세력은 로마제국에서 이어진 로마교회이다.

4) 더 이상 작은 뿔의 모습이 아니다

로마교회가 처음 시작될 당시에는 작은 종교적 세력에 불과했지만, 이제 로마교회는 더 이상 작은 세력이 아니고 먼저 있던 여러 나라들을 합한 것만큼 거창하고 힘있는 모습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것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이 예언은 오늘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다.

4. 교황권은 왜 다니엘 7장의 네 마리 짐승을 합한 것으로 나타나는가?

▶ **네 짐승의 특징** - 네 짐승의 특징들을 골고루 갖춘 이 복잡한 짐승의 의미는 그 네 짐승이 상징하는 **나라들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나타나는 세력의 출현**을 의미하는 것이다.

▶ **네 짐승을 합한 모습으로 등장한 이유** - 작은 뿔은 네 짐승(나라)가 지나간 후에 나타났기 때문에 네 나라를 거쳐서 전해져 내려온 문화, 종교, 정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의 언어나 음식이나 건축 등에 일본의 흔적이 있는 것과 같다.



♣ 교황 십자가 : 교황 십자가로 불리우는 이 상층의 십자가는 바벨론의 농경신(담무스)의 상징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로마 교회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세 왕국(교회, 세상, 하늘) 나라에 대한 교황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 **역사 확인** -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사자) → 메데, 페르샤(곰) → 헬라(표범) → 로마(열 뿔 달린 짐승)로 연결되어 세계를 지배해 온 이 네 나라들의 뒤를 이어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중세 종교암흑시대를 지배하던 로마교회는 먼저 네 나라들의 특성을 골고루 지니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 뿔고기모양 모자 :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섬기는 다곤신의 상징적 모형은 뿔고기다. 교황과 추기경들이 자주 사용하는 뿔고기 모양의 모자는 다곤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로마 교회를 분석해 보면 기독교 교리와 이방종교의 풍습과 로마의 정치적 특성들을 혼합해 놓은 복합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따라서 로마 천주교에는 이방 종교의 특성들이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데 몇 그림들을 통해서 그 증거들을 볼 수 있다.

구 분	작은 불 [단 7장]	복합 짐승 [계 13장]
바벨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상 숭배 • 거짓 성소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베드로 성당에 395개의 성상이 있었고, 그레고리 3세는 우상 사용을 옹호함 • 십계명 중 제 2계명 없애 버림 • 로마 교회의 미사 제도
페르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양 숭배 • 일요일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1년-콘스탄틴 황제가 "존경할만한 태양의 날" 일요일 휴업명령 내림 •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에서 일요일 예배 결의

▶ 로마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들의 특성

그리스 (헬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학[이원론사상] 소크라테스 → 플라톤 → 아리스토텔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교 철학 도입 : 스킨라철학-헬라의 철학이 교회로 들어와 기독교와 결합하여 통일적 세계관이 성립됨
로 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제국의 권력 이 로마 교회로 이양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교회는 행정조직에 있어서 로마 제국과 동일한 형태임

5. 첫 번째 짐승의 특징과 역할은 무엇인가?

1)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옴

-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



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계 13:3)

● **교황권의 몰락과 부활** - 로마교회는 1798년, 프랑스 나폴레옹의 부하 벨티어가 당시 교황 비오 6세를 잡아감으로써 일단 역사의 무대에서 그 힘을 잃어버렸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교황의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시록 13장에서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다.

● **로마 교회가 되살아나는 과정**

- ① 1815년 유럽에서의 나폴레옹의 몰락과 함께 다시 일어남.
- ② 교황 클레멘트 14세가 1773년에 폐지했던 [예수회]를, 피우스 7세가 1814년에 회복시켜 옛 기능을 부활시킴.
- ③ 부활된 예수회는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를 설득하여 교회 회의를 거치지 않고 성모 마리아의 원죄없는 잉태(무구회태)를 교리로 선포하게 함.
- ④ 예수회의 영향으로 1870년 7월 18일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 무오설이 교리로 선포됨.
- ⑤ 1929년 교황 피우스 11세와 이태리의 무솔리니 사이에 맺어진 라테란 조약으로 1080에이커의 교황령[바티칸]을 획득하여 현재 약 10억 이상의 신자를 갖고 수많은 나라에 대사를 파견하고 있다.

2)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름

● **온 세상이 교황을 따름** - 1929년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바티칸을 되찾은 로마교회는 막강한 힘을 얻게 되었고,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황을 따르고 있다.

● **온 세계의 하늘에 빛나는 별** - 1979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한 신문에서는 이러한 기사를 실었다. “법왕이 미국을 한 번 방문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벼락을 맞을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역사상 최초의 폴란드인 법왕 요한 바오로 2세가 그의 놀라운 선거를 치른 지 1년 후에, ‘온 세계의 하늘에 빛나는 별’로서 만 7일간을 우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약속아래 우리 미국에 오게 되었다. 정치가들은 다투어 그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여섯 개 도시의 시장들은 그들의 도시의 업무를 실제적으로 중단하고 법왕을 맞이할 행사를 열렬하게 준비하였다”(1979. 9. 18. 워싱턴 스타지).

●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의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은 글과 함께 교황의 사진을 실었다(1996. 2월). “교황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결코 그를 잊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만 보아도 큰 감동을 받는다. 이 세상의 다른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개신교회의 세계적인 부흥목사 빌리그래햄도 “그분은 전 세계 기독교인의 양심”이라고 말했다.

● **교황의 능력과 힘의 근원** - 군사력도 없고 거대한 정치적 국가의 대

통령도 아닌 교황이 그토록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우리는 다음의 성경 말씀을 주시하여야 한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계 13:4).

- **베네딕토 16세의 역할** – 요한바오로 2세의 뒤를 이어 2005년도에 265대 교황에 취임한 베네딕토 16세도 역시 전 세계를 향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특히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천주교를 수호하는 탁월한 식견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오직 천주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아 마흔두 달 일함

- [계 13:5]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람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 **큰 말, 참람된 말** –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이 ‘큰 말하는 입’(단 7:8, 20)을 가졌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이다. ‘참람’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원어인 헬라어로 “블라스페미아”인데 “불경건한 말” 또는



“신성 모독의 말”을 의미한다. 성경에서는 불경건한 말이나 행위에 대해

여 두 가지로 언급한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한 행사를 할 때’와 둘째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이다(요 10:35; 눅 5:21 참조). 교황의 권한에 대한 다음의 언급들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304쪽).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리울 수 있으며…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또한 왕중 왕이라고 불리울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이 말씀한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교황”, 웨라리스의 교회사전 / “Pope”, Ferraris, Ecclesiastical Dictionary).

● 고해성사에 대한 요리 문답

문2: 고해성사란 무엇인가?

답2: 고해성사란 사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를 사해 주는 성례이다.

문3: 사제는 참으로 죄들을 사하는가, 아니면 죄들이 사해졌다고 선언하는 것뿐인가?

답3: 사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에게 부여된 권세로서 죄들을 실제로, 참으로 사한다.

문5: 고해성사에서 누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는가?

답5:가톨릭 교회의 감독(주교)들과 사제들에게 위임되었다.

(Joseph Heharbe, A Full Catechism of the Catholic Religion, pp. 275, 150)

● **마흔두 달 일할 권세** – 이것은 사도요한이 계시를 볼 당시로서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시점에서는 과거의 일이다. 이 말을 현 시대에 적용한다면, 과거에 마흔두 달(126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 세력[교황권]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다.

6. 온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인가?

[계 13: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 계시록 13장의 예언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질 것이다.

- ①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 ②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

1) 짐승[교황권]에게 경배하는 자들

● **온 세계가 교황권에게 굴복할 것인가** – 본 예언에 의하면 하나님의 참 백성들 외에는 모두 교황권에게 굴복하여 경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일이 과연 가능한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개신교, 그리스 정교, 사회주의 국가들, 이러한 모든 세력들이 과연 로마교회의 권력에 굴복할 것인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던 이 일이 놀랍게도 신속히 이루어져 가고 있다.

● **종교연합, 세계연합을 위한 교황의 노력들** - 교황은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며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세계의 종교연합과 정치적 연합을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세계의 지도자들에 대한 교황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1999년 10월에는 교황이 전 세계 40억에 가까운 인구를 지도하고 있는 세계 5대 종교의 지도자들을 교황청으로 초청하여 미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 **베네딕토 16세의 활동** - 베네딕토 16세가 특별히 총력을 다하여 성취하고자 하는 일은 우선 개신교를 다시 끌어 들여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5년 4월 20일 그의 첫 미사의 강론을 통해 그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를 반드시 재통합하는 일을 우선 과제로 삼겠다”(동아일보, 2005. 4. 21.)고 선언하였다. 동시에 그는 불교, 이슬람, 유대교 등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마침내 전 세계를 하나의 질서로 통합하여 세계의 왕으로 군림하려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교황권은 지금까지 그 일을 위하여 착실한 준비를 해 왔고 그 목표는 조만간 실현될 것이며, 온 세계는 결국 교황의 권세에 굴복하여 잠시 동안 그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2)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

[계 3: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 **끝까지 인내하여 시련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 –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짐승의 세력으로부터 큰 환란과 핍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인내가 필요하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계 13:10).

●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함** – 멕시코 산 살바돌의 한 가톨릭 신부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개신교회는 기초가 될 만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 하나로써 그들은 성경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들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와 연합하든지 토요일로부터 일요일로 경배일을 변경할 권한을 가진 교회[가톨릭]과 연합하든지 택하여야 할 시간이 빨리 다가오고 있다”(샌프란시스코 연대기, San Francisco Chronicle, 1950년 9월).

7. 두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가?

[계시록 13: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 **먼저의 짐승들과는 대조되는 짐승** - 이 짐승은 올라온 장소나 모습이 먼저 올라온 짐승들과는 아주 다르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지 아니하고 땅에서** 올라왔다. 또한 이 짐승은 먼저 짐승들처럼 참람되거나 무서운 용모나 열 뿔을 갖지 않고 온순한 새끼 양 같은 짐승으로 나왔으며 두 뿔은 있었으나 거기에 면류관은 없었다.



2) **땅에서 올라온 짐승** -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온 장소는 바다와는 상대적인 장소 ‘땅’이었다. 바다는 인간들이 군집하여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세상으로 상징되어 있다(사 8:7, 8; 17:12, 13). 땅은 바다와 상대적 개념으로 사람이 많이 살지 않고 있던 **미개척지 아메리카 신대륙에** 적용되는 것이 적합하다.

3) **두 뿔의 의미** - 뿔은 ‘국가’ 또는 ‘왕권’ ‘힘’의 상징(단 7:24)으로 두 뿔은 미국의 건국 정신이며 힘의 상징인 두 가지 권리 개념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다. ① 민주권리 개념[왕 없는 민주국가]: “국가란 국민에게 속한 것이며, 국민의 손에 의하여, 또한 국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② 종교자유 권리 개념[교황없는 국가]: “의회는 어떤 종교를 세우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4) 양(羊):미국 건국 초기의 기독교 정신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요 1:29)라고 요한이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한 것처럼 미국은 청교도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종교 자유의 나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기념비에서 미국의 정신을 읽을 수 있다.



“피곤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 자유를 구하는 무리들, 버림받고 가엾은 사람들을 나에게 주시오. 집없는 사람들, 재난을 만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 주시오!”

5) 용처럼 말하더라 – 이렇게 양처럼 순수한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된 미국이라는 나라가 장차 변질되어 용[사단]처럼 말하며 먼저 나온 짐승[교황권]을 돕겠다고 한 것이다.

8. 미국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교황권과 결탁을 하게 되었는가?

▶ 함께 지낼 수 없는 이웃 – 사실 로마교회와 미국은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는 관계이다.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교황권의 종교적 탄압을 피하여 도망 가서 세운 나라이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과 교황이 서로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가? 상식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는 예언이었지

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성취되고 있음을 본다.

▶ **레이건과 교황의 만남** – 1982년 바티칸에서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만났다. 비밀리에 만났고 10년 이상 그 비밀이 유지되었다. 1992년 2월 24일자 TIME[타임] 잡지에 두 사람이 만났던 기사가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표지 제목은 ‘거룩한 동맹’(Holy Alliance) 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 동맹을 맺었다는 것이었다.

▶ **두 사람의 충격 사건** – 교황청 도서관에서 있었던 두 사람의 대화는, 두 사람이 함께 당했던 충격 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었다. 교황은 1981년에 충격을 당했고, 6주 후에 레이건도 충격을 당했다. 세계의 이목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고 그로부터 두 사람은 친분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1982년에 만나게 된다.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들의 첫 번째 만남에서 좀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1981년 6주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암살 음모에서 살아났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둘 다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살아난 것을 기적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다”(Time, February 24, 1992).

▶ **총격사건은 조작된 것이었음** -

조선일보 1994년 8월 8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지난 81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저격 사건은 교황청 고위 인사들이 지시한 것이며…교황청 관리들이 범인인 아그차에게 총을 쏘되 죽이지는 말도록 지시했음이 밝혀졌다.”



▶ **거룩한 동맹** -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지도를 변경시키는 대역사를 이루었다. 이 두 사람의 만남과 동맹 이후 동구 공산권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교황의 모국인 폴란드로부터 시작하여 짧은 시간에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결국 공산주의의 종주국이었던 소련도 붕괴되었다.

▶ **두 동맹국이 얻은 것** - 공산국가들이 무너지면서 로마교회는 공산권 치하에 있던 수백만의 가톨릭 신자들을 얻게 되었고 미국은 세계 유일한 강대국이 되어 소련 없는 세계를 마음대로 뒤흔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 **1984년 대사를 교환함** - 그 동맹 이후, 미국이 로마 가톨릭과 제휴하고 공공연하게 종교 연합 운동을 전개해 나갈 뿐 아니라 교황청은

1984년 2월 10일 미국과 정식 수교를 맺으면서 3월에 첫 대사로 윌리엄 에이 웰슨(William A. Welton)을 교황청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9. 첫 번째 짐승을 돕는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무엇인가?

[계 13:12]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 **미국이 가톨릭을 돕는 데 앞**

장 설 것임 - 미국이라는 나라는 교황권과의 적대적인 관계로 출발했지만, 역사에 마지막 부분에서는 교황을 적극 지지하며 도울



것이 예언되어 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언의 성취를 목격하게 된다. 다음은 1999년 1월 26일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세인트 루이스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교황에게 한 말이다.

“교황이 바라는 대로 되기 위해 미국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희망합니다”(중앙일보, 1999. 1. 28.).

클린턴이 어떤 측면에서 교황을 돕겠다고 한 것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그는 계시록에 예언된 이 심각한 국면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 **미국은 바티칸의 협력이 필요하다** - 미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티칸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황의 요청이나 협력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권이 미국에게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중대한 사안은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2001. 4. 21.) 지에 게재된 다음의 기사는 미국의 이러한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는 듯하다.

“1960년도에 존 F. 케네디는 본인이 당선되어도 교황에게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을 개신교 목사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텍사스로 내려갔다. 반면 2001년도에 조지 부시는 본인이 당선되면 교황에게 순종하겠다는 것을 일단의 가톨릭 감독들에게 보장하기 위해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올라갔다.”

1)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이적을 행한다

[계 13: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 **거짓 이적들을 행할 것임** – 용처럼 말하는 새끼 양이 베푸는 이적은 틀림없이 거짓 이적일 것이다. 거짓 이적의 목적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이적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기록 가운데 내려오는 불은 하나님의 불이다. 아벨의 제단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 불을 억지로 내려오게 한다는 것은 인간들의 술수요 마귀의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다.

- **강신술(降神術)로 미혹할 것임** – 성경에서 ‘불’은 종종 성령을 상징하는 말로 쓰여진다(마 3:11; 행 2:3). 강신술이란 신(神)을 끌어내린다는 말로, 주로 영매들이 사단의 영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죽은 자들이 생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아 맞추기 때문에 사단의 정체를 알지 못하면 반드시 그 속임수에 빠지게 되어 있다.

- **현대 강신술의 시작** – 현대 강신술은 미국에서 1848년에 뉴욕 하이데스빌에 있는 존 D. 폭스의 가정을 통하여 시작된 후 거대한 세계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최근에 강신술은 서양과 동양의 신비주의가 혼합된 새 시대 운동을 통하여 미국에서 대중화되었다. 그것은 지난 20~30년 동안에 미국에서 크게 발전되었다. 최근에 영매가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도관이라고 주장하는 ‘영통’을 강조한다. 미국의 유력한 정치가들과 연예인들이 강신술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간주되고 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첫 기자회견(2008. 11. 8.)에서 “나는 백악관에서 낸시 레이건 여사처럼 점성술에 빠지고 싶지는 않다”고 언급하므로 백악관도 강신술에 연루된 과거가 있음을 실토했다. 오바마의 이 같은 언급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도널드 리건이 1988년에 펴낸 낸시 레이건 여사가 대통령의 중요한 일정을 결정하기에 앞서 점성술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소개했다는 내용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백악관에서 강신술과 관련된 모임이 종종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강신술과 영통(靈通)은 이 시대의 완벽한 속임수이다. 이와 같은 것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이 나라에서 성경에 대한 무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정통 그리스도교와 영통은 공존할 수 없다”〈특별보고서, 종교소식/ Special Report, Religious News Service, August 24, 1987. p.9〉.

●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강신술** – 이 강신술은 심령과학, 뉴에이지, 요가, 점성술, 초능력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되어 인간 사회에 파고 든다. 미국에는 지금 정치가, 연예인, 경제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강신술에 연루되어 있다. 미국 정치의 핵심인 백악관도 이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의문 가득찬 유령선’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점성술사의 지도를 받으며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기도 했다.

● **강신술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 강신술은 영혼불멸설에 기초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그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사람들을 속인다. 강신술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배하게 될 마지막 시대에 그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사상을 지워버려야 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영혼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과에서 다룰 것이다.

● **강신술은 종말의 징조임** – “개신교가 깊은 구렁텅이를 건너 로마교

회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또 그 큰 구렁텅이를 넘어서 강 신술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세 연합 세력 아래 이 나라[미국]가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모든 헌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로마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에, 우리는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5T, 451).

2)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힘을 준다

[계 13:14] “저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교황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서 ‘짐승을 위한 우상’은 로마교회의 교황권이 추진하는 일을 돕게 될 미국내의 어떤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다.

● **우상이란 무엇인가** – 이해가 쉽지 않은 이 ‘우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이다. ‘에이콘’이라는 말은 “비슷한 것” “상(像)”이라는 뜻이 있다. 종합하면 “비슷한 모양” 혹은 “분신”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복사품을 말한다. 계시록 13장

의 복합집승(교황권)은 교회와 정치적 세력이 결합된 박해 세력으로 예언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집승의 우상은 국가 정부와 결탁된, 그리고 국가 정부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아 교황권의 일을 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하여 조직된 종교적 체제가 될 것이다.

● **집승을 위한 우상** – 교황권과 같은 정신을 가지고 로마교회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지원하고 실제적인 행동을 행사하게 될 조직체를 말하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 정치적 배경과 정치적 정신을 가지고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기독교 단체들을 ‘집승을 위한 우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집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각 시대의 대쟁투, 445).

●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 – 미국에는 현재 기독교 단체로서 정치력을 행사하며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다. 기독교 교회 연합(Christian Church Together), 신앙과 가치관 연합(The Faith and Values Coalition), 미국의 가치관(American Values), 미국 회복 운동(Take Back America), 천주교 협의회(Catholic League), 기독교 연합(Christian Coalition) 등과 같은 종교 단체들이 주로 추진하는 일은 기독교의 힘을 모아 선거에 간여하고 정치적 투쟁을 하면서 정부의 힘을 빌려 기독교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 점점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정치력을 발휘하여 종교적 목적들을 성취할

것이다. 이러한 단체들이 정치적 힘을 확보하려고 하는 목적 중의 하나는 미국의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3)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 받게 한다

[계 13:16]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 **오른손과 이마** – 물론 상징적인 말이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뜻이다.

- ① **오른손**: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강요에 의해 그 법을 따르게 되는 것
- ② **이 마**: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교황권에 충성하며 경배하는 행위”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짐승에게 경배”(계 13:8)하도록 하여 자신의 종으로 삼을 것이다.

● **매매 금지** –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계 13:17) 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누차 언급했듯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교황의 권위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장차 교황의 권위를 거역하거나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상거래를 자유롭

게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고, 상거래를 정상적으로 못하게 된다는 것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 **교황권과 경제** - 교황권은 과연 세계 경제를 제재하거나 어떤 강압적인 조치를 할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교황권이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노력해 온 분야 중의 하나는 경제 분야이다. 교황권은 세계 은행들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만일 당신에게 교황청(바티칸)의 주요 사업을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하겠는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집필한 <세계의 진실(World Fact Book)>에 의하면 바티칸의 주 산업은 ‘세계적인 은행 금융활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Dr. Larry Bates, The New Economic Disorder, 51, 52>.

“UN의 세계 연감은 바티칸이 수십 억 달러에 달하는 금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는 바티칸이 누리고 있는 부의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바티칸이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영국의 5대기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거기에 부동산 및 토지, 증권, 해외 주식을 합하면 가톨릭의 부(富)란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는 양에 달한다.” <마이클 드 섬리언, 모든 길은 로마로 (서울: 말씀보존학회), p.102>

교황의 경제력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교황은 세계의 경제에 대하여 깊은 간여를 하고 있다. 지난 2009

년 7월 이탈리아 아퀼라에서 있었던 G8 경제 회담을 앞두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매우 강력한 어조로 자본주의 경제의 실패를 언급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7일(현지시간) 금융위기에 따른 자본주의의 실패를 힐난하며 경제 윤리 회복을 감독할 수 있는 범정부 기구(True world political authority) 설립을 강력히 요청했다.”(머니투데이 2009. 7. 8). 이 말의 내용은 실패한 자본주의의 경제 체제를 바티칸이 새로운 질서로 다스려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 **새 세계 질서와 교황권** –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제 분야일 것이다. 오늘날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구축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언젠가 그 날이 오면 교황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자들에게 매우 실제적이고 가혹한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 예상된다. 그 시대가 오면 교황에게 굴복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끝까지 복종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① **용어의 문제** – ‘짐승의 표’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어떤 표시를 말하는 것이다.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계 13:17) 한다는 것은, 그 짐승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는 생존하기가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집승의 권세에 굴복하는 표시** – 집승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세에 굴복한다는 표시가 무엇인가?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교황권]과 동일한 세력인 다니엘 7장의 ‘작은 뿔’이 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때와 법을 변개한 것이다. 십계명에 명시된 하나님의 때[안식일]를 일요일로 대체하고, 그 법[십계명]을 변경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③ **일요일 예배는 교황권의 권위 상징** –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칠일 안식일을 폐하고 첫째날 일요일 예배를 제정한 것은 하나님 대신 인간의 권위를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표시이다. 로마교회는 전 세계가 일요일에 예배하거나 휴무하는 것을 로마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으로 본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회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로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세계가 거룩한 천주교회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신부서한집, 1893. 6. 1〉.

“일요일은 우리의 표시 혹은 권위이다. … 교회는 성경 위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를 일요일로 변경한 것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Sunday is our MARK or authority, … the church is above the Bible, and this transference of Sabbath observance is proof of that fact.”

〈Catholic Record of London, Ontario Sept 1, 1923.〉

가톨릭이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가장 큰 배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돌비에 새겨서 사람들에게 내려주신 것이다. 결코 변경될 수 없는 법이다. 교회와 교황의 권위로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며, 교황은 이것을 교회의 권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칠일 안식일 대신 교황이 변경해 놓은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 대신 교황의 권위에 굴복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십계명(출 20:3~16)	천주교의 십계명(천주교 교리문답)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네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하나이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여 모시고 2.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명세를 발하지 말고 3. 주일을 지키고 4. 부모를 호도하여 공경하고 5. 사람을 죽이지 말고 6. 사음을 행치 말고 7. 도적질을 말고 8. 망령된 증참을 말고 9.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10. 남의 재물을 탐치 말라.

④ 일요일 예배(휴업)가 **강요될** 것임 - 조만간 이 일요일 휴업이 강제 법령으로 제정되어 강요될 때가 올 것이다.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급증하는 범죄와 세계적 경제 공황의 위기, 각종 천재지변 그리고 종교계의 거짓 이적 현상들의 원인을 종교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여 범세계적으로 모종의 강력한 종교적 행동을 촉구하는 일을 감행할 것이다.

⑤ **일요일 강제 휴업법을 통해 세계 평화 추구** - 일요일을 공통적으로 지키는 모든 교회들은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일요 동맹 운동을 통해 세계 평화와 복음화를 위한다는 미명하에 하나가 되어 대대적인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저들에게는 일요일 준수법이야말로 우리가 당면한 굵직한 난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전 세계 기독교를 단합시킬 수 있는 매우 적절한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며 세력행사를 개시할 것이다.

⑥ **주일 성수에 대한 교황 교서** - 1998년 5월 3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그의 취임 20주년을 맞이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장문의 사도 서신을 발표했다. 전체 내용은 일요일의 신성성을 강조하며 일요일 성수를 촉구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이다.

“일요일 휴식을 통하여, 사람들은 매일의 관심사와 의무들에 적당한 균형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늘 고심하는 물질적인 사물들은 영적인 가치들로 전환될 것이며, 그리하면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자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 성수의 의무라는 측면에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위해 투쟁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그들은 일요일의 신성함과 결코 양립될 수 없는 노동과 활동을 그만두고, 영과 육의 즐거움을 얻고 필요한 휴식을 누리며, 성체성사에 참여하기 위해 일요일의 휴식을 해결하도록 그들의 양심의 명령에 따를 것이다”(67번 중에서).

⑦ **일요일 준수**가 **짐승의 표**로 **됨** - 지금은 일요일을 짐승의 표라고 할 수 없다. “로마 가톨릭 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교회 안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들 중 아무도 그들이 빛을 받아 넷째 계명의 의무를 깨달을 때까지는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선고가 내려지며 또한 셋째 천사의 큰 외침(계시록 14:9~11)이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도록 경고할 때에 거짓과 참 것 사이에는 명확한 선이 그어질 것이다. 이때에 계속해서 범죄의 길을 가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전도법, 234, 235).

10. 666이란 무엇인가?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져 있는 이 666이라는 숫자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문제이다. 그러면 먼저 그 해당 성경절을 살펴 보자.

[계 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육백육십육** 이니라.”

조금은 난해하게 번역된 이 성경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이것이 먼저 나온 ‘짐승의 수’라는 것이고 또 그것은 ‘사람의 수’라는 것이다. 이 수(666)에 해석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를 결정적으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크게 분류하면 실제수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상징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수로 해석하든지 상징수로 해석하든지 적용하는 대상은 같다.

1) 실제수로 해석할 경우

▶ **사람의 수** - 먼저 666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수'라는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성경에서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타나는데, 그것은 상징적으로 완전수로 사용된다. 7에서 1이 부족한 6은 불완전수로 알려져 있다. 불완전수 6이 세 개 겹쳐서 666이 되면 이것은 영원한 불완전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하다. 그런데 666이라는 숫자는, 믿고 신뢰할 수 없는 불완전한 인간을 나타내는 숫자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수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옛날 이교의 대체사장들이 점을 칠 때 사용하는 점성술 도표를 보면 그 숫자의 합이 정확하게 666으로 나오도록 배열되어 있다. 여기에서 666은 상징적인 숫자라기보다는 여러 수를 합한 실제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666이란 우선 완전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완전한 인간의 수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6	32	3	34	35	1	111
7	11	27	28	8	30	111
19	14	16	15	23	24	111
18	20	22	21	17	13	111
25	29	10	9	26	12	111
36	5	33	4	2	31	111
111	111	111	111	111	111	666

▶ **사람의 이름의 수** - 666을 나타내는 중심 성경절 계시록 13장 18절을, 쉬운 말로 번역된 현대어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여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이 숫자의 뜻을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 보십시오. 이 짐승의 이름을 숫

자로 표시하면 666이 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권세를 상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계시록의 두 짐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주인공은 첫째 짐승[교황권]이었고, 양같이 생긴 둘째 짐승[미국]은 그 주인공의 역할을 돕는 세력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 첫째 짐승이 누구인지 최종 확인하는 단서로 그 이름의 수가 666이라고 주어졌다. 이 666은 아무 사람에게나 붙여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계시록 13장 첫째 짐승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동시에 이름의 수가 666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666이라는 것을 컴퓨터 바코드나 다른 인물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대단히 큰 누를 범하는 것이다.

▶ **교황의 특별한 이름** - 위의 성경절대로 그 짐승 곧 교황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666이 된다고 하였으니 교황의 공식적인 명칭을 찾아서 수치로 환산하면 666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첫째 짐승에 적용시켜 온 교황의 이름의 수가 과연 666이 되는가? 교황에게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이름을 여기에 적용할 것인지는 쉽지 않는 문제이다. 그러나 교황이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큰 영어 사전에서 ‘비커’(vicar)를 찾아보면 ‘더 비커 어브 크라이스트’(the Vicar of Christ)라는 부가적



인 설명과 함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뜻으로 교황을 일컫는다고 되어 있다. 이 이름의 공식적인 표기는 라틴어로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VICARIUS FILII DEI)다. 어떤 이는 삼층으로 된 교황의 왕관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없다고 하기도 한다. 천주교 문서 ‘우리의 일요일 방문자’(Our Sunday Visitor, 1915. 4. 18.)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What are the letters supposed in the Pope’s crown, and what do they signify, if anything? The letters inscribed in the Pope’s mitre are these : Vicarius Filii Dei which is the Latin for Vicar of the son of God.”

이 문장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교황의 관에 있는 글자는 무엇이며,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교황의 관에 새겨진 글자는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이며 라틴어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뜻이다.”

▶ **이름의 수 666** – 기묘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름의 라틴어 표기[VICARIUS FILII DEI]를 수치로 나타내면 666이 된다. 이름

을 어떻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가? 문자를 수치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규칙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웹스터 사전 참조).

▶ **교황의 이름의 수가 666로 확인됨** -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로마교회를 대표하는 교황의 이름의 수가 666임이 확인되었다. 장차 교황권은 세계를 지배하려는 그의 전략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방해요소가 될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굴복시키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게 될 것이 예상된다.

2) 상징수로 해석할 경우

[계시록 13:18]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육백육십육 이니라”

수치	문자	수치	문자	수치	문자
1	I	8	VIII	60	LX
2	II	9	IX	70	LXX
3	III	10	X	80	LXXX
4	IV	20	XX	90	XC
5	V	30	XXX	100	C
6	VI	40	XL	500	D
7	VII	50	L	1000	M

이름 문자	V	I	C	A	R	T	U	S	F	I	L	I	D	E	계		
수치	5	1	100	×	×	1	5	×	×	1	50	1	1	500	×	1	666

▶ **성경의 상징수들** - 성경에는 여러 가지의 상징적인 숫자들이 있다. 어떤 경우는 실제수이면서 상징성을 갖기도 한다. 예수의 12제자,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실제적인 숫자이면서도 ‘조직수’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7은 완전수 혹은 하나님의 수이다. 7이 세 개가 겹쳐서 777이 되면 ‘하나님의 승리’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를 의미한다. 7에서 1이 모자라

는 6은 불완전 수 혹은 사탄의 수, 사람의 수 이다. 6이 세 개가 겹쳐서 666이 되면 ‘사탄의 승리’ ‘세속적 세력의 승리’를 뜻한다.

▶ **666의 상징성** – 위의 성경절(계 13:18)의 문맥을 보면 [짐승의 수=사람의 수=666]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여기에서 짐승은 하나님(7)을 대적하는 인간(6)의 세력을 대표한다. 그리고 그 세력은 교황권이며 첫 번째 짐승이다. 그가 잠시 세속의 권한을 행사하여 승리(666)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777)하고 영원한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 **결론** – 666을 실제수로 만들어 적용하든지 상징적으로 적용하든지 그것은 첫 번째 짐승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배도하고 타락한 인본주의 신앙을 주도하는 로마 교회 조직체 혹은 교황권을 가리키는 것이다. 초기 개혁자들은 대부분은 다니엘 7장(작은 뿔)과 계시록 13장(복합짐승)에 나오는 동일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교황권에 적용하고 있다. 말틴 루터도 물론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하였으며 존 칼빈이나 존 낙스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 그는 적그리스도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라는 사실을 부인한다.” 〈John Calvin Tracts, vol. 1, p. 219,220〉.

다음은 존 낙스의 말이다.

“수 세대에 걸쳐서 교회 위에 군림해 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 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The Zurich Letter, p. 199〉

● **가인과 아벨의 싸움** – 성경에 나타난 선악의 싸움이란 원래 교회와 세상 권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다르게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다. 아담 이래 최초의 선악의 싸움으로 기록된 가인과 아벨의 싸움은 종교전쟁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사드리는 아벨과, 자기의 생각을 섞어서 하나님을 믿는 가인이 싸웠고, 마침내 가인은 아우 아벨을 죽였다. 역사의 마지막 싸움도 그릇된 종교의 세력이 하나님의 순수한 참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진리가 승리하는 법이다. 처음에는 선의 세력이 시련을 당할 것이나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다음의 성경절을 다시 한 번 음미해 보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계 13:8-10).

삶에 적용하기

성경을 공부한 후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세요.

표현하기

- ☞ 선악 간의 대쟁투가 가장 격렬할 이때에 하나님 편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표현하여 함께 나누자.

묵상하기

- ☞ 마지막 시대는 선악 간의 대쟁투가 가장 격렬한 때다. 사단이 그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고 최후의 투쟁을 전개할 때다.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그것은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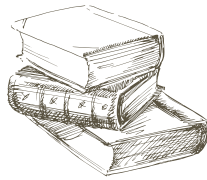
도전하기

- ☞ 하늘 향해 좁은 길을 가는 순례자로서 잘못된 선택으로 죽음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에 충성하기도 결심하자.

Part 2 요한계시록 연구

Lesson 08

영혼불멸설과 강신술



'영혼불멸설'이란 무엇인가?

영혼불멸 사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영혼불멸설이 어떻게 체계적인 논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영혼불멸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교리로 만들어졌는가?

영혼이 불멸다는 것처럼 되어 있는 성경절의 원뜻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 성경에는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란 말은 무엇인가?

악인들이 불에 영원히 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부활과 영혼불멸은 공존할 수 있는 교리인가?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과 멸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각 모아보기

프랑스의 한 청년이 레지스탕스로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자기가 얼마나 억울한가 자기 변호를 열심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언도를 받게 되자 감방에 돌아와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가 같은 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울며 호소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시다.”

그 감방에는 진짜 레지스탕스가 있었는데, 그 하소연을 들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국이 이렇게 어려운데 아무 일도 안 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고 역사적인 사건 속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일할 것을 원하신다. 적은 능력으로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 능력을 키워 주신다.

현대 선교의 문을 연 윌리엄 캐리는 이렇다 할 학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즉시 순종했다.

마음 준비하기

- 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의 장례식에서 유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로의 말은 무엇인가?
- ② 주께서 재림하시는 부활의 아침을 생각할 때 가장 기대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배경 이해하기

이 세상에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사망의 슬픔보다 더한 슬픔이 어디 있겠는가? 죽음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가리지 않고 언젠가는 이르고 만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누구나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사후 문제는 모든 종교가 중요하게 취급하는 교리의 요점이며, 철학이나 과학도 이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그러나 인간은 아직도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지 못했다. 그러면 인간이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사후의 형편을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사후의 형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은 아닐까? 죽은 후에야 어떻게 된들 상관없다고 대단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죽은 후의 형편을 아는 것이 생존할 동안의 생활 태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1. '영혼불멸설'이란 무엇인가?

▶ **영혼불멸의 의미** - 사람의 몸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며, 육체의 죽음 후에도 **영혼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 **일반 개신교인들의 신앙** -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그들의 육체까지 완전한 구원을 얻을 날을 기다린다. 이와는 달리 예수를 믿지 않고 거역한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져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최후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대한예수교 장로교 총회, 교리교육 지침서, 1994년판, 359).

2. 영혼불멸 사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유지되었는가?

▶ 에덴동산의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7).



▶ 선악과에 대한 사단의 거짓말 -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4, 5).

▶ **선악과를 먹을 경우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	사단의 주장
"정녕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 **사단의 거짓말이 드러남** –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결국 죽었고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단의 말은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사단은 이 거짓말을 감추기 위하여, 몸은 죽었지만 영혼은 죽지 않았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도록 하였으며, 사단 자신이 죽은 자의 영혼 행세를 하며 인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 **사단의 속임수를 유지, 유포시켜 나간 대리자들** – 사단의 이러한 속임수를 사람들에게 유포시키며, 사단과 사람 사이에서 심부름꾼 노릇을 하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성경신 18:10, 11)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① 아들이나 딸을 볼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 ② 복술자 ③ 길흉을 말하는 자 ④ 요술을 하는 자 ⑤ 무당 ⑥ 진언자 ⑦ 신접자 ⑧ 박수 ⑨ 초혼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림** –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신접한 여인은 결국 사무엘을 불러내었고 사울과 사무엘은 대화를 나눈다. 이 신접한 여인에게 불러나온 유령은 사무엘이 아니라 변장한 사단이었다.

▶ **사단의 위장과 속임수** - 사단은 인간 역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마치 죽은 자의 혼이 살아 있는 것처럼 역사해 온 것이다.

3. 영혼불멸설이 어떻게 체계적인 논리로 자리를 잡게 되었는가?

1) 이집트의 영혼불멸 사상

● 이와 같은 사단의 거대한 속임수로 인해 영혼불멸 사상은 인간 사회와 인류 역사에 매우 깊이 자리를 잡게 되었으며,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영혼불멸 사상을 대단히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다.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무수한 미이 را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하나의 미이라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 사단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2) 헬라의 철학 사상

● **피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 - 영혼불멸에 기초하여 윤회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기원전 6세기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였다. 기원

전 5세기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집트를 방문하며 영혼불멸 사상을 더욱 깊이 확인하게 되었고 그것을 자신의 신앙으로 만들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죽음이라고 보았다”(그리스도교 대사전, 대한 기독교 서회, 1118면).

- **플라톤이 영혼불멸 사상을 이론으로 정리함** – 죽음 직전에 처한 소크라테스가 보여준 침착성은 영혼불멸 신앙과 관련이 있다. 이에 깊은 영향을 받은 그의 수제자 플라톤은 마침내 영혼불멸 사상의 가장 열렬한 주창자가 되었으며, 그의 논집(論集)인 [파에돈]은 영혼불멸 사상의 교과서가 되었다.

-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 – “철학자의 영혼은 사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갈 것이며, 신들과 더불어 축복 가운데 살 것이다. 그러나 육체를 사랑하던 사람의 영혼은 묘지를 왕래하는 귀신이 되어 이리나 독수리와 같은 신체 속에 들어갈 것이다. 참다운 철학자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서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악한 영혼은 지옥에, 그리고 중간적인 영혼은 연옥에 간다고 결론짓는다”(상동).

4. 영혼불멸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의 교리로 만들어졌는가?

- ▶ 플라톤(Plato, BC427~BC347) – 영혼불멸 사상을 체계화 시켜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해 놓았다.

▶ **필론(Philo, BC20~AD47)** –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철학자로서, 몸과 영혼을 분리시킨 플라톤의 헬라 사상을 신플라톤주의 형태로 유대교에 끌어들이는 데 앞장 섰다.

▶ **오리게네스(Origen, 약 185~254)** – 알렉산드리아 신학교에서 교장을 지낸 3세기 초의 천재적인 교사로서, 그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고 불멸인 것처럼 인간의 영혼도 불멸이라고 했으며, 자신은 영혼불멸을 믿는 진정한 신플라톤주의자라고 자처하였다.

▶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 약 160~240)**
– 플라톤과 같은 영혼불멸을 주장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악인의 영혼은 지옥불에서 영원히 탄다고 하는 영원지옥(永遠地獄)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다.



▶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e, 354~430)** – 북아프리카 히포 출신으로 당대의 최대 신학 교부였다. 그의 가르침은 중세 가톨릭 교리의 기초가 되었다.

그는 플라톤의 영혼불멸 사상과 터툴리안의 영원 지옥설을 확증하는 한편, 플라톤의 철학 개념을 빌려 연옥설을 만들어 냈으며, 대교황 그레고리는 서기 528년 그것을 교리로 인정하여 드디어 성경에도 없는 연옥 교리가 생겨난 것이다.

▶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1274) –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여 확인된 영혼불멸 사상과 영원지옥, 그리고 연옥의 신앙은 13세기 스콜라 철학자요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중세 가톨릭 교회의 확고한 교리로 집대성되었다.

▶ 단테(Dante Alighieri, 1265~1321) – 신곡(神曲)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영혼불멸 사상에 입각한 지옥, 연옥, 천국을 민속신앙으로 소개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 영혼불멸 사상이 교리화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이 이교 철학 사상으로 전해지던 영혼불멸 신앙이 그리스도교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자 1513년 교황 레오 10세는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교서를 반포하기에 이르렀다.

“어떤 사람들이 이성적인 영혼의 속성에 관하여 그것이 죽음과 더불어 죽게 된다고 감히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는 거룩한 공회의 동의로써, 영혼은…불멸이라고 한 교황 클레멘트 5세의 종규에 따라, 지성적인 영혼은 죽게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배척하며, 이와 같은 그릇된 주장에 집착하는 모든 사람을 멀리 할 것과 이단으로 징벌하여야 할 것임을 명하는 바이다”(H. J. Schroeder, *Disciplinary Decrees of the General Council*, 1937, 483, 487).

5. 영혼이 불멸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성경절의 원뜻은 무엇인가?

▶ **종교개혁 시대 이후의 번역** - 이미 설명한 대로 성경의 원어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이다. 모든 성경은 번역에서 번역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의 번역 사업은 주로 종교 개혁 시대 이후로 크게 발전되었는데, 1,000년 이상 가톨릭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번역자들의 사상 문제** - 성경 번역자들은 대체로 이미 중세교회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영혼불멸 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원어를 취급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기존 개념, 즉 영혼은 불멸한다는 사상에 기초하여 용어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성경을 번역할 때에는 현재 사용되는 교회의 관습이나 용어보다는 성경 원문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마땅히 “침례”라고 번역해야 하는 부분을 여전히 “세례”로 사용하는 것도 그 하나의 사례이다.

▶ ‘영혼’에 대한 한국어 번역의 오역(誤譯) 사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마 10:28)

● 마태복음 10장은 주로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핍박에 대한 말씀이다. 핍박자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할 수는 있으나, 신

양심은 빼앗을 수 없다.

- 그렇다면, 위의 말씀에서 ‘영혼[푸쉬케]’이라는 말은 ‘마음’ 혹은 ‘정신’으로 번역되어야 타당하다. 사도행전 14장 2절에서는 ‘푸쉬케’라는 말을 ‘마음’으로 번역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마 27:50)

- 예수께서 돌아가시는 이 장면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을 ‘영혼’이 떠났다는 말로 표현했으나, 이것은 원문과는 맞지 않는 번역이다.
- 이 성경절에서 ‘영혼’이라고 번역된 낱말의 원어는 ‘프뉴마’로서 ‘숨’이나 ‘바람’이라는 뜻이다.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숨을 거두셨다”로 올바르게 번역해 놓았다.

▶ 영혼[영]으로 사용되는 신구약의 원어들 및 의미

낱 말	“영 혼”	“영”
구 약 [히]	네페쉬	루 약
신 약 [헬]	푸쉬케	프뉴마
사전의 뜻	숨, 생명, 감정, 욕구	숨, 생명력, 영, 바람
종합 의미	개체, 개인	생명의 기운

6.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

[창 2:7]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

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 **사람 창조** –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든 재료는 흙과 생기이다. 인간의 창조 과정에서 영혼은 어디에도 개입될 여지가 없다. 원어를 근거로 하여 인간의 이러한 창조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사람의 구성요소에는 영혼이 개입되지 않음** – 창세기 2장 7절에 의하면 인간은 ‘땅 표면의 먼지(아파르 민 하아다마)[흙]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형성된 ‘생명체(네페쉬 하야)’가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인간의 본질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한 히브리 사상은 영혼을 육체보다 더 가치있는 것으로 보거나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보는 이분법적 요소가 전혀 없다. 인간을 영혼과 육체의 결합으로 보는 견해는 구약 성서의 구속사적(救贖史的) 문맥과는 전혀 조화가 되지 않는다.

● **사람에 대한 헬라의 사고 방식과 히브리 사고 방식의 차이**

구분	히브리 사상	헬라 사상
근원	성경적 진리	철학적 추측
구성	흙, 생기	육체, 영혼
죽음	생기가 나가면 흙	육체에서 영혼 분리
생명	하나님께 귀속	불명의 요소 있음

▶ **창세기에 설명된 인간의 구성** - 하나님께서는 흙의 성분을 취하여 사람을 구성하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산 사람)이 된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구분	결합 요소		결과
창조 원리	흙	생기	생명(산 사람)
비유	전구	전기	전깃불

● 위의 비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깃불에서 전기를 제거하면 전구만 남듯이 산 사람에게서 생기[숨]를 거두어 버리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창 3:19]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7. 성경에는 죽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상태

● **모든 계획이 끝남** -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시 146:4). 현대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다. “죽고 나면 먼지로 돌아가 그날로 그들이 세워 두었던 계획은 끝장 나고야 만다.”

● **죽으면 모든 것이 소멸됨** -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즉 그가 어디 있느냐”(욥 14:10).

- **죽으면 아무것도 모름** –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전 9:5).

- **죽은 자는 찬양하지 못함** –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시 115:17).



- **음부에서는 아무것도 없음** – “무릇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전 9:10).

- **범죄하는 영혼은 죽음** –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겔 18:4).

▶ **죽음에 대한 성경상의 표현**

- [고전 15: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 [막 5:39]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흰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 [고전 11:30]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 [엡 5: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취시리라 하셨느니라.”

8.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란 말은 무엇인가?

▶ 세 종류의 지옥 – 성경에는 세 종류의 지옥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죽으면 세 장소 중 어느 한 곳으로 간다는 말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첫째, 구약성경의 [스올]과 신약성경의 [하데스] – 구약의 ‘스올’과 신약의 ‘하데스’는 동일한 곳이다(시 16:10과 행 2:27 비교). 이곳은 선인이나 악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는 장소인 [무덤]을 가리킨다.

- 둘째, [타르타루스] – 이 말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단 한번 사용되었는데 한글말 성경에는 “지옥”으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지옥이라는 장소에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

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타르타루스는 “어두운 구덩이”(a dark abyss)를 뜻하는데 유다서 1장 6절에서도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었다고 하였다. 타르타루스는 범죄한 천사들이 쫓겨난 곳, 바로 범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 셋째, [게헨나] – 신약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낱말로 가장 많이 번역된 ‘게헨나’라고 하는 말은 12회 나타난다. 다음의 성경절을 보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 9:43, 48).

스울(하데스)	타르타루스	게헨나
무덤	이 세상	지옥의 상징 용어

▶ ‘게헨나’가 왜 지옥이 되었는가?

- 게헨나의 의미 – 여기에 기록된 ‘지옥’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게헨나’이다. 히브리어로는 ‘골짜기’를 뜻하는 ‘게’와 사람 이름인 ‘힌놈’이 합성되어 ‘게힌놈’이라고 쓰고 있으며, 의미는 “힌놈의 골짜기”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하 어느 곳의 불타는 지옥으로 상상하고 있는 이 ‘게헨나[힌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 비탈에 있는 계곡의 이름이다. 현재는 거의 평지와 같다.

● **힌놈의 골짜기가 지옥으로 묘사된 이유**

① 이스라엘의 배도와 타락이 극도에 달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힌놈의 골짜기’에서 이방신에게 분향하고 몰렉신에게 자식들을 불살라 제사드리며 온갖 추악한 일을 자행하였다(대하 28:1-3; 33:1-6; 왕하 23:10).

②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골짜기는 처형당한 죄수들의 시체와 죽은 짐승들의 사체를 버리고 온갖 오물을 버리는 장소가 되어 그 쓰레기를 불태우는 연기가 밤낮 타오르고 있었으며, 구더기와 온갖 벌레들이 서식하고 악취가 풍기는 불쾌한 곳이 되었다.

③ 이러한 배경 때문에 “힌놈의 골짜기” 곧 ‘게헨나’는 장차 그리스도를 거절한 악인들이 최후의 형벌을 받아 유황불로 멸망당할 곳을 상징하는 장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지옥을 묘사할 때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가 있다는 표현이 나오게 된 것이다.

▶ **성경이 말하는 지옥** – 성경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지하 어디에 선가 영원히 타고 있는 불못이 아니라, 이 지상에서 악인들이 멸망당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계 20:9, 10).

9. 악인들이 불에 영원히 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막 9:43]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 낱말의 의미

● 이러한 낱말들의 다양한 의미와 사용된 경우 – 모두 헬라어 “아이온”에서 유래한 “아이오니오스”(αιωνιο S)인데 “아이온”의 본래 의미는 “시대” 라는 뜻이다.

① 다양한 의미들 – 연루된 의미로는 “영원”, 함축적으로는 “세상”, 유대적으로는 “메시아 시대” 등 여러 의미로 번역된다.

성경절	마 18:8	마 25:41	계 20:10
사용된 낱말	“영원한 불”	“영원한 불”	“세세토록”

② 적용하는 대상에 따른 의미들

하나님	사람	의인	악인
“영원”	“일생”	“영생”	“영멸”

● 지옥에 사용될 경우 – 지옥을 묘사할 때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 타오르고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불타는 시간의 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타서 멸망당한 결과가 영원함을 뜻하는 것이다.

● **소돔과 고모라의 영원한 불** –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 1:7). 그 불이 문자적으로 ‘영원한 불’이라면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곳에 지금도 불이 타오르고 있어야 마땅하다. 장차 악인을 멸망시킬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이란, 불타는 시간의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끌 수 없는 불, 불타서 멸망당한 결과의 영원성을 묘사하는 표현이다.

● **악인들이 받을 영원한 형벌의 의미** –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마 25:46).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악인들에 대한 영원한 벌(징벌)은 ‘사망’이다. 악인들이 영원히 고통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품성에 비추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악인이 불과 100년도 못 되는 생애 동안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그에 대한 댓가로 영원한 세월 동안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고, 시편 37편 20절에는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 되어 없어지리로다”고 하였으며, 시편 37편 10절에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고 하였다.

10. 부활과 영혼불멸은 공존할 수 있는 교리인가?

▶ **순교자 틴데일의 말** – 옥스포드와 케임브리지 출신의 탁월한 언어학

자요,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개혁자로서 헬라어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후에 순교당한 틴데일(W. Tyndale, 1490~1536)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들을 천국이나 지옥, 연옥에 둬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 참된 믿음은 **부활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것을 매시간 바라보도록 깨우치고 있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교리와 철학자들의 인간적인 교리를 함께 결합시켜 놓았으나, 이것들은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일치할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 한 사람 안에서 성령과 육신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다. … 내게 다시 말해 보라. 만약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면 그들이 왜 천사들의 경우와 같지 못한가? 그런 뒤에 새삼스럽게 부활이 있어야 할 까닭이 무엇인가?”(윌리엄 틴데일, 토마스 모어경의 대화에 보내는 답변, 제4권, 2장, 180, 181).

▶ **영혼불멸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 – 최근 영원 지옥설에 부정적 견해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1993년 11월 15일자 타임(TIME)지와 인터뷰에서 불타는 영원 지옥설을 부정하였다. 영국 성공회도 그간의 지옥 개념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영국 성공회의 주장** – “지옥을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고통과 징벌의 불구덩이’로 묘사한 기독교의 전통적 견해는 잘못된 것이며 지옥은

다만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총체적 부정과 무(無)의 상태’이다. … ‘가학적으로 표현된’ 전통적 지옥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상흔을 남겼으며, 신을 학대를 즐기는 괴물로 만들었다” (동아일보, 1996. 1. 13.).

▶ **성경의 부활과 영혼불멸을 동시에 믿을 수 없다**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 11:25, 26).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늘에서 살다가 예수 재림 시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 무덤 속의 시체들과 결합한다는 것은 이치상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부활을 믿는다면 영혼불멸 사상은 버려야 한다.

11. 그렇다면 인간의 구원과 멸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지금까지 영혼불멸설에 대한 성서적 그리고 역사적 증언들과 함께 영혼, 죽은 자의 상태, 지옥, 영원한 불 등을 살펴 보았다. 이제 이 중요한 주제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그분의 품성인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야 함**

심판과 지옥 그리고 형벌을 말할 때에는 정의와 사랑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의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 팔십 혹은 구십 세를 살면서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에 타면서 괴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 의인과 악인에 대한 보상과 형벌이 공의로우신가?
-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십자가의 희생은 악인과 의인에게 공평한가?
- 그분의 심판은 우주 앞에서 공의로우신가?

▶ **구속의 경륜** - 인생들은 아담 범죄 후 죄로 인해 반드시 죽게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심으로 값으로 산 바 되었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은혜와 천사의 돌보심으로 이 땅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간다. 육체가 불멸을 입은 것이 아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불멸의 육체로 변화시켜 주시고 천국에 거처를 마련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변화된 몸으로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

▶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인간의 반응** -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이나 부인한 사람들은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첫째 부류 :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자.

- 둘째 부류 : 예수님의 희생을 거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
- 셋째 부류 :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의 얼굴을 대면할 자.
- 넷째 부류 : 예수님의 희생을 거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얼굴을 피하고 숨는 자.

이 세상에는 오직 이 네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대한 상벌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공정하게 처리하실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 성경은 심판이 진행되는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첫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생을 얻었다. 죽은 후 혼이 육체를 떠나 천국에 가지 않고 육체의 변화를 위해 재림 때까지 무덤에서 잠들어 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고전 15:51, 52)

- 둘째 부류의 사람들(예수님의 희생을 거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은 주님이 오셔서 살려 내실 때까지 죽은 상태로 남아 있다(천년

기에 대하여는 뒤에 언급됨).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 29)

● 셋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예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 살다가 드디어 재림하시는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자들은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주님의 얼굴을 뵈옵지라도 곧 바로 육체가 변화되지 않는다.

먼저 예수님이 공중에서 주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신다. 그때에 수많은 성도들이 불멸의 육체로 부활한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때 곧 동일한 시간에 살아 있는 의인들이 홀연히 불멸의 육체로 변화된다. 그러므로 불멸의 육체의 변화는 어느 누구도 앞서지 않는다. 두 무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하늘로 승천한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5-17)

● 넷째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희생을 거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다가 그분의 영광으로 죽는다. 그리고 형벌이 유보된 채 죽은 상태로 있다. 그리하여 아담 이후로 죽은 모든 악인들은 천년기가 차기까지 죽은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날에 강림하시”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주의 영광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살후 1:8-10)

▶ **승천 그리고 1,000년간의 천국 생활** – 하늘로 승천한 의인들은 새 예루살렘성에 거주하며 1,000년간 “심판하는 권세를 받”(계 20:4)는다. 그들은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계 21:6) 노릇하며 악인들의 죄의 기록책을 조사하며 조사심판하게 된다(고전 6:3 참조).

▶ **예수님의 세 번째 오심** – 1,000년이 지나면 성도들은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다. 그리고 감람산 위에 안착한다(슥 14:4, 계 21:10). 그리고 주님은 죽은 악인들을 부활시키신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매”(계 21:13). 이것이 둘째 부활이다. 부활한 악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친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마지막 성전을 떠나시며 그분을 거절한 무리들

에게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마 23:39)라고 하셨다. 이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들 앞에서 대관식을 거행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고 드디어 심판자로 서신다.

▶ **최후의 심판** –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 심이로다”(시 50:6). 예수님은 손에 두 돌비를 쥐고 나타나신다. 그때 예수님의 희생의 모든 사건이 파노라마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들 앞을 지나간다. 악인들은 자신 스스로가 주님의 희생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거절하고 사랑의 율법을 범하였음을 인정한다. 그 후 예수님은 악인들의 영원한 운명을 선고한다. “그들은 그들의 소송에 대하여 탄원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죄의 값은 고상한 자립과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노예와 파멸과 사망임이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입증된다.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깨닫는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하여 그것들을 멀리하고자 했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쟁투, 668).

▶ **최후의 판결 : 대 반역죄** – 사단과 모든 악인들은 하늘 정부에 대한 대 반역이라는 죄목으로 판결을 받는다. 다시는 불복 소송이 없다.

▶ **최후의 집행 심판** - 그 후 사단은 다시 반역의 정신이 되살아난다. 그리하여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계 19:19)킨다. 그들은 예루살렘과 성도를 향하여 진격한다. 그때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 온 지구를 불사른다. 최악의 흔적을 가진 땅과 바다와 그리고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예루살렘성과 그 안의 성도들 모두 불속에 싸여 공정한 심판이 집행된다.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전 3:13-15). 불은 의인들을 삼키지 못한다.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왜냐하면 이 불은 죄를 태우는 불이다. 여호와의 불은 죄를 태우고 소멸하는 불이다.

▶ **영원한 불** -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악인은 영원히 소멸된다. 죽으면 당일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 가서 산다는 곳도, 영혼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연옥도 없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도 없다. 오직 죄를 태우는 불이 있을 뿐이다. 이 영원한 불은 죄의 찌꺼기가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꺼지지 않는 불이다. 죄를 모두 태우고 나면 그 불은 다시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그 죽음은 둘째 사망이며 혼과 몸을 분리시켜 죽음을 피해간 이론, 즉 영혼불멸설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사단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위장술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이시다.

▶ 만물을 새롭게 창조 하신다 –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일소된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언제나 생각나게 해 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은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 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쟁투, 673)

▶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심판 –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 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출 34:6-8)으시는 하나님입니다.

- 의인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얻은 것임을 감사하며 찬송을 돌린다.
-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고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구주가 되셨음을 시인하고 자신들이 받는 형벌은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을 인정한다.
- 온 우주도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인정하며 찬양한다.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계 16:7).

▶ **회복된 낙원(지구)** -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창조력의 경이, 속죄애(贖罪愛)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 한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심같이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심령 속에 심어 주신 사랑과 동정은 거기서 가장 진실하고 부드럽게 활용될 것이다. 거룩한 자들과 나누는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들과 그 옷을 어린양의 피로 씻어 희게 한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과의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 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들이다”(쟁투, 678).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례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계 21:4; 사 33:24). (쟁투, 676).

▶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原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쟁투, 678).

삶에 적용하기

성경을 공부한 후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세요.

표현하기

- ☞ 이 땅에서의 삶이란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에서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는지 나누자.

묵상하기

- ☞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것을 고대해 보자.

도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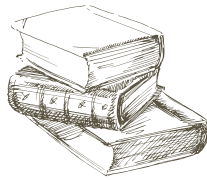
- ☞ 천국의 약속은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 만약 천국의 약속이 없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표현해 보자.

Part 2 요한계시록 연구

Lesson 09

144,000인과 하나님의 인

계 14장



계 14장에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먼저 등장하는가?

144,000인은 실제수인가? 상징수인가?

144,000인은 어떤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 세 천사의 기별이란 무엇인가?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무엇인가? /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결과적으로 선악의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44,000인과 하나님의 인

생각 모아보기

어떤 한 인부가 있었다. 이 사람은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였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담을 쌓다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먹게 되었다. 다른 동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허겁지겁 도시락을 펼치고 밥을 먹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기도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놀리기 시작한다. 심지어 공사장을 지나가던 개가 몰래 와서 기도하던 틈을 타서 그만 도시락을 훔쳐 달아나 버렸다. 사람들이 배를 잡고 웃기 시작한다. 도시락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때에 기도를 마친 이 신실한 크리스천은 조용히 일어나서 자신의 도시락을 찾기 위해서 개에게 다가갔다. 이 모습을 보고서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더 크게 웃기를 시작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그만 담장이 무너져 비웃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쌓던 담장 밑에 깔려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다.

노아도 이처럼 그 시대에 홀로 외롭게 하나님을 섬기던 의인이었다. 그러나 홍수의 심판이 전 인류를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족들만을 구원하셨다. 아무리 우리 신앙인의 삶이 외롭다고 할지라도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세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마음 준비하기

- ① 당신은 지성에 호소하는 것과 감성에 호소하는 것 중 어느 쪽에 더 쉽게 마음이 움직이는가?
- ② 나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엇을 얼마나 나눌 수 있을까?

배경 이해하기

우리가 사는 지구는 70억의 승객을 싣고 초속 29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고 있는 비행기나 마찬가지다. 식량은 지구 거민이 겨우 26일 동안 버틸 수 있다. 그러나 핵무기는 한 사람 당 15톤씩 배당이 될 만큼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방향 계기가 고장이 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다. 우리의 목적지를 알려주는 관제탑이다. 그런데 관제탑에서 나오는 음성이 여객선의 침몰

위험을 알려주면서 즉각 탈출하라고 호소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은 그런 경고와 호소를 담고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요한계시록의 구조에서 가장 중심에 있으며 따라서 가장 중요한 주제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전반부를 결론 짓고 후반부가 시작되는 중심 장이며 대쟁투의 절정이다. 14장은 멸망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다. 14장 이후부터는 일곱 재앙과 더불어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멸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부분은 모든 시련을 이기고 살아서 구원받을 성도들을 상징하는 144,000명이 하늘에 있는 시온 산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멸망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즉 세 천사의 기별이 소개되고 있다. 세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본문 연구하기

1. 계시록 14장에는 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먼저 등장하는가?

▶ 계시록 12~14장의 개요

12장	13장	14장
창세 이후로 계속되어 온 선악의 싸움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선악의 마지막 네 번째 싸움에서 악의 세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공격할 것인지를 설명한다.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전할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외쳐야 할 기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

▶ 계시록 14장의 구조

14:1~5	14:6~13	14:14~20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4,000인의 신원이 소개된다.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시키며 온 세상을 향하여 외쳐야 할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다.	곡식[의인]과 포도송이[악인]들을 분류하기 위하여 추수장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심판의 모습이 보여진다.

▶ 14장 첫 부분 -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

[계 14:1~3]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



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사만 사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 **장차 당할 고난과 시련을 견디도록 함** – 시기적으로 성도들이 천국에 가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들이 장차 당할 시련과 고통이 매우 클 것이므로, 구원받은 상태를 미리 바라보고 인내하여 승리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해야 할 기별을 힘차게 외치도록 함** – 성도들이 장차 받을 영광스러운 보상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담대하게 외치도록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함이다.

2. 144,000인은 실제수인가, 상징수인가?

- ▶ **계시록 7장에 언급된 144,000인** – 144,000인에 대한 언급은 계시록 7장에 먼저 나온다.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일만 이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 갓 지파 중에 일만 이천이요…”(계 7:4, 5)

- ▶ **144,000인의 산출 근거** –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4,000의 산출 근거는 **이스라엘 각 지파(12지파)로부터 12,000명씩** 나온 것이다.

$$12\text{지파} \times 12,000\text{명} = 144,000$$

- ▶ **144,000은 실제수인가 상징수인가** – 우선 12지파가 실제 지파인지 상징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144,000인이 마지막 시대의 참 하나

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지파는 오래 전에 그 의미가 상실된 실제 이스라엘의 지파가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야 한다. $12 \times 12,000 = 144,000$ 일 경우, 12가 상징수이면 그 뒤에 어떤 수를 곱해도 상징수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성경에 나오는 상징수들** –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징수들이 사용된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3:영원수 / 7:완전수 / 12:조직수 / 1000:총만수

이러한 상징수를 가지고 144,000을 분해하면

$[조직수(12) \times 조직수(12) \times 총만수(1000)]$ 가 된다.

▶ **144,000의 의미** – 이와 같은 상징수를 가지고 144,000의 의미를 정의해 보면, 선악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악을 대항하여 싸우며 온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조직된 군사들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144,000인은 어떤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인’은 무엇인가?

▶ **144,000인은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다** –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印) 맞은 자의 수가 144,000이라고 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도장’이며, ‘도장’은 어떤 소유권을 상징하는 말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다.

▶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 하나님과 그분의 소유된 백성 사이에 어떤 표시가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거는 무엇인가?

[출 31:13]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겔 20:12]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겔 20: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이다** – 성경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강조한 것은 **안식일**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간은 창조의 기념일로 주어진 제칠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 ▶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이 될 수 있는 이유**
- **왕의 도장 3대 요소가 안식일 계명 속에 있음** – 왕의 도장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



[①통치범위 ②직함 ③이름]가 들어 있어야 한다. 그림에서 보는 영국 왕의 도장에 그 사실이 잘 나타나 있다. 그런데, 십계명 중 넷째 계명에 그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들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출 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날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옛날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도장요소	통치범위	직위	이름
영국왕 도장	대영제국	왕	조지 6세
하나님의 인	하늘, 땅, 바다	창조주	하나님

● 십계명은 고대 왕들이 내리는 문서의 형식을 갖추었음 - 고대 왕들은 점토판에 문서를 작성하여 내릴 때에 문서의 중앙에 도장을 찍는 관습이 있었다. 십계명 중 안식일 계명이 그 분량으로 보아 중심에 걸쳐 있는 것을 보면, 당시 문서 작성의 법칙을 따른 듯하다.

하나님의 십계명

(출 20:3~16)

1.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2.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네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4. 하나님의 인을 맞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계 14:4, 5]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4절).

- **여자:교회** -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표상한다(고후 11:2). 순결한 여자는 참 교회를, 음녀는 배교한 교회를 나타낸다(계 12:1, 17:1-5 참조).
- **배도한 교회를 따르지 않음** - 그러므로 그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타락한 교회들의 가르침에서 떠난 자들임을 말해 준다.

- **오직 말씀에 순종** -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이교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전통이나 권위로 만들어진 가르침은 버리고 오직 성경 말씀에만 순종하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만 충성을 드린 자들이다.

2)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4절).

-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갈 2:20)고 말한 것처럼, 십사만 사천 인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온전히 자기를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 그들은 최후에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계명에만 충성을 표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순교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다.

3)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이다(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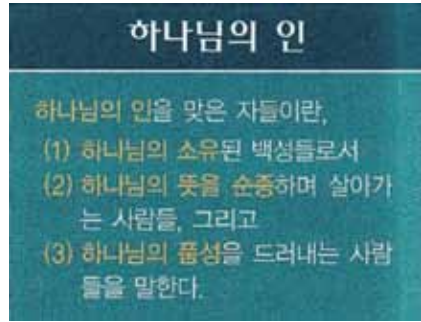
-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에 마지막 재앙은 모든 초태생을 죽이는 것이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이 죽어 나갔다.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통곡 소리가 없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각 가정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뿌림으로 그 화를 면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난 아들과 짐승들이 살게 된 것이다.

-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통념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144,000인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4)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5절).

-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여러 번 경고하고 있다 (계 21:8, 27; 22:15). 왜 여러 가지 죄악의 목록 중에 특별히 거짓말에 대하여 언급하는 있는 것인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짓말이란 무엇인가? 그 해답은 요한이 기록한 요한의 편지서에서 찾을 수 있다.

-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요일2장 4절에서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144,000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여 지키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 ‘여자의 남은 자손’과 ‘144,000인’

- 계시록 12장 17절에 명시된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선악의 마지막 전쟁터에서 사단의 공격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에 ‘144,000인’은 ‘남은 자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5. 세 천사의 기별이란 무엇인가?

1) 144,000인이 외치는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이다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정예부대로서 사명을 마감해야 하는 144,000인에게 위탁된 중대한 기별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다.

2)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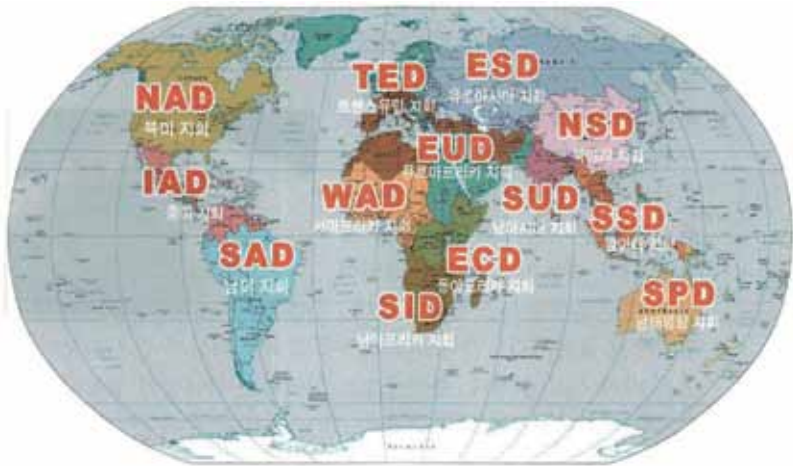
세 천사 기별의 성격은 ‘영원한 복음’으로 정의된다.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는 세 천사의 기별의 서론과 동시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복음의 성격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남은 자손들 [144,000]은 세 천사의 기별로 상징된 이 복음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을 갖는다.

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세계 선교 상황

계시록 12장 공부에서 이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검증된 바 있는 재림교회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신속히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 의식을 갖는다. 그래서 저들은 개 교회나 한 국가에

대한 선교 못지 않게 세계 선교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다. 그 결과 150여 년의 짧은 선교 역사에 이미 전세계 206개국에 복음을 전하였다. 개신 교회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영원한 복음, 즉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에 세계선교본부 대총회를 두고 전 세계를 아래의 지도와 같이 13지역으로 분할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역 선교본부(DIVISION)에서는 소속된 국가들에 대한 선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6.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7)

1) “하나님을 두려워[경외] 하며, 그에게 영광[존귀] 을 돌리라”

● **인본주의 신앙에서 신본주의로** - 변질된 교리들, 세속화된 교회들,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신앙에 물든 교인들을 향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다.

●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은 존재이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 **말씀으로 돌아가라**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선의 길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순종함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 **경외와 존귀** -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로 돌아올 것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2)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 - 마지막 시대에 왜 하나

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심판의 시간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다니엘 8, 9장의 2300주야를 해석하면, 1844년부터 하늘에서 재림 전 심판을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기별은 심판을 앞두고 전파되는 경고성 기별이기도 하다.

- **재림을 준비해야 함** – 심판의 종결은 **재림을 의미** 하는 것이다. 이 기별은 1831년부터 시작된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기별이다.

3)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이유라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심판의 기준인 십계명을 주시해야 함** –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는데, 심판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필연적인 과제이다. 창조의 기념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 대신 인간이 만든 일요일로 예배일을 대치하여 인본주의 신앙으로 기울어진 이 시대의 변질된 교회를 향한 경고의 기별이다. “하

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말씀이 십계 명 넷째 계명에서 인용된 것이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가장 정당한 방법은 창조의 기념일인 제칠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 **참된 예배를 촉구함** -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상의 창조 주이시며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경험한 자가 갖는 참된 예배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7절)는 하나님의 넷째 계명, 안식일 준수의 경험이다.

7. 둘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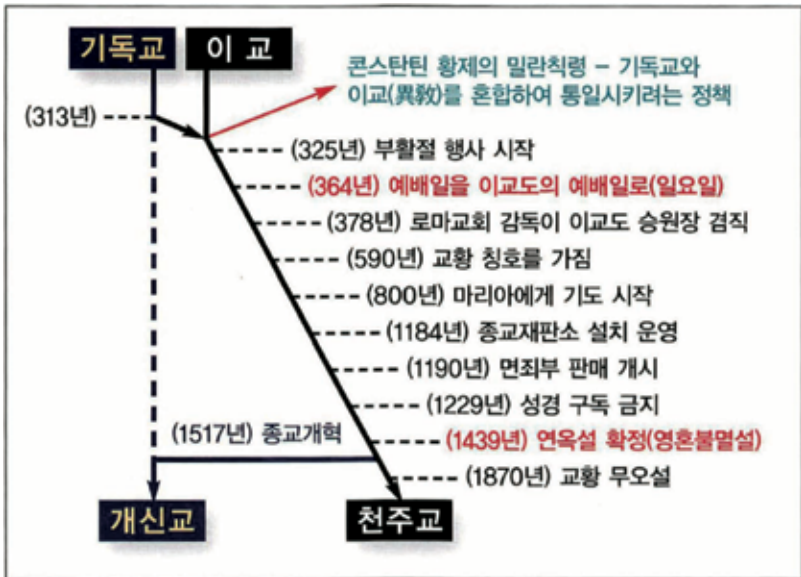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계 14:8)

▶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상태** - 심판 [재림]과 안식일 기별이 핵심이 되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면 ‘바벨론’이 된다는 것이며 바벨론은 무너진다는 것이다.



▶ **바벨론이란 무엇인가** -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된”, “뒤섞인” 등의 뜻이 있다. 바벨의 역사는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인간을 높이고 인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큰 탑을 쌓아 올리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므로 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 **영적 바벨론** - 따라서 영적 바벨론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독교 교리에 이방 종교의 교리나 제도나 관습들이 섞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종교암흑시대를 지나면서 성경은 덮어 놓고 온갖 이교의 교리들이 기독교 안으로 밀려들어 왔다. 다음의 도표는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칙령을 내려 기독교의 자유를 선포한 이후 교회에 이교의 교리들이 유입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도표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와 이교가 결합된 천주교가 형성된 것이다.



▶ **바벨탑에서 시작된 바벨론** – 다음의 도표는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하여 영적 바벨론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바벨론 역사	상 태	비 고
바 벨 탑	하나님을 대적하여 탑을 쌓음 / 인간의 광을 세우고 모여 살고자 함 /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집게 하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함.	바벨론의 원조가 됨
바 벨 론	옛날 바벨탑이 세워졌던 자리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 우상숭배와 잡신이 성행 /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나 결국 망함	하나님을 대적하여 배도한 인간세계를 상징하는 대명사
1차 영적바벨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교의 철학을 섞고 이교의 관습을 끌어들이 배도한 교회를 만듦 / 인간의 전통을 성경보다 중시함(인본주의)	로 마 교 회
2차 영적바벨론	로마교회로부터의 개혁을 시작했으나, 개혁을 완성하지 못한채 여전히 로마교회의 이교적 교리나 관습의 일부를 수용함.	배도한 개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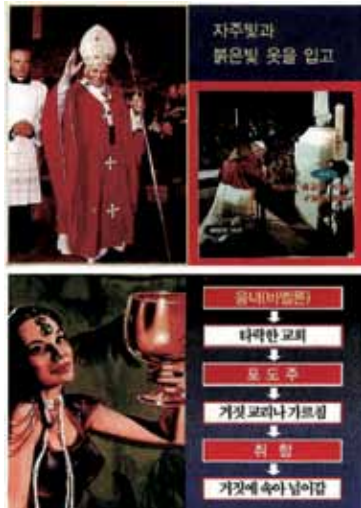
▶ **로마교회와 개신교회는 왜 바벨론인가** –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 교황과 교회의 권위로 혼잡한 교리를 만들어 세상을 취하게 한 로마교회와 그의 가르침을 부분적으로 따라가며 발전된 빛을 거절한 타락한 개신교회들의 인본주의 정신이 곧 바벨론이다. 개신교회는 성경 말씀에 입각한 지속적인 개혁을 거부하고 몇 가지 변질된 교리를 그대로 가진 채 현실에 안주하므로 바벨론이 된 것이다.

▶ **계시록 17장에 묘사된 음녀의 어머니** – 계시록 17장에는 이와 같이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는 세상과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계 17:2, 4, 5]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 **바벨론을 향한 마지막 경고** –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남은 자손’들에게 바벨론을 향하여 외쳐야 할 중대한 기별이 더해졌다.

[계 18:2~4]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남은 자손 중에도 가라지가 있으며 영적 바벨론 안에도 구원을 받아야 할 알곡 같은 백성들이 많이 있다. 마지막에 몰아닥칠 환난을 통해서 남은 자손 중에 섞여 있던 가라지들은 진리를 떠날 것이며, 하나님의 참 백성인 남은 자손들은 성령의 큰 능력을 받아 힘차게 진리를 외칠 것이다. 이 힘찬 음성으로 능력 있게 전파되는 마지막 큰 외침을 통해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여 바벨론에 머물러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찾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면 주님이 구원 받을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배도의 길을 걸어온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 제도를 그대로 따르므로 타락해 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적 증거들을 토대로 과감히 부흥과 개혁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한다. 개신교회들과 천주교회 안에서도 성실하고 헌신적인 교인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길에서 벗어나 천주교인에 대해서 심한 비난을 가해서는 안 된다. 천주교인들 중에도 매우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으며 저희가 받은 모든 빛대로 행하는 자들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해 일하실 것이다”(복음, 329).

“특히 천주교와의 사이에 불필요한 장벽을 쌓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저들이 우리를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 …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빛에 의하면, 허다한 사람들이 천주교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전도, 574).

8.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세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계 14:9~11)

▶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 둘째 천사에 이어서 전해지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최후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당하게 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다. 바벨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짐승(교황권)에게 굴복당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경고의 기별이다.

▶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 –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과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는 매우 절망적이다. 하나님의 최후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형벌**이 임할 것이라는 말이다. 완전하고 철저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 천사의 기별은 종말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다.

▶ 세 천사의 기별 요약

● **첫째 천사의 기별** –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며 심판의 때가 이르렀으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를 회복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안식일을 회복하고 재림을 준비하라는 기별이다.

● **둘째 천사의 기별** – 인간이 창안한 인본주의 신앙의 모든 예배 형태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적이고 이교적인 요소들이 뒤섞여져 있는 **혼잡되고 변질된 교회로부터 나오라는** 호소이다.

● **셋째 천사의 기별** –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에 대하여 가장 엄숙한 경고를 선포.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사이에 관련된 예배 논쟁에 있어서 사람들의 **충성과 순종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 **세 천사의 기별 요약 및 결론** – 셋째 천사 기별의 결론이자 세 천사 기별 전체의 결론은 계시록 14장 12절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한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이나 의지로 계명에 순종할 수 없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하시느니라”(롬 8:26).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구원이 완성된 후에 인간측에서는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갈 때에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공격할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닥칠 때에 필요한 것은 인내이다. 받은 구원을 지

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롬 8:25).

9. 결과적으로 선악의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1) 계시록 13장과 14장의 경배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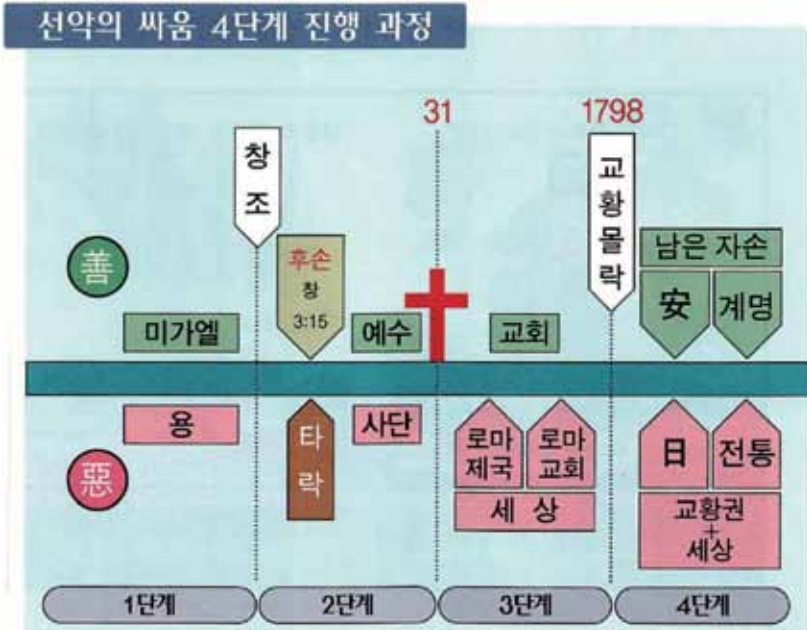
싸움 주제	계 14장	계 13장
예배의 성격	참 예배	거짓 예배
예배의 대상	창조주를 경배하라	짐승에게 경배하라
예배의 시간	안식일	일요일
소속의 문제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2)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 신앙의 실체

선악의 싸움이란 결국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과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 이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인간의 권위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유전으로 대치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들을 따르지 않으면서 인간의 제정한 법도와 규칙을 따르며,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높이면서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는 것이 선악의 싸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결국 인간 편의 중심의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이 마침내 승리자가 될 것이다.

3) 선악의 싸움 4단계 종결

- 계시록 12장의 선악의 싸움의 4단계는 다음과 같이 종결된다.



10.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세 천사 기별의 결론 - 최후 싸움의 쟁점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에 관한 것이다. 즉 셋째 천사의 기별은, 참 예배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백성들의 선택의 최후 결과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참 예배는 넷째 계명인 안식일 준수를 떠나서는 불가능하다. 셋째 천사

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서 반복되면서 강조되었듯이 첫째, 둘째 천사의 기별들을 종합하고 강조하며 귀결짓는 것으로서 무신론, 진화론, 강신술, 배교, 하나님의 율법 유린, 자유주의에 대한 결정적 응징이 될 것이다.



삶에 적용하기

성경을 공부한 후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세요.

표현하기

- ☞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동역자”(고전 3:9)라는 감격을 함께 나누자.

묵상하기

- ☞ 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과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묵상해 보자.

도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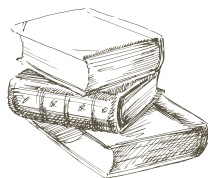
- ☞ 세 천사의 기별은 죄로 멸망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다. 이 호소가 끝난 다음에는 즉각 이 세상에 무서운 일곱 재앙이 내리고 드디어 세상의 마지막이 오는 것이다. 아직은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기다. 나는 혼란한 바벨론에서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계 14:12)을 지키고 있는가?

Part 2 요한계시록 연구

Lesson 10

천년기와 지구 회복

계 20장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마치면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일곱 재앙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천년기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천년기가 끝나면 하늘과 지상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이러한 지구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인간회복’이란 인간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인가?

천년기와 지구 회복

생각 모아보기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믿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우리를 위해서다. 이것은 마치 화재가 나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건물에 갇혀 의식을 잃어 가는 당신을 발견한 소방관이 방화포로 당신을 덮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제가 당신을 옮기는 동안 꼼짝 말고 저를 붙들고 계세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를 도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당신을 구해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들이 소방관이신 예수님에게 구조를 받아야 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 소방관 예화는 어딘가 부족하지만 옳은 것이다. 예수님은 구조대원이다. 우리는 꼼짝 말고 그분을 붙들어야 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서 안전하게 구원하시도록 우리를 맡겨야 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즉 하나님이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경험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조돼야 하며, 하나님과 영혼을 만족시키는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뿐이다. 곧 예수님을 믿는 일이다. 따라서 그분은 세상을 향해 명령하신다. “나를 믿으라!”

마음 준비하기

- ① 당신의 생애에 가장 기뻐던 경험은 무엇인가?
- ② 예수님 재림의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배경 이해하기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도 끝났다. 하늘 천사가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20:1~3)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단은 자기가 저지른 죄의 참담한 결과들을 보면서 천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여야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단이 황폐한 지구에 천년 동안 결박당하고 구원받은 의인들은 천년 동안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에 참여하는 장면이 생생히 기록되어 있다(계 20:1~5).

천년 후에 사단은 잠시 놓임을 받아 부활한 악인들을 선동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한 최후의 공격을 시도하지만 하늘에서 유황 불이 내려와 모두 멸망당하고 말 것이다(계 2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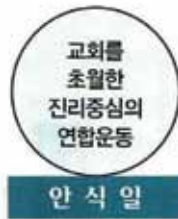
마지막 멸망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대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 모든 악인들은 둘째 부활 혹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부르는 부활을 통하여 다시 살게 된다. 이것은 심판을 위한 부활이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형벌을 받게 되며, 결국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계 20:11~15).

1.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마치면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되는가?

▶ **두 개의 연합 운동이 일어날 것임** -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의 과정에서 거대한 두 개의 연합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 **일요일 법령과 늦은비 성령** -

진리를 중심으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이고, 교회를 중심



으로 연합한 세상의 백성들은 일요일 법령의 강제성과 강신술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 **은혜의 시기가 끝남** - 이 두 세력간의 충돌을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과 멸망당할 사단의 무리가 서로 분리될 것이다. 잠시 후,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은혜의 시기가 영원히 끝나게 된다.

▶ **인간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됨** -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1, 12).

2.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애굽 탈출, 지구 탈출** -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려 할 때에 바로 왕이 좀처럼 놓아 주지 않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로 이주하려 할 때에 사단은 쉽게 놓아 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 땅을 초토화시킨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듯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 이 땅에는 무서운 일곱 재앙이 내려서 지구는 황폐화 될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극적으로 지구를 탈출하게 될 것이다.

▶ **일곱 재앙** - 이 일곱 재앙에 대한 기록은 계시록 16장에 나온다.

일곱 재앙(요한계시록 16장)
1. 악하고 독한 현대
2. 바다가 피가 됨-생물 죽음
3.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됨
4. 해가 뜨거워짐 - 사람을 태움
5. 흑암
6. 아마겟돈 전쟁 준비
7. (“되었다”) 큰 지진, 큰 우박, 마지막 전쟁

▶ 일곱재앙이 내릴 때 악인들의 모습

“많은 악인들은 재앙들의 영향을 받게 되자 크게 격분하였다. 그것은 참으로 무서운 번민의 광경이었다. 부모는 자녀를 맹렬히 비난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헐뜯으며 형제는 자매를 자매는 형제를 물고 뜯었다. 통



곡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다. ‘이 두려운 시간에 나를 구원할 진리를 받지 못한 것은 바로 너 때문이다’고 부르짖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향하여 맹렬히 비난했다. ‘너희는 우리를 경고하지 않았다. 너희는 우리에게 온 세상이 다 회개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의 모든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했다. 너희는 우리에게 이 때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사람들을 우리를 망하게 할 광신자요 악인이라고 선언했다.’ 나는 그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저희가 당한 고통은 그 백성들의 고통보다 10배나 큰 것이었다”(살아남는 이들, 405).

3. 일곱 재앙의 마지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 일곱 재앙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재앙을 당하는 악인들로부터 극도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다.

●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직전의 장면

“악인들이 성도들을 둘러싸고 조롱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 환히 비추고 달이 그 자리에 멈춰 선다. 악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랄 것이다. 반대로 성도들은 기뻐하며 그들의 구원의 증거를 보았다. 표적과 기사가 연달아 일어난다. 모든 만



물이 본 궤도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고 냇물은 흐르기를 그친다. 먹장구름들이 일어나 맞부딪친다. 그러나 영광이 머무는 한 맑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로부터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초기문집, 285).

●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

“곧 크고 하얀 구름이 나타났고 그 위에 인자가 앉아 있었다. 그 구름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였다. 천사는 그것이 인자의 징조라고 말해 주었다. 그것이 지상에 가까이 오자, 우리는 그 위에 정복자로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위엄과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었다. 거룩한 천사의 무리가 그들의 머리에 밝게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그분을 호위하고 있었다. 어떠한 언어로도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묘사할 수 없다. 탁월한 영광과 위엄으로 빛나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구름이 더 가까이 내려오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 …조금 전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자들이 이제 저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다. 그들이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성도들은 기쁜 곡조로 ‘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하고 외쳤다”(초기문집, 286, 287).

4.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 잠자던 의인들이 부활함

[살전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

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에 땅이 크게 흔들렸다. 저희는 그 부르심을 듣고 나와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



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고 외쳤다. …질병과 죽음의 흔적을 가지고 무덤 속으로 들어갔던 그 육체는 죽지 아니할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나왔다’(살아남는 이들, 41).

2) 살아있던 의인들이 승천함

[살전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 살아남은 성도와 부활한 자들은 소리를 합하여 승리의 함성을 높였다. …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



되어 다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저희의 주를 영접하였다. 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대면인가! 죽음 때문에 이별하였던 친구들이 서로 만나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다’(살아남는 이들, 412).

3) 살아 있던 악인들의 죽음

[살후 1:8, 9]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악인들이 멸망했고 그들의 시체는 땅의 표면에 널려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땅에 사는 자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고통 때문에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저주하였다. 여호와의 진노가 거짓 목자에게 임하였다. 저들이 밭을 딛고 서 있는 동안 저희 눈이 썩어 버렸고 혀가 그 입에서 사라졌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 악한 무리는 피차간에 분노하였다. 땅은 피로 덮이고 시체는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널려 있었다”(살아남는 이들, 415).

4) 사단이 결박됨

[계 20:1~3]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 곳[황폐한 지구]이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이 일천년 동안 거할 집이 될 것이다. 그들은 이 곳에 갇혀서 갈라진 지면 위를 배회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자신의 반역이 끼친 영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그 저주의 열매를 일천 년 동안 먹을 것



이다. 사단은 홀로 땅에 갇혀서 다른 흑성들의 타락하지 않은 거민들을 유혹하거나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이 기간에 사단은 극심한 고통을 받는다. 그가 타락한 이후로 그의 악한 성질은 끊임없이 발휘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는 그의 능력을 빼앗길 것이요, 타락한 이후의 자기 행동에 대하여 돌이켜 생각하기 위하여 홀로 남아 있게 된다. 또한 자기가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고통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저지르게 한 모든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될 자기의 무서운 장래를 떨림과 두려움으로 내다보게 된다”(살아남는 이들, 415, 416).

5) 땅이 황폐해짐

[욘 2:3]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땅은 거친 광야처럼 보였다. 도시와 촌락들은 지진에 무너져서 무더기만 남았다. 산들은 커다란 구멍을 남겨 놓고 그 자리에서 옮겨졌다. 거친

바위들은 바다에서 또는 땅속에서 튀어나와 온 지면에 널리 흩어졌다. 큰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땅 위에 넘어졌다”(살아남는 이들, 415).

5. 천년기 동안에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 **천년기의 시작** – 계시록 20장 3절에서 이미 확인한 대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사단은 사로잡힐 것이고, 이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태에서 1000년이 지난 후에 사단이 잠시 놓임을 받을 것이다. 그 천 년이라는 기간 중에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 함** –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계 20:4, 6).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 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고전 6:3).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왕의 권세를 받아 다스리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그 죽은 악인들의 모든 잘못을 그 행위에 따라 살피고 그 행실을 율법책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심판하셨다. 그 후에 그들은 악인들이 행한 대로 반드시 받아야 할 형량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망의 책



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하였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도 예수와 그 성도들에게 심판을 받았다. 사단의 형벌은 그에게 속은 자들의 형량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것이었다. 그가 받을 고통은 너무 커서 도무지 비교할 수 없었다. 사단이 속인 그 모든 자들이 다 멸망한 후에도 사단은 여전히 살아남아 고통을 당할 것이다”(살아남는 이들, 416).

6. 천년기가 끝나면 하늘과 지상에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1) 하늘의 가족들이 **지상으로 이주** 함

- [속 14:4, 5]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죽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마친 후, 천년기 끝에 예수께서 그 성을 떠나시자 성도들과 하늘 천사들의 한 행렬이 그를 따랐다. 예수께서 한 큰 산 위에 내려오시자 그 산은 그의 발이 닿는 순간 갈라져서 벌판이 되었다”(살아남는 이들, 416).

2)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옴**

- [계 21: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후에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성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열두 기초와 열두 문이 있었는데, 한쪽에 문이 셋씩 있고 각 문마다 한 천사가 서 있었다. 우리는 ‘그 성! 그 큰 성! 그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대!’고 외쳤다. 그 성은 화려하고 찬란한 영광 속에 내려와 예수께서 준비하신 그 큰 평지 위에 놓여졌다”(살아남는 이들, 417).

[계 20:7~10]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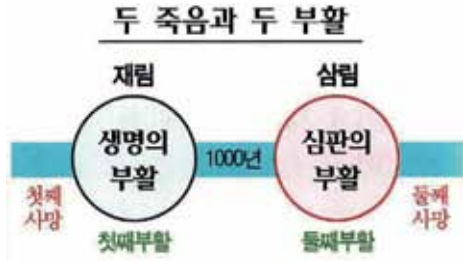


3)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함

- 천년기가 마치고 나면 죽었던 악인들이 부활하게 된다. 이 부활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나오는 “심판의 부활”이다. 사단이 잠시 놓이겠다는 것은 위의 성경절에 나타난 대로 그 부활한 악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두렵고 떨리는 위엄으로 죽은 악인들을 불러일으키시자 그들

은 무덤으로 들어갈 때처럼 허약하고 병든 육체를 가지고 일어났다. 이는 비참한 광경이요, 불쌍한 장면이었다. 첫째 부활에서는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아름다움으로 일어났으나 둘째 부활에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의 흔적이 있었다. 세상의 왕들과 귀족들과 천한 자들과 낮은 자들 또는 지식이 있는 자들과 지식이 없는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인자를 바라보았다.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던 자들과 그의 거룩하신 이마에 가시 면류관을 씌운 자와 같대로 그를 친 자들이 다 함께 영광스러운 왕의 위엄을 가지신 그를 보았다. 그가 고난을 받으실 때에 그에게 침을 뱉던 자들이 이제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과 그의 얼굴의 영광에서 시선을 돌렸다. 그의 손과 발에 못을 박던 자들이 이제는 그 못 자국을 보았다.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자들이 또한 그의 몸에서 저희가 저지른 잔인성을 보았다. 이제 그들은 십자가에 죽이고 경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분이신 것을 알았다. 저희가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앞에서 숨으려고 도망할 때에 긴 고민의 울음이 터졌다”(살아남는 이들, 418, 419).



첨부 / 도표 두 죽음과 두 부활

4) 사단이 그들을 총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 함

● “천 년이 차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천 년이 차고 악인이 부활한 상태에서 마귀는 저들을 미혹하여 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고 할 것이다.

“그는 부하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그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부추기면서 자기와 자기의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 셀 수 없이 많은 부활한 무리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싸움에 익숙하고 나라들을 정복했던 힘있는 군사들과 왕들이 있었다. 또한 한 번도 싸움에 패해 본 적이 없는 거인들과 용감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중에는 온다는 소문만 들어도 제국들이 벌벌 떨던 거만하고 야심 많은 나폴레옹도 있었다. 그리고 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전쟁터에서 죽은 장대하고 위엄 있는 전사들이 있었다”(살아남는 이들, 419).

‘곡’과 ‘마곡’이란 무엇인가?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겔 38:1,2). ‘마곡’은 지명이고 ‘곡’은 사람 이름이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던 지역과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통틀어서 ‘곡과 마곡’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5)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을 소멸함

●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귀의 마지막 계획은 실패할 것이다.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이 마귀의 지도와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모든 악과 악의 결과들을 소멸할 것이다. 이곳이 지옥이요 그 죽음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쏟아진다. 땅이 파괴된다. 땅속 깊이 감추인 무기는 폭발한다. 활는듯한 불길이 땅의 갈라진 틈 속에서 솟구쳐 나온다. 바위에도 불이 붙는다. ‘극렬한 풀무불’(말 4:1) 같



은 날이 온 것이다. …지구의 표면은 한 개의 녹아진 덩어리요 끓고 있는 넓은 불바다 같다. 이날은 곧 경건치 않은 사람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날이다. ‘이것은 여호와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 하실 해’(사 34:8)이다. 악인들은 땅에서 저희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 어떤 사람들은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고 어떤 이는 여러 날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저희 행위에 따라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사단은 자기 자신의 반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르도록 미혹했던 모든 죄를 합하여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된다. …정결하게 하는 불길 가운데서 악인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뿌리와 가지 – 뿌리인 사단과 가지인 그의 부하들이 다 멸망한다”(살아남는 이들, 428, 429).

6)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됨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 세상을 정결하게 한다. 저주의 흔적이 다 사라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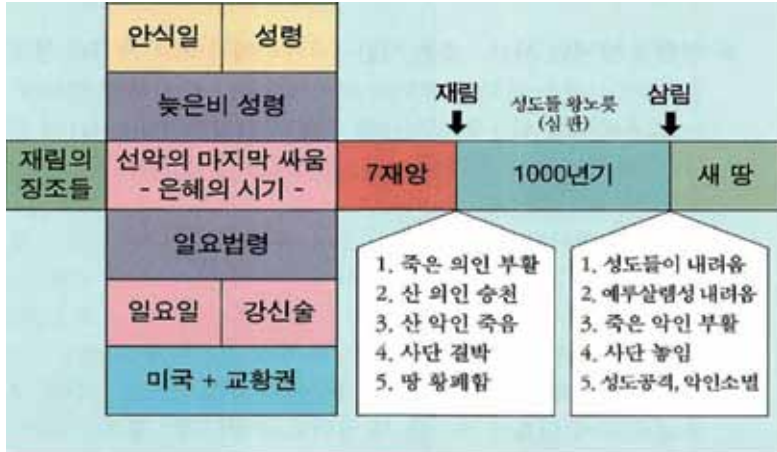
다.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나게 하는 영원한 지옥불은 없다. 단 하나의 흔적이 남는다. 곧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만이 언제까지나 남는다. 구주의 상한 머리와 손과 발에 죄악이 저지른 참혹한 흔적은 남아 있다”(살아남는 이들, 430).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새 예루살렘에는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계 21:11). 여호와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사 65:19)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3, 4)”(살아남는 이들,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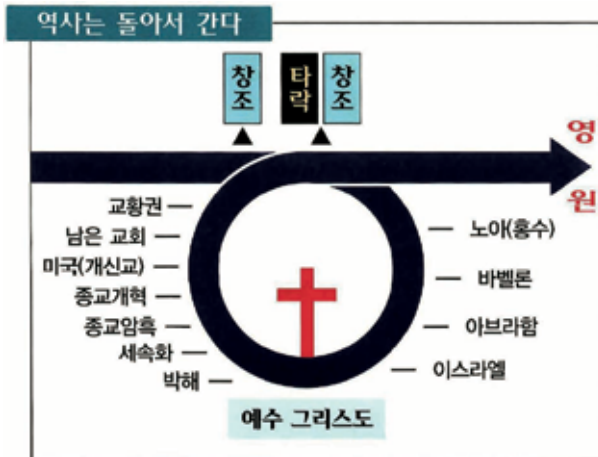
7. 이러한 지구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 **마지막 사건들 도표** – 현재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림의 징

조와 마지막을 알리는 각종 예언의 성취,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도표와 같다.



▶ **역사는 돌아서 간다** –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이후로 전개되어 온 이와 같은 인류의 역사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다음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돌아서 간다’는 것이다.



● **영원을 벗어난 시간:죽은 시간** –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되어 있었다. 죄 때문에 인류의 역사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벗어나게 되었고 그것은 죽은 시간의 역사였다.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없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죽은 자이다(마 8:22).

● **접붙임을 받아야 산다** –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만 다시 살 수 있다. 죽은 시간의 헛바퀴 역사가 돌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다시 영원이라는 시간의 궤도를 향해 전진하게 되었다.

● **구원이 완성된 후 인류의 역사** –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된 후에 인류의 역사를 세 단어로 표현하면, ‘창조’ ‘타락’ ‘회복’ 이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전개되는 인류의 역사는 ‘회복의 역사’이다. 그리고 그 회복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한 개인의 삶도 회복의 과정이다. 잃어버린 에덴을 찾는 것이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8. ‘인간회복’이란 인간의 어떤 변화를 말하는 것인가?

▶ **예수님의 인간회복 사업** –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행하신 모든 사업은 인간회복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분의 하신 모든 일을 다음의 한 성경절이 설명하고 있다.

[마 4:23]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 **인간회복과 관련된 예수님의 3대 사업**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인간관계 회복	하나님관계 회복	육체건강 회복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양심을 일깨우시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신앙심을 되살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타락한 인간의 도덕성과 신앙심 때문에 병들고 연약해진 육체의 질병들을 치료해 주셨다.

▶ **인간회복 [전인회복]의 방법**

1) 인간관계 회복을 위하여 –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마 7: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사 58:6-9]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

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① 가난한 이웃들에게 **물질을 나누어 구제하라**

[신 15: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잠 11:25]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마 6:4]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죄악은 이기심이다. 그리고 교만심이다. 사람의 품성이 변화된다는 것은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들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이기심을 고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이 자신의 소유를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다. 다음의 말씀을 깊이 음미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다.

“과수원과 토지의 수확이든, 가축이든, 손이나 머리의 일로부터 오는 수입이든 간에 모든 수입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제2의 십분

의 일을 빈민 구제와 그 밖의 자선적인 용도에 쓰도록 함으로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증계하여 주는 기회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롭게 느끼도록 하였다. 이것은 편협한 이기심을 죽이고 넓고 고결한 성품을 기르기 위한 한 가지 훈련이었다”(구호봉사, 288).

② 이웃을 위하여 시간과 노력을 들여 봉사하라

[벧전 4:10]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빌 2:4]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람이 자신의 노력과 힘을 들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며 봉사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선한 일을 하면 쾌감을 느끼며 기분을 좋도록 만드셨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에 행복감을 전달해 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구호봉사, 320).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계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에 이루어진다”(구호봉사, 318).

③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영생의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품성 계발에 필수적인 일이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계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그리스도인 선교봉사, 8).

2) 하나님 관계 회복을 위하여 –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라

[사 43: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① 나의 모든 시간(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안식일 성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으므로 나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다

시 말하면 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표시가 제철일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안식일을 구별하지 않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욕을 좇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순간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 58:13, 14]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성수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신 30: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시니”

[시 36:9]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② 내가 소유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십일조 성별

하나님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시다. 그분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로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가 바로 십일조를 성별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물을 관리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만히 채워 주실 것이다.

[왕상 20:3] “네 은금은 내 것이요 네 처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학 2: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말 3: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3) 육체건강 회복을 위하여 - 나의 몸이 성령의 전(殿)임을 인식하라

[고전 6:19, 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①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음식물을 절제하라.**

하나님께서서는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대하여 이중적인 소유권을 주

장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므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후 죄 값에 팔려서 사탄의 손에 넘어간 것을 다시 그 대가(십자가 희생)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물은 우리의 식욕을 따라 먹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섭취해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원식물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

[창 1: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 소망을 가진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식물을 취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육식은 채소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므로 육식 외에도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는 환경에서 육식을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일이다.

“육식의 결과는 즉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해하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자신들이 먹은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키고 병을 일으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별로 없다. 고기를 먹으면 그것이 위장 안에서 부패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암, 종양, 폐질환 등이 주로 고기를 먹음으로 일어나게 된다. 고기를 사용함으로 동물적인 본성이 강화되고 영적인 본성이 약화된다” (음식, 383).

“죽은 동물의 고기를 흔하게 사용함으로 육체적 체질에는 물론이요 도덕력을 저하시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러한 음식은 그들의 혈관의 피를 불결하게 하며 저열한 동물적인 정욕을 흥분시킨다. 그것은 하나님과 진리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을 이해시키기 위한 예민한 통찰력과 사고력을 약화시킨다. 육류를 함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청명한 두뇌와 민활한 지성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상동).

[고전 9:25]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레 11:44]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② 마음의 건강을 위하여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골 4:2]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살전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뇌내 몰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몸 안에 축적되는 질병의 요인을 제거하고 생명 세포를 총체적으로 회생시키는 호르몬이다. 이것이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좌우한다. 이 뇌내 몰핀이 만 들어지는 데는 뇌파의 작용이 중요하다. 뇌파에는 ‘알파’파, ‘베타’파, ‘델

타'파, '세타'파, '플랫'파 등이 있다. 이러한 뇌파들이 알파로 작동할 때에 뇌내 몰핀이 잘 생성된다. 우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려면 뇌파를 알파로 작동하도록 뭔가를 해 주어야 한다. 뇌파가 알파로 작동하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타인중심적인 삶으로 생활 스타일을 바꿀 때
-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신이 있을 때
- 온화한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뇌파를 알파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인데, 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 속에 모든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름다운 천연계를 감상할 때, 즐거운 음악을 들을 때, 친절을 베풀고 봉사할 때, 기도할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질 때, 남을 용서할 때, 사랑할 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에 뇌파가 알파화되어서 양질의 뇌내 몰핀이 형성된다.

일본의 의사 학자인 하루야마 시게오 박사가 인체에 관한 오랜 세월의 연구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전자 현미경 발견자인 후나이 사치 오씨는 ‘우주 전체에 창조주의 의지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그 의지가 유전자라는 형태로 우리 몸 안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창조주의 의지에 합당한 사람은 살아남고,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멸하는 매커니즘이 인간의 몸 안에 장치되어 있는 것이다”(뇌내혁명 2권, 34).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잘 깨닫고 순종하며 실천할 때에 최상의 상태가 되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삶에 적용하기

성경을 공부한 후 함께 다음과 같은 주제로 나누면서 삶에 적용하세요.

표현하기

☞ 마침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대쟁투는 끝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늘을 여행하는 감격을 나누어 보자.

묵상하기

- ☞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재림의 광경을 상상해 보자.

도전하기

- ☞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 세상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하루살이가 전등 밑을 몇 시간 동안 돌다가 떨어져 죽으며 이것으로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엄청난 삶이 있다는 것을 하루살이는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상상도 못할 것들을 누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자.

다니엘 · 요한계시록

핵심에언연구

발행일 2015년 10월 1일

발행처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발행인 김대성 | **편집자** 윤현석 | **디자인** 이혜연, 배혜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홈페이지 <http://mtri.or.kr> | **전자우편** hanss417@hanmail.net

대표전화 (02)3299-5264

정가 12,000원

구입문의: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Copyright © 2015 한국연합회 선교전략연구소

재림성도 양육단계 및 교재

1. 신자되기 (Making Adventist)



2. 제자되기 (Training as Disciple)



3. 일꾼되기 (Serving as Servant)



운영 지침서



다니엘·요한계시록

핵심예언연구



이 교재는 재림성도면 꼭 알아야 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언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예언들을 몇 가지 선별하여 개인적으로나 소그룹을 통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개발된 교재입니다.

PART 1 다니엘서 연구

- 1과 : 예언과 이스라엘 역사
- 2과 : 신상에 나타난 세계 역사
- 3과 : 작은뿔의 정체
- 4과 : 안식일과 주일의 역사
- 5과 : 2300주야에 대한 예언

PART 2 요한계시록 연구

- 6과 : 선악의 싸움 4단계
- 7과 : 교황권의 부활과 미국
- 9과 : 영혼불멸설과 강신술
- 9과 : 144,000인과 하나님의 인
- 10과 : 천년기와 지구회복